

신약
7

BELIEVER'S BIBLE COMMENTARY
1,2 CORINTHIANS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고린도전후서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고린도전후서

정 병 은 옮김

BELIEVER'S BIBLE COMMENTARY
BY
WILLIAM MACDONALD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BELIEVER'S BIBLE COMMENTARY

1,2 CORINTHIANS

WILLIAM MACDONALD

THOMAS NELSON PUBLISHERS

Nashville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410-8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233-4
전화: (031) 914-2732, 팩스: (031) 917-4520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Jeongbalsan-dong,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410-828, KOREA

차 례

약어표	6
저자 서언	7
편집자 서언	9
신약성경 서론	13
고린도전서	21
고린도전서 서론	23
1. 서문(1:1-9)	29
2. 교회 안의 무질서(1:10-6:20)	34
3. 교회 문제에 관한 사도의 답변(7-14장)	85
4.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15장)	196
5. 바울의 결론적 권고(16장)	221
참고 문헌	230
고린도후서	233
고린도후서 서론	235
1. 사역에 대한 바울의 설명(1-7장)	243
2.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성취하라는 바울의 권고(8-9장)	331

3. 바울의 사도권 변호(10-13)	349
참고 문헌.....	394

약어표

- ASV-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FWG-그란트의 숫자 성경(F.W. Grant's *Numerical Bible*)
JND-다아비의 새번역(John Nelson Darby's *New Translation*)
JBP-필립의 의역본(J.B. Phillips' Paraphrase)
KJV-흠정역(King James Version)
KSW-(Kenneth S. Wuest's *An Expanded Translation*)
LB-현대어 성경(Living Bible)
NASB-새 미국 표준역 성경(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B-새 영어성경(New English Bible)
NIV-새 국제역 성경(New International Version)
NKJV-새 흠정역(New King James Version)
RSV-개정 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V-개정역(Revised Version<England>)
A.D-주후(主後;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B.C-주전(主前; Before Christ)
NU-가장 오래된 헬라어 비평 사본

저자 서언

“신자 성경 주석”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진지한 학도가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되었다. 그러나 어떤 주석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주석이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은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준 다음 보다 깊은 연구를 하도록 독자를 성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본 주석은 쉽고 비전문적인 언어로 집필되었으며, 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인상을 풍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신구약 성경의 원어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때문에 말씀의 실질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경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딤후 2:15).

본 주석의 논조는 간결명료하므로 독자는 어떤 구절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여러 쪽에 걸친 설명을 애써 다 읽어볼 필요는 없다. 분주히 돌아가는 현대생활은 진리가 짧고 간결하게 제시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구절들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다. 많은 경우에 다양한 설명들을 소개함으로 독자로 하여금 어떤 설명이 문맥과 나머지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부합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주석은 어떻게 성경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만일 본서가 목적 그 자체로 사용된다면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덧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본서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일을 독려하고 주님의 교훈에 대한 순종심을 일깨우는데 사용된다면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다.

모쪼록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독자의 마음에 빛을 비취 주시기를 바란다.

편집자 서언

“주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1950년대 후반에 어떤 성경교사가 엠마오 성경학교(지금의 엠마오 성경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던진 충고였다. 그 중 적어도 한 학생이 지난 30년 동안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 그 교사는 본 “신자 성경 주석”의 저자인 윌리엄 맥도날드였고, 그 학생은 당시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던 본 편집자 아더 화스타드(Arthur Farstad)였다. 그는 평생에 단 한 권의 주석만 보았는데 헤리 A. 아이언사이드의 에베소서 강해서인 “하늘에 속한”(In the Heavenly)이 그것이었다. 10대 시절 어느 해 여름에 그 책을 숙독한 후에 아더 화스타드는 주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1. 주석이란?

주석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우리는 주석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가? 최근에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 발행인이 성경에 관계된 책을 15가지로 분류했다. 따라서 혹 어떤 이들이 정확히 어떻게 주석이 스터디바이블이나 심지어 성구사전, 성경지도, 성경사전 등과도 다른지를 알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전혀 놀랄 일이 못된다.

주석은 절별 혹은 단락별로 성경 본문에 대해 “논평을 하거

나”(comments) 도움을 줄만한 언급을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석을 저만치 제껴두며 “저는 단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성경 자체만 읽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제법 경건한 말처럼 들리나 그렇지 않다. 주석은 단지 최선의(그리고 가장 어려운) 형태의 성경강해(하나님의 말씀을 절별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를 문자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주석들(가령 아이언사이드 주석)은 설교를 그대로 책으로 출간했다. 게다가 모든 시대 모든 언어로 된 유명한 성경강해서들이 영어로 보급된 실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강해서들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로서는 절망할 정도는 아니라 해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까닭에 이 “신자 성경 주석”이 간행된 것이다.

2. 주석의 종류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주석을 집필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주석은 매우 개방적인 것에서 매우 보수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본 “신자 성경 주석”은 성경을 신앙과 삶 모두에 절대 충분한 영감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매우 보수적인 주석이다.

주석은 매우 전문적인 것(예를 들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구문에 대해서까지 세세한 설명을 가한 것)에서 매우 간략한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범위가 넓은데 본 주석은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다. 전문적인 설명은 주로 각주로 돌렸으나 본문 해설에 관한 한은 난이도에 관계없이 대충 얼버무림 없이 충실히 다루었다.

맥도날드 형제님의 글은 “강해가 풍부하다.” 형제님의 글의 목적

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돕는데 있다.

주석은 또한 신학적인 진영에 따라서 보수적인 것과 자유주의적인 것, 개신교적인 것과 로마 카톨릭적인 것, 전천년적인 것과 무천년적인 것 등으로 나뉘는데 본 주석은 보수적이며 개신교적이며 그리고 전천년적이다.

3. 본서를 사용하는 방법

본 주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다음 순서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1) 대강 훑어봄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좋아하거나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여기저기 조금씩 읽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특정 구절에 대한 참조

어떤 구절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경우 여러분은 해당 구절이나 문맥에 대한 설명을 찾아봄으로써 분명 적절한 자료를 얻게 될 것이다.

(3) 교리에 대한 연구

안식일, 침례, 선택, 삼위일체 등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주제를 다루는 구절들을 찾아보라.

(4) 책별 연구

만일 성인 주일학교나 정규집회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매주 해당 본문을 미리 공부해 뒀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토론을 하면 더 큰 유익이 있다). (물론, 만일 인도자도 본서를 주요 참고서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다른 주석을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

(5) 성경 전체에 대한 연구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 전체”를 상고해야 한다. 성경 전체에는 난해한 본문이 흩어져 있으며 본서와 같은 주의 깊고 보수적인 책이 당신의 성경공부를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성경공부는 광활한 사막을 여행하듯이 그 출발이 막막하고 아득하지만 조금씩 진보하면서 꿀맛과 같이 달콤한 시간이 된다.

맥도날드 형제님은 30년 전에 제게 “주석을 무시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신바 있다. 새 흠정역본(New King James text)에 맞춰 편집을 하면서 이 성경주석을 매우 주의 깊게 연구해 봄으로써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주석을 즐겨 사용하라!”는 충고를 독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다.

신약성경 서론

“이 신약성경 책들의 역사적, 영적인 면에서의 가치는 그 책들의 수나 양에 도저히 비견되지 않으며, 그 책들이 삶과 역사에 미친 영향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여기 에덴에서 동이 트기 시작한 시대의 정점이 있다. 구약의 예언의 그리스도는 복음서의 역사의 그리스도요, 서신서의 경험의 그리스도와, 계시록의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신다.”-W. 그레햄 스크로기

1. “신약”의 뜻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깊은 바다, 혹은 그 중 한 책을 연구하는 비교적 작은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기 전에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책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사실을 간략히 개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약속”(testament)과 “언약”(covenant)은 둘 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디아테케*)를 옮긴 것이며, 히브리어로는 한 두 곳에서 어떤 번역이 더 나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독교 성경상의 용어로는 “언약”이란 의미가 확실히 더 낫게 여겨지는데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하나의 협정, 맹약, 혹은 “언약”을 이루기 때문이다.

기독교 성경은 옛(혹은 “오랜”) 약속과 대조해서 “새” 약속(혹은 언약)으로 불리운다.

두 약속 모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으며, 따라서 모든 그리

스도인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자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특히 우리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 대해, 또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의 그 부분에 보다 종종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어거스틴에 의해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표현된바 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 드러나 있다.”

2. 신약성경 정경

“정경”(canon, 헬-카논)이란, 어떤 사물을 측정 내지 평가하는 “기준”(rule)을 가리킨다. 신약성경의 정경은 영감 받은 책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러면, 이 책들만이 정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혹은 이 27권의 책 모두가 정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독교 초기부터 여타 기독교 서신 및 문헌들(이단적인 것을 포함해서)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책들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종종 주장하기를 A. D 3세기 후반에 한 교회회의가 정경목록을 정비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그 책들은 기록된 즉시 “정경적이었다.” 경건하고 분별력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들을 인정했듯이(벧후 3:15-16) 처음부터 영감 받은 성경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교회들에서는 한동안 일부 성경(유다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어떤 책이 마태나 베드로, 요한, 혹은 바울, 혹은 마가나 누가와 같은 사도의 범주에 드는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을 경우

에는 그 책의 정경성에 대해 아무 의문이 없었다.

신약성경 정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회의는 사실 여러 해 동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말하자면 교회회의는 책들의 “영감된 목록”을 정비한 것이 아니라 “영감된 책들”의 목록을 정비한 것이었다.

3. 저자 문제

신약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야고보, 베드로, 유다 및 히브리서의 익명의 저자(히브리서 서론 참조)를 감동하사 집필하도록 하셨다. 신약성경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최선의 정확한 이론은 “이중 저작권”이다. 신약성경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신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적인 동시에 전적으로 신적인 것이다. 신적인 요소가 인간적인 요소로 하여금 아무 실수도 범하지 않게 했다. 그 결과 원본상 무오무류한 책이 나오게 되었다.

이 기록된 말씀에 비견되는 유용한 유추는 살아있는 말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속성이다. 그분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이고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희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신적인 속성이 인간적인 속성으로 하여금 여하한 과오나 죄를 범하지 못하게 했다.

4. 연대 문제

약 1천년이 걸쳐 완성된 구약성경(BC 1400-400)과는 달리 신약성경

은 불과 반세기만에(A.D 50-100) 집필되었다.

신약성경의 현재 순서는 모든 시대 교회를 위해 매우 적합한 순서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애로 시작하여 교회를 말하고 그런 다음 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끝으로 교회와 세상의 장래를 밝힌다. 그러나 이 책들은 집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다. 이 책들은 필요가 발생하는 대로 집필된 것이다.

초기의 책들은 필립스(Phillips)가 부르는 대로 “어린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이다.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등이 기독교 첫 세기 중반에 기록된 최초의 신약성경들일 것이다.

복음서들은 그 다음에 기록되었는데 마태나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다음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순으로 기록되었다. 끝으로 아마도 1세기 끝 무렵에 계시록이 기록되었다.

5. 분류

신약성경은 내용상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역사서-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바울 서신, 공동 서신

예언서-요한계시록

이 책들에 대한 적절한 통찰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히 구비하게” 될 것이다.

많은 신자들로 하여금 바로 그런 자질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본 주석을 펴내는 우리의 바람이다.

6. 언어

신약성경은 “일상 언어”(“코이네”, 혹은 “일상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영어만큼이나 잘 알려지고 널리 사용된 1세기 당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제2의 언어였다.

히브리어의 정감 있고 다채로운 표현법이 구약성경의 예언과 시 및 일반 해설에 꼭 알맞듯이 헬라어는 신약성경을 위해 섭리적으로 예비된 놀라운 표현 도구였다. 헬라어는 알렉산더 대제의 정복 활동을 통해 널리 보급되었으며 그의 군대는 대중을 위해 헬라어를 단순화 내지 대중화시켰다.

헬라어는 동사의 시제, 격, 어휘 및 기타 요소들의 정밀성으로 인해 서신서(특히 로마서와 같은 책)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교리적인 진리들을 표현하는데 적격이었다.

“코이네” 헬라어는 지식층을 위한 문학적인 언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속 언어”(street language)나 조악(粗惡)한 헬라어도 아니다. 신약성경의 일부분(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은 거의 문학적인 수준에 이른다. 또한 누가는 때때로 고전적인 기법을 사용하며 바울도 때로는(고전 13,15장 등)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법을 동원한다.

7. 번역

영어는 많은(아마도 너무 많은) 역본을 지니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들은 다음의 네 가지 일반적인 유형으로 분류된다.

(1) 문자적인 번역

J. N. 다비역, 영어 개정역(English Revised Version, 1881)과 그 미국판, 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1901) 등의 역본은 지나치게 문자적이다. 이것은 그 역본들로 하여금 연구를 위해서는 유용하지만 예배나 공중 성경공부나 암기를 위해서는 취약하다. 흠정역(KJV)은 위의 역본들에 비해 그 위엄과 미려함이 뛰어난데 그런 까닭에 많은 그리스도인 회중들은 흠정역을 선호해 왔다.

(2) 완전 직역(Complete Equivalence)

매우 문자적이며, 영어어법이 허락할 경우 히브리어나 헬라어 표현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동시에, 좋은 표현법이나 속어가 필요할 때는 보다 자유로운 번역을 시도한 역본들이 있는데 흠정역(KJV), 개정 표준역(RSV), 새 미국 표준 성경(NASB), 새 흠정역(NKJV) 등이 거기에 속한다. 불행히도 개정 표준역(RSV)은 신약은 대체로 믿을만 하나 구약의 경우 많은 메시아 예언들을 가볍게 다루는 과오를 범했다. 오늘날 심지어 전에는 건전했던 몇몇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위험한 경향이 엿보인다. 본 “신자 성경 주석”은 새 흠정역(NKJV)에 맞춰 편집을 했는데, 새 흠정역(NKJV)은 고어체 대명사(*thee*와 *thou*)를 사용하지 않은 채 미려한(그러나 고풍적인) 흠정역(KJV)과 현대 영어 사이에서 가장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대부분 현대어 성경에는 빠져있는 많은 동사와 단어들을 내포하고 있다(본 주석의 해설란에서 그 실례들을 볼 수 있다).

(3) 탄력적인 직역(Dynamic Equivalence)

이 유형의 번역은 완전 직역보다는 자유로운 번역으로써 때로는

독자가 그것을 인식하는 한 유효한 기술인 의역(意譯, paraphrase)을 사용한다. 모팻역, 새 영어 성경(NEB), 새 국제역 성경(NIV), 예루살렘 성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역본들은 요한과 바울이 만일 오늘날, 그것도 영어로 집필한다면 사용했을 만한 구조로 전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시도했다. 이러한 방법론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취해질 경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4) 의역(Paraphrase)

의역이란 본문을 개념 단위로(thought by thought) 의미를 전달하는 번역 방법을 말하는데 이 번역은 종종 자료를 “추가”하는데 많은 자유를 누린다. 이것은 어휘 선택에 있어 원문을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항상 “지나치게 장황한 번역”이 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현대어 성경(Living Bible)은 복음적이긴 하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석상의 문제점들을 많이 내포한다.

J.B. 필립스의 의역본(그는 그것을 역본으로 부른다)은 문자적인 관점에서 매우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그는 거기서 베드로와 바울이 “그들의” 어휘로 의미했다고 믿는 것을 “그의” 어휘로 말하고 있다.

위의 네 유형 중 적어도 세 유형의 역본을 소유하는 것이 비교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에는 완전 직역본이 본 주석에서 제시되는 것과 같은 세세한 성경연구를 위해 가장 안전한 역본이라 믿어진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서론

“교회사 단편 중에서 고린도전서와 필적할만한 것은 없다”(웨이제커).

1. 정경 안에서의 독특한 위치

본서는 바울이 사악한 도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직면한 제반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본서는 숭한 문제로 잠식당한 현대 교회에 가장 절실한 책이다. 실로 본서는 성도간의 분열, 지도자를 영웅시함, 성적 부도덕, 법적 투쟁, 결혼 문제, 의심적은 실행들, 영적 은사에 관한 규칙 등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본서가 전부 문제들만 다루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실상 성경 안에서 뿐 아니라, 성경 밖의 제반 문학서적 중에 사랑에 대한 가장 탁월한 에세이라 할 수 있는 내용(13장)을 담고 있는 것도 본서이다. 게다가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활(15장), 주의 만찬(11장), 연보에 관한 괄목할만한 교훈을 담고 있다.

고린도전서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는 상당한 영적 빈곤을 맞이했으리라. 본서는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에 있어 귀중한 발견물이 아닐 수 없다.

2. 기자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가 소위 고린도전서라 부르는 본 서신서의 기자가 바울임을 인정한다.

몇몇 자유주의 계통의 사람들은 본서 중에서 몇 곳에 임의대로 삽입한 구절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이론은 전혀 사본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주관적인 억측에 불과하다. 물론 고린도전서 5장 9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였던 이른바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보낸 바울의 편지(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음)가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본서에 관한 외적 증거는 아주 초기부터 있었는데, 특별히 로마의 클레멘트는 자신의 글에서 본서를 일컬어 ‘복 받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언급하였다. 이같이 바울의 글임을 인정한 다른 초대 교회 저술가들로는 폴리캅, 순교자 저스틴, 아테나고라스,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등이 있다. 또한 본서는 무라토리온 정경 속에 실려 있고, 이단자 말시온의 자칭 정경 목록인 ‘아포스톨리콘’(Apostolicon) 속에 갈라디아서 다음에 배치되어 있다.

물론 본서에 대한 내적 증거는 풍부하다. 바울이 자신의 기록임을 밝힌 부분인 고린도전서 1장 1절, 16장 21절을 제외하고라도 1장 12-17절, 3장 4,6,22절에 나타난 논쟁 부분 또한 바울이 본서의 기자임을 지지하고 있다. 사도행전과 여타 바울 서신서들과의 일치점들은 본서가 위조문서가 아닌 명실공히 사도의 권위를 가진 바울의 서신임을 강력히 증거해준다.

3. 기록 연대

바울 자신이 본서를 에베소에서 집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16:8,9,19 참조). 그가 에베소에서 3년여간 사역했음을 감안할 때 고린도전서는 아마도 그 사역 말기나 주후 55-56년경에 씌어졌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그보다 더 이른 연대를 제시하기도 한다.

4. 배경과 주제

고대 고린도는 아테네 서쪽인 남단에 위치한 항구도시로(현재도 동일함) 바울 당시 무역로로써 전략상 중요한 장소였다. 그리고 그 도성은 곧 국제적인 상업을 위한 크나큰 중심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화물선이 드나들었다.

이 지역의 타락한 종교 때문에 고린도는 곧바로 부도덕의 온상지가 되었고, 그런 까닭에 고린도라는 지명은 부정과 쾌락의 전형(典型)이 되었다. 이렇듯 음탕이라는 말이 이 도성의 평판이었다. 여기 고린도라는 지명에서 ‘타락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진 ‘코린도아조마이’란 용어가 생길 정도였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최초로 방문했던 시기는 제2차 선교 여행 기간이었다(행 18장). 그곳에 머물면서 처음에 그는 유대인 가운데서 장막을 만드는 동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더불어 노동을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이 그의 메시지를 거절하자 그는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받자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되었다.

어느덧 3년 정도가 경과한 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에 그는 고린도 교회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심각한 문제들과 아울러 그리스도인의 실행에 관한 제반 질문들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 결국 그같은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이다.

본서의 주제는 사도 바울이 경고할만한 모든 태도, 오류, 행동들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태도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이다. 모팻(Moffatt)이 간결하게 지적했듯이 “교회는 마땅히 세상에 존재해야 하지만, 세상은 결코 교회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어쨌든 이같은 현상이 현대의 많은 회중 가운데서도 일반적임을 감안해 볼 때, 고린도전서의 적절성은 지금도 계속된다고 하겠다.

개요

1. 서문(1:1-9)
 - 1) 문안 인사(1:1-3)
 - 2) 감사 (1:1-4)

2. 교회 안의 무질서(1:10-6:20)
 - 1) 성도간의 분열(1:10-4:21)
 - 2) 성도 안에 있는 부도덕(5장)
 - 3) 성도간에 있는 송사(6:1-11)
 - 4) 성도들의 도덕적 방종(6:12-30)

3. 교회 문제에 관한 사도의 답변(7-14장)

- 1) 결혼과 독신에 관하여(7장)
- 2) 우상에 바쳐진 음식 섭취에 관하여(8:1-11:1)
- 3) 여성의 너울에 관하여(11:2-16)
- 4) 주의 만찬에 관하여(11:17-34)
- 5) 교회 안의 영적 은사와 그 활용에 관하여(12-14장)

4.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15장)

- 1) 부활의 확실성(15:1-34)
- 2) 반(反)부활론에 대한 숙고(15:35-37)
- 3) 부활의 빛 안에서 결론적인 호소(15:58)

5. 바울의 마지막 권면(16장)

- 1) 연보에 관하여(16:1-4)
- 2) 바울의 개인적인 계획에 관하여(16:5-9)
- 3) 결론적인 권고와 인사(16:10-24)

1. 서문(1:1-9)

1. 문안 인사(1:1-3)

1:1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소명은 인간으로부터 왔거나, 인간 수단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사실 “사도”라는 용어는 문자적으로 ‘파송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신적 기원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증하고자 기적을 베풀 수 있었다. 진정 바울은 게할드 테스팅겐(G. Tersteegen)이 표현했듯이 아래와 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네. 칠혹 같은 흑암의 땅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피로 관통된 손으로 권능의 직분을 내게 베풀어주셨네.”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소스테네”라는 형제가 그와 함께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문안 인사 문구에 그의 이름을 언급하였다. 이 형제가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오는 헬라인들에게 공공연하게 매를 맞은 회당장 소스테네와 동일 인물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분명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바울

의 복음 사역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리라.

1:2 편지는 무엇보다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보내졌다. 지구상 어느 곳도 그곳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은 실로 격려가 된다. 고린도 교회 회중들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라고 명명되었다. 여기서 “거룩해진”이라는 용어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의미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의 신분을 묘사하고 있다. 한편, 그들의 실제적인 상태에 있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매일 매일 성결한 삶을 위해 자신을 구별해야 했다.

혹자는 “성결은 은혜의 명백한 사역으로서 사람이 죄 본성을 근절함으로 가능케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같은 가르침은 이 본문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고린도 지역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지켜야 할 실제적인 성결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었다.

성도로서 그들은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교제권 안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었다. 비록 이 서신의 교훈이 일차적으로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주어졌을지라도, 본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받아들이는 모든 교회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1:3 고린도전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의 주재권을 다루는 서신이다. 사적이거나 모임 안에서의 제반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주님이시고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주권을 인식해야 한다고 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바울의 인사 특징이 3절에 나타나 있다.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즉, ‘은혜’는 모든 축복의 원천이요,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리고 이같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원(起源)을 둔다. 바울은 주 예수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동시에 언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는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등하다는 것을 묘사해 주는 백여 개 이상의 신약의 표현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2. 감사(1:4-9)

1:4 문안 인사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과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 감사를 표현한다(4-9절). 바울의 생애에 있어 주목할 만한 특징은 항상 동료 신자들의 삶 속에서 감사제목을 찾으려는 태도이다. 동료 신자들의 삶이 추천할만하지 못했지만 그는 적어도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감사하곤 하였다. 본문의 내용이 정확히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바울은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

1:5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주어졌던 방법은 성령님의 은사를 충만히 부어 주심이었다. 바울은 “구변(언변)과 모든 지식”의 은사를 특별히 언급했는데, 이는 고린도 성도들이 방

언과 방언 통역, 그리고 범상한 지혜의 은사들을 부여받았음을 암시하는 것 같다. ‘구변’은 내적인 표현과 관계가 있고, 지식은 내적인 이해력을 가리킨다.

1:6 그들이 이같은 은사들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바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확증해 준다. 그리고 그같은 사실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듣고 믿음으로 주님과 그분의 사역을 영접하였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같은 기적적인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진정 구원받았음을 확증해 주셨다.

1:7 고린도 교회는 은사 소유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모임보다 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은 영적 은사를 소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영성을 드러내주는 것은 아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은사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었다. 사실상 은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장점과 무관하게 주시는 선물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도리어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 그 은사를 활용해야만 한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다. 성령의 열매는 자신을 성령님께 전적으로 굴복시킬 때 맺게 된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삶 속에 맺힌 열매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권적으로 수여하신, 그들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선물인 은

사에 대해 감사드릴 수 있었다.

본서 후반에서 사도는 이 교회의 은사 남용에 대해 성도들을 책망할 것이지만, 아직은 긍정적인 면에서 감사를 표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고대하였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성도들을 위해 오시는 주님의 재림(휴거, 고전 4:13-18)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성도들과 함께 한 주님의 지상재림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관한 견해차가 있다. 첫 번째 견해에 의하면, 이 본문은 믿는 성도들만을 위한 주님의 나타나심(휴거)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에 따르면, 이 구절은 전 세계인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지상 재림을 의미한다. 어쨌든 휴거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지상 재림 모두는 성도가 열심을 품고 고대해야 할 사건임에 틀림없다.

1:8 이제 바울은 주님께서 성도들을 “끝까지 견고케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표현한다. 다시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실 것에 초점이 있음을 주목하라. 진정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 자신을 위하여 지키실 것을 확신했던 것이다.

1:9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낙관주의는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영생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로 삼고자 그같이 큰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그들이 그분의 손안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방관하지 않으실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

2. 교회 안의 무질서(1:10-6:20)

1. 성도간의 분열(1:10-4:21)

1:10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되었다(1:10-4:21). 그는 그들이 연합할 것을 사랑으로 권고하고 있다. 사도의 권위로 명령하기보다 그는 형제애를 갖고 간청하고 있다. “온전히 연합하라”는 호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을 가리키는 바, 주 예수의 성품과 그분께서 행하신 사역 모두가 연합의 온전한 기초가 된다. 실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이름을 높였으며, 그것은 결국 모임 안의 분열을 가져왔다. 따라서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하고자 했고, 이 방법만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진정한 연합을 도모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음을 지칭한다. 이 말은 상호간에 충성을 다짐하고, 굳건한 동맹관계구축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같은 연합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때 성취된다. 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본을 좇아 행동할 것인지 실제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1:11 바울은 글로에의 집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소식을 전해준 성도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바울은 그리스도인 행동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보여준다. 즉, 우리는 타인이 정보 제공자로 자신을 기꺼이 밝힌다 해도 부끄럽지 않을 경우에만 다른 성도에 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같은 원리가 교회 가운데 준수된다면, 현재 대부분의 교회 내에서 떠돌고 있는 온갖 낭설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1:12 지역교회 안의 분파, 혹은 분당은 성도들이 인간 지도자를 특별하게 추종함으로써 형성되었다.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의 지도력을 좋아했고, 다른 사람들은 아볼로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주님께 속했다는 의미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노라고 주장했다.

1:13 분당에 대해서 몹시 분개한 바울의 책망이 13절에서 17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교회 안에서의 이같은 분파 형성은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부인하는 행위였다. 인간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룩하신 분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였다. 진정 어떤 사람의 이름을 신봉하는 것은 주 예수님과 자신의 연합관계를 고백, 인식했던 침례를 잊어버리는 행위였다.

1:14 고린도 교회 내에서의 분열 현상은 바울로 하여금 그 모임에서 침례를 준 성도가 몇몇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침례를 베푼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를 언급하고 있다.

1:15-16 바울 사도는 결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다른 영혼들을 자신의 명예나 권위를 위해 끌어들이거나, 심지어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의 엄숙한 단 하나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었다.

확실히 해두고자 바울은 자신이 스테바나의 집 식구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을 덧붙였다. 더 이상 그는 자신이 침례를 베푸는 사람을 생각해 낼 수 없었다.

1:17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명한 일차적인 임무는 침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 이 표현은 일순간도 바울이 침례의 중요성을 불신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상 그는 자신이 침례를 베풀었던 이름을 언급한 바 있다. 오히려 이 말은 그의 주요 사역은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이다. 즉, 그는 아마도 이 침례 베푸는 일을 지역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위임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침례가 구원의 필수조건이라는 견해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침례를 통한 구원이론이 사실이었다면 그는 분명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않았음을 말하면서 이 부분에서 감사했다는 말이 된다. 이같은 생각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17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논리를 전환시키고 있다. 그는 지혜로운 언변을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의 도가 헛되어 전파되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달변과 수사(修辭)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면 이는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의미를 간과하게 만들어 급기야 자신의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간파하였다.

헬라화된 고린도인들이 인간의 지혜를 지나치게 추구했던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계속 이어지는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고린도인들은 그 나라의 철학자들을 국가의 영웅들로 추앙하였다. 이같은 정신이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음이 자명하다.

지식층에게 복음을 좀더 쉽게 수용하도록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학자들 가운데서 이미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복음 메시지를 지적(知的)으로 만들기를 원했다. 이같은 지성주의(知性主義) 숭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분당 형성의 큰 원인을 제공했다. 복음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완전히 그릇된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의 지혜는 천양지차(天壤之差)로서 이 둘 간의 화해 시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행위이다.

이제 바울은 인간을 높이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면서 이같은 인간 숭배 태도는 복음의 본질과 부합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1:18-3:4). 그의 요지는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참 지혜라고 생각하는 관점과는 정반대라는 점이다(1:19-25).

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여기서 반즈(Barnes)의 적절한 언급을 살펴보자.

“십자가의 죽음은 전반적으로 수치와 불명예 등과 관계가 있다. 게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하고 사형 당한 사람만을 통한 구원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기에 적합하였다.”¹⁾

“지혜”(智慧)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다. 문학적으로 이 말은 ‘철학자’(Philosophers)이다. 하지만 복음에는 지식을 자랑할 만큼의 어떤 매력적인 요소가 없다.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중생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들, 즉 멸망당할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만 있다는 엄숙한 경고를 주목하라. 이 두 부류 외에 어떤 중간 계층이 없다. 인간은 자신의 지혜를 사랑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한다.

1:19 복음이 인간의 지혜를 거스를 것이라는 점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였다(사 29:14).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어지리라.”

존슨(S. L. Johnson)은 위클리프 성경주석(Wycliff Bible Commentary)에서 이 이사야서의 말은 “산헤립에게 협박을 당할 때 애굽과의 동맹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비난이다”라고 지적했다.²⁾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방법으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사실인지! 이 세상의 평가로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자주 어리석어 보이는 수단들을 사용하시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 방법들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정확하고 탁월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예컨대, 인간의 지혜는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공로를 제쳐두고 하나님

1) (1:18) Albert Barnes, *Notes on the New Testament, 1 Corinthians*, p. 14.

2) (1:19) S. Lewis Johnson, “First Corinthians,” *The Wycliffe Bible Commentary*, p. 1232

께 이르는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준다.

1:20 바울은 이어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는가? 선비(서기관)가 어디 있는가?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계획하실 때 사람의 자문을 구하셨던가? 인간 스스로의 지혜였다면 이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단언하건대, 그 모든 대답은 ‘아니오’이다. 진정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드셨다.

1:21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은 수세기 동안 인류에게 자의로 자신에 관한 참 지식을 발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셨으나 그 결과는 전적인 실패였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으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이다. 여기서 ‘미련한 것’은 십자가를 가리킨다. 물론 우리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불신자들의 마음에 십자가는 한 마디로 언어도단(言語道斷)처럼 보인다. 고뎃(Godet)은 “21절은 인류 역사 중에 존재해 왔던 철학사 및 철학자 전반을 내포하는 말씀”이라고 주해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1:22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표적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어떤 기적이 나타나기만 하면 믿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었다. 헬라인들은 인간의 논리와 논쟁, 논리적인 전개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1:23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힘쓰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천명하였다. 어떤 사람이 지적한 것처럼 “바울은 표적을 사랑하는 유대인도, 지혜를 사랑하는 헬라인도 아니었다. 다만 그는 구세주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걸림돌이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막강한 군사 지도자를 기대했다. 그러나 복음은 그들에게 치욕스럽게도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를 제시했다. 헬라인에게 있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어리석은 것이었다. 그들은 그토록 허약하게 보이고 실패한 사람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없었다.

1:24 하지만 이상하게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하는 바로 그것들이 주 예수 안에서 신비한 방법으로 충족되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신다.

1:25 사실상 하나님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연약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어리석게 보이는 것들이 정작 인간의 최고 지혜보다도 더 탁월한 것이라고 밝힌다. 또한 인간의 시야로 볼 때 하나님의 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 인간이 창출할 수 있는 그 어떤 힘보다도 월등하다고 밝힌다.

1:26 복음 자체에 관해 언급했던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사람으로 그 초점을 전환한다(26-29절). 그

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적으며, 좋은 가문에 속한 자도 적음을 상기시킨다. 사람들은 종종 본문에는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많지 않다’고 기술되었음을 지적하곤 한다.

실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류층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노라 하는 철학 논리가 아니라 단순한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세상의 지혜와 구미에 맞는 메시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인간 지도자들을 칭찬하고 높이고자 하는가?

만약 사람이 만약 교회를 세운다면 그들은 분명 그 사회에서 탁월한 계층의 사람들을 등록시키고자 힘쓸 것이다. 하지만 26절은 사람들이 최고 가치를 두고 있는 바를 하나님은 관심 밖임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부류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1:27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다.

에릭 사우어(Erich Sauer)는 말했다.

“동일한 큰 승리를 쟁취할 바엔 좀 더 기본적인 재료를 사용할수록 주인에게 영예가 가는 법이요, 동일한 큰 승리를 쟁취할 바엔 덜 무장한 군인들이 백병전으로 승리를 쟁취할 때 그 정복자들의 영예는 더 큰 법이다.”³⁾

하나님은 나팔을 사용하여 여리고의 견고한 성벽을 부서뜨리셨다. 또한 그분은 기드온 군사 삼만 이천 명에서 삼백 명의 감축된

3) (1:27) Erich Sauer, *The Dawn of World Redemption*, p. 91.

인원으로 미디안 군대를 섬멸시키셨다. 그분은 삼갈의 손에 들린 막대를 사용하여 블레셋을 무찌르셨다. 그분은 삼손으로 하여금 나귀 턱뼈로 블레셋 전 군대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로 오천 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하셨다.

1:28 혹자가 ‘하나님의 어리석은 군사 계층’이라고 부른 것에 덧붙여 바울은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이란 표현을 쓴다. 이같이 전혀 형편없는 도구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은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 자신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 이 구절들은 세상의 탁월한 명사들과 유명 인사들의 비위를 맞추고, 대신 하나님의 겸손한 종들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고 있다.

1:29 세인들의 눈에 볼품없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영광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돌려지기를 원하심이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심이 합당하다.

1:30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우리의 신분을 강조해 준다. 진정 우리는 세상의 철학이론으로 감화된 사람이 아니며,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영광을 취할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하나님

은 지혜의 하나님으로서(24절) 구원의 방법을 지혜롭게 선택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소유할 때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우리의 전 구원을 보증 받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다(이신득의).

셋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 우리는 자력(自力)으로 거룩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상의 거룩함을 얻었으며, 그 후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에 진보를 보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이 되신다.” 이 말씀은 의심할 바 없이 주님께서 재림하사 우리를 그분과 함께 본향에 들이실 때 구원받은 성도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구속받을 최후의 사건을 의미한다.

트레일(Trail)은 예리하게 이 진리를 묘사하였다.

“그리스도가 빠진 지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어리석음이고, 그리스도가 빠진 의는 정죄와 죄책감뿐이다. 또한 그리스도가 빠진 성화는 추악한 죄뿐이고, 그리스도가 빠진 구속은 노예와 종살이뿐이다.”⁴⁾

피어슨(A. T. Pierson)은 30절을 우리 주님의 생애와 사역에 결부시키고 있다.

“주님의 언행과 행습 등은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분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장사지냄, 부활 등은 우리의 의를 위해 행하신 일이다. 더 나아가 부활 후 무리들과 함께 한 40일간의 행사, 높은 곳으로의 승천, 성령의 은사를 주심, 하나님의 오른

4) (1:30) Robert Trail, *The works of Robert Trail*, Vol. 2,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reprinted 1975, p. 234.

편에 앉으심 등은 우리의 거룩함(성화)을 위함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재림은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위하여 하실 일이다.”⁵⁾

1:31 하나님은 이 모든 복들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도록 고안하셨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바울의 논조는 합당한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들은 실상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 이 복들 중에 하나도 줄 수 없다.”

2:1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행한 자신의 사역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스스로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추구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고린도 성도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선포하되 탁월한 언변이나 지혜로 설득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자신이 언변이나 철학가로 보여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태도는 사도 바울이 혼의 사역과 영의 사역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혼의 사역이라 함은 인간적인 매력이나 여흥을 부추기거나 인간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자극시키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반면에 영적 사역이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양심에 호소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2 바울이 전파한 말씀의 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분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 요컨대,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실체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5) (1:30) Arthur T. Pierson, *The Ministry of Keswick, First Series*, p. 104.

다.

2:3 바울은 더 나아가 자신의 개인적인 품행은 타인을 감동시킬 만큼 인상적이거나 매력적인 요소가 없음을 강조한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있었을 때 약했고 두려워하며 무서워 떨었다. 복음이라는 보배는 탁월한 능력이 바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기 위해 질그릇 속에 담겨 있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 능력자들을 어떻게 부끄럽게 하시는가에 있어 한 실례에 불과했다.

2:4 바울의 언변(言辯)이나 설교조차도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설득력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언변(말)”은 바울이 제시한 설교 내용을 가리키고, “전도(설교)”는 설교 전달의 태도를 가리킨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본문의 “말”은 바울의 개인적인 증거를, “전도”는 대중 전도를 가리킨다고 이해한다. 사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 사도의 언변은 결코 청중들의 관심과 반응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바울의 메시지를 사용하여 청중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만들었다.

2:5 바울은 청중들이 살아 계신 주님보다도 자신 또는 자신의 성품에 더 관심을 두는 극단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감지하였다. 타인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의식하면서 그는 사람을 이끌어 사람의 지혜보다는 하나님께만 신앙을 두도록 하였다. 진정 복음 말씀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

들은 이같은 바울의 태도를 자신들의 지속적인 사역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2:6 무엇보다도 복음에 나타난 지혜는 그 기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6-7절). 우리는 충분히 장성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한다. 하지만 그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고, 또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안목에 따른 지혜가 아니다. 그들의 지혜는 그것을 소유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다.

2:7 우리는 비밀(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비밀”(신비)은 이전에 계시되지 않은 신약시대의 진리를 가리키는데, 이 비밀은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 성도들에 게 알려진 진리이다.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이다. 복음의 비밀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공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과,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자신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본향에 데려 가시고, 모든 신자가 죽지 않고 홀연히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과 같은 놀라운 진리들을 내포하고 있다.

2:8 “이 세대의 관원”은 하늘에 있는 사악한 영적 존재를 가리키거나 지상에 있는 사악한 영이 통치하는 인간 단체들을 지칭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살해하는 일이 자신의 멸망을 자초하는 행위임을 깨닫지 못하였다. 진실로 하나님의 길을 이해했다라면 그들은 결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으리라.

2:9 계시와 영감, 그리고 조명(照明)의 점진성은 본문 9-16절에 걸쳐 잘 묘사되어 있다. 이 구절들은 이같은 진리들이 어떻게 성령님에 의해 사도들에게 계시되었는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성령님의 영감에 의해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수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사야 64장 4절을 인용한 9절의 내용은 곧 하나님께서 놀라운 진리들을 저장해 두셨다는 예언이다. 그런데 이 진리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시되어질 예정이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배우는 세 가지 신체 기능인 눈, 귀, 마음(지성)이 언급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하늘의 영광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마음에 그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지우고 다른 의미로 그 구절을 해석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신약성경에서 최초로 계시되어진 진리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과학적 연구나 철학적 사색을 통하여 이같은 영적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의 마음은 복음의 내용을 통해 알려진 신비한 진리들을 발견하지 못한다. 인간 이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다.

2:10 9절의 내용이 천상에 속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진술에 의해 입증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같은 진리들이 신약시대의

사도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구약시대에 예언되어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라는 대명사는 신약시대의 기자들을 가리킨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조명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다. 성령님만이 모든 것을 살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도 아시기 때문이다. 즉,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을 차지하시는 하나님인 성령은 지혜와 이해력에 제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을 파악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심오한 것을 알려주신다.

2:11 심지어 인간사(人間事)에 있어서도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자신타에는 모르는 법이다. 어느 누구도 본인이 자신의 생각을 알리기까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진정 사람을 이해하려면 사람의 영을 소유해야만 한다. 하나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뿐이다.

2:12 여기의 “우리”는 물론 성경이 기록된 모든 시대 사람을 말할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신약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당시 사도들과 성령을 모시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심오한 진리들을 그들에게 나누실 수 있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할 수 있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컨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떠나서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고 신약성경에서 우리를 위해 보존하고 있는 제반 신적 진리들을 사도들은 결코 계시 받지 못했을 것이다.

2:13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계시 받은 과정을 묘사한 후에 바울은 이제 그 진리가 우리들에게 교감되는 이른 바 영감(靈感)의 과정을 언급한다. 13절은 성경 내에서는 축자영감(逐字靈感)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구절 중의 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같은 하나님의 진리들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결코 자신의 지혜나 인간의 지혜로 선택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노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오히려 신약성경의 기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쓰라고 일러준 용어들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원문에 기록된 문자가 정확무오(正確無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아울러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경 또한 전적으로 신뢰할만한 말씀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드높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기계적 영감(mechanical dictation)으로 기록되었느냐는 반론이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의 문체가 누가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단어를 기록할 때 영감을 받아 기록했다는 축자영감이론과 신약성경 기자들의 특유한 문체가 있다는 이론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단연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될 낱말들을 기록하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낱말들을 자신의 독특한 문체로 덧입혀지도록 섭리하셨고, 더 나아가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일부가 되도록 역사하셨음이 틀림없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는 표현은 여러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 (1)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영적 진리들을 가르친다는 의미, (2) 영적인 사람에게 영적 진리들이 깨달아진다는 의미,

(3) 성경의 한 부분의 말씀을 다른 말씀과 비교한다는 의미 등. 우리는 첫 번째 해석, 즉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영적 진리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본문에 잘 부합한다고 믿는다. 영감의 과정은 성령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된 용어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것을 내포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의역(意譯)할 수 있다. “영적 진리를 영적인 단어로 제시한다.”

종종 이 구절은 영감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되곤 한다. 바울이 “우리가 쓰거니와”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거니와”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하다’는 동사가 영감 받은 기록을 가리키는 경우는 허다하다(예, 요 12:38,41; 행 28:25; 벧후 1:21).

2:14 복음은 그 계시에 있어 하나님의 계시요, 그 영감에 있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일 뿐 아니라, 그 영접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접되었음을 우리는 배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은 결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다만 성령의 일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스 하브너(Vance Havner)는 화려한 문체로 이렇게 충고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느라 시간낭비를 하지 않는다. 그같은 행위는 마치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격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맹인에게 일몰을 설명하거나 도심 공원에 세워진 어떤 동상 앞에서 핵물리학을 논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자연인은 결코 그같은 영적인 일들을 이

해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려 하느니 차라리 낚시 고리로 태양을 잡으려는 것이 나올 것이다. 요컨대, 사람이 성령에 의해 거듭나서 그분에 의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전적으로 상관이 없는 일이다. 심지어 철학박사 학위도 그의 거듭남이나 영적 일에 대한 이해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 있어서 박사학위는 다만 백치 역할밖에 못된다.”⁶⁾

2:15 반면, 성령님에 의해 조명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의해 바르게 평가받지 못한, 이같은 신비스러운 진리들을 분별할 수 있다. 아마도 그는 목수나 배관공 혹은 단순한 어부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학도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연구하고 음미하고 그 의미를 감상하며 그 문맥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케네스 위스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고난의 흔적을 가진 자이다. 그는 신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오한 진리들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성도들을 훌륭히 가르칠 수 있다.

2:16 사도 바울은 이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누가 주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주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그는 질문을 통해서 그 답변을 주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그분 자신이 기꺼이 알고자 하실 때만 알 수 있는 분이시다. 하지만

6) (2:14) Vanes Havner, 더 이상의 자료는 없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정리해 보면, 먼저 “계시”가 있다(9-12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인간에게 이전에는 무지했던 진리들을 계시하셨다는 의미이다. 이 진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알려지게 되었다.

둘째로, “영감”이 있다(13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사도들과 다른 성경의 기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쓰도록 가르쳐주신 바로 그같은 낱말들을 사용했다.

셋째로, “조명”이 있다(14-16절). 이같은 신적 진리들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계시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영감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법이다.

3:1 바울이 고린도를 최초로 방문했을 때, 그는 성도들을 기본적인 말씀의 젖으로 양육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연약하고, 믿음에 있어 어렸기 때문이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진 가르침은 그들의 영적 상태와 분량에 아주 적절한 내용이었다. 초신자로서 그들은 심오한 영적 진리들을 소화해 낼 수 없었다. 진정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었다.

3:2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젖과 같은 기초적인 진리들을 가르쳤다. 그들은 미성숙 때문에 단단한 음식은 소화시킬 수 없었다. 주님도 동일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

하리라”(요 16:12).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 비극적인 일은 이것이
니, 곧 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좀더 깊이 있는 진리들을 받기에 충
분히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3:3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까지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
었다. 이같은 사실은 그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사실로 증
명된다. 이같은 행동은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지 결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의 성품이 아니다.

3:4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인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분파 형
성의 모습은 그들이 흡사 믿지 않은 세인들과 같은 몰골임을 보여
준다. 이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에서 잘 나타
나 있다.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로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메시지의 본성을 고려해 볼
때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에 대해 보여준바 있다. 이제
그는 방향을 그리스도인 사역의 주제로 돌려 사람들을 중심으로 분
파를 형성함으로 인간 종교 지도자를 고양시키는 어리석음을 신랄
하게 지적한다.

3:5 아볼로와 바울은 종(라틴어에서 온 것으로 ‘사역자’는 ‘종’을 가리킨다)들
로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주 예수 안에 있는 믿
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들은 단순히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
이었지 경쟁 상대가 아니었다. 그리할진대 그 종들을 주인의 위치
로 격상시키려는 행위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아이언사이드
(Ironside)는 이 부분을 재미있게 주해했다. “종들로 인해 나누어진 가

정을 상상해 보라!”

3:6 농사짓는 일을 비유하여 바울은, 종들은 그들의 일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바울 자신은 식물을 심을 수 있었고, 아볼로는 물을 줄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식물을 성장시킬 수 있으시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고, 친척이나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나, 구원의 실제적인 역사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다.

3:7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심는 자나 물주는 자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큼이나 결코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다. 이같은 사역자들은 생명을 열매 맺게 하고 자라게 할 만한 능력을 갖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 사역자들 사이에 시기나 어떤 알력, 경쟁심이 있어야 한단 말인가? 다만 각 종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하고, 그때 주님께서 그 사역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다.

3:8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공히 그들이 같은 목적과 목표를 소유했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이다. 따라서 서로간에 어떤 질투가 없어야 한다. 봉사에 관한 한 그들은 같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다. 다만 어느 날 그들은 각자 수고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다.

3:9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모든 종들은 추수할 하나님의 들판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료 일꾼들이다.

또 다른 말로, 그들은 같은 건물 위에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다. 어드만(Erdman)은 본문을 이렇게 정리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동료 일꾼들이고 서로가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이다.”⁷⁾

3:10 건축 개념을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성취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했다. 이 말은 그가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 지역에 모임을 시작하는데 있어 자신이 감당했던 역할을 묘사하고 있다. “내가 지혜로는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세웠다.” 그는 고린도 지역에 와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증거했다. 그 결과 영혼들이 구원받고 지역교회가 개척되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라고 덧붙인다. 의심할 바 없이 이 말은 바울을 뒤이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미 개척된 교회를 견고히 했던 다른 교사들을 가리킨다. 하지만 사도는 여기에 경각심을 던져준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의심하는 것은 지역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엄숙한 일이라는 의미이다. 어떤 이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교훈과, 교회 분열을 초래하는 교리를 갖고 들어왔다. 바울은 의심 없이 이 글을 쓰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직시하고 있었다.

3:11 이 건축에는 단 하나의 기초만이 요구된다. 일단 이 기초가 세워지면 그 공사가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다. 실상 사도 바울은 고

7) (3:9) Charles R. Erdman, *The First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p. 40.

린도 교회의 기초를 확고히 세웠는데,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사역이다.

3:12 지역교회에서 가르침의 사역은 그 가치가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예컨대, 어떤 가르침은 지속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 마치 금이나 은, 혹은 보석에 비견될 수 있다. 여기서 ‘보석’은 아마도 다이아몬드나 루비 등을 가리키기보다는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용되는 값진 화강암이나 대리석 등을 의미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교회 내에서의 가르침의 사역은 사라져버리는 가치를 갖는 것이거나 아예 전혀 가치 없는 일이 될 수 있다. 이같은 가르침은 나무나 돌이나 불과 같은 것에 비유된다.

이 본문은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의 삶과 연관해서 사용된다. 물론 우리 모두는 매일 매일 건축되어 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사역의 결과들이 장차 주의 날에 다 드러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진지한 성경학도라면 이 본문이 일차적으로 전 성도에게 적용되기보다는 설교자들과 교사를 마음에 둔 것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13 다가올 그 날에 각 사람의 사역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 날’은 주를 위한 모든 봉사가 평가받을 때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리킨다. 평가의 과정은 마치 불의 움직임과 같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던 봉사들은 불에 의해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추한 삶을 보인 일들은 모두가 불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진정 “그 불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다.”

3:14 교회와 연관된 사역은 세 형태로 나누어질 것이다. 14절에서 우리는 첫 번째 형태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유용한 봉사이다. 이 경우 종의 삶과 사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시험을 감당할 것이고, 그 일꾼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3:15 두 번째 형태는 무익한 봉사이다. 이 경우, 좋은 비록 불 가운데 구원은 받을 것이나 큰 손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로저스(E. W. Rogers)는 이렇게 간단히 언급했다. “여기서 ‘해’(손실)는 한때 소유했던 어떤 것을 몰수당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⁸⁾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성도들의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다루는 곳이 아님이 이 구절은 명백히 밝히고 있다. 신자들이 범한 죄의 형벌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주 예수께서 담당하셔서 죄사함은 영 단번에 해결되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주제가 아니다. 다만 주의 자녀들의 봉사가 그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구원과 보상간의 분명한 구분을 못하는 관계로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자신들의 연옥 교리를 뒷받침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이 본문에는 연옥 교리를 전혀 지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불이 사람의 인격을 정화한다는 개념이 본문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불은 사람의 사역이나 봉사의 질을 시험할 뿐이다. 진정 사람은 자신의 사역이 소화되었을지라도 구원을 받는다.

이 구절과 연관된 재미있는 사실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8) (3:15) E. W. Rogers, *Concerning the Future*, p. 77.

같다고 언급된다는 점이다(사 5:24; 렘 23:29).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봉사를 시험하게 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용함을 기억하자. 따라서 만일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이나 사역을 실행해간다면, 우리의 사역은 결단코 그 심판의 날에도 건재하게 될 것이다.

3:16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헬, 지성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모든 개인의 신자가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진리이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개인으로서의 성전을 다루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공적 연합체로서 보고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이같은 거룩한 권위와 부르심을 성도들이 인식하기를 원했다.

3:17 세 번째 형태는 지역교회에서 장차 파산될 봉사이다. 분명 고린도 교회 속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고, 그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보다는 범죄하는 삶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거짓교사들은 공동체인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케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따라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엄숙한 경고를 했다. “만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리라.” 지역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은 “만일 어떤 사람이 지역교회에 들어와 그 교회의 간증을 흐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파괴하시리라”는 의미이다. 이 말씀은 주 예수 안에 있는 참 신자가 아닌 거짓 교사들을 지칭한다. 이같은 방어태세가 얼마나 중대한지는 17절의 끝맺는 말이 잘 보여 준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같은 성전으로서 그러하도록다.”

3:18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나 봉사에 있어 자기 기만의 위험성은 항상 있는 법이다. 아마도 고린도에 교사로 온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를 탁월하게 소유한 자들인 것처럼 행세했다. 자신의 세속적인 지혜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자들은 다음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즉, 하나님의 평가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딧(Godet)은 이 부분에 대해 참고할만한 의역을 했다.

“고린도인이든 다른 지역 사람이든 그 누구라도 자신의 모임에서 인간의 심오한 지혜나 철학 등으로 복음을 증거하려 한다면, 그는 자신이 자랑하는 인간의 지혜가 소멸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인식해야 참 지혜를 소유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그 지혜를 버릴 때, 비로소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⁹⁾

3:19 인간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게다가 인간의 지혜로는 범죄한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 죽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구원계획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의 지혜를 오히려 역이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욥기 5장 13절이 여기서 인용되고 있다. 제반 인간의 지혜가 주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세속적인 지혜가 실로 어리석고 무력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3:20 주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의 온갖 이론들을 간파하시고, 더 나아가 그같은 지혜가 공허하고 쓸모없다는 것을 강조하

9) (3:18) Frederic L. Godet, *Commentary on First Corinthians*, p. 195.

시기 위해 시편 94편 11절이 본문에 인용되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왜 이처럼 세상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즉, 고린도 성도들이 이같은 세상 철학과 지혜를 극찬하고 있고, 그같은 지혜를 소유한 자들을 추앙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3:21 이미 강조했다듯이 사람은 결코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님의 진정한 종들에 관한 한, 우리는 자신들이 그같은 교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우리에게 속한 것임을 오히려 깨달아야 한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3:22 어떤 사람은 22절의 내용을 일컬어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한 재산목록”이라고 했다. 그리스도인 일꾼들은 그가 전도자 ‘바울’이든, 교사 ‘아볼로’이든, 아니면 목자 ‘게바’이든 막론하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들이 우리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그들에게 속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는 심히 어리석은 자들이다. 실상 “세계”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요컨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어느 날 세상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잠시 동안 만물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우리의 소유로 확정되어 있다. 세상의 일들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 세상이 실상 우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법이다. “생명”도 우리에게 속해 있다. 이는 지상에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충만한 의미에서의 생명을 가리킨다. 그리고 “사망”도 우리에게 속해 있다. 죽음은 성도들에게 있어 더 이상 불확실한 어둠의 세계로 영혼을 붙잡아 가는 공포의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죽음은 우리 영혼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사자이다. “지금 일어나 장래 일”, 이 모든 것도 우리의 것이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는 말은 진리이다. 로버트슨(A. T. Robertson)은 한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세계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성도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3:23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고린도인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히 자신들이 주님께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일컬어 ‘그리스도파’라고 명했다. 하지만 바울은 이같은 분별을 논박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과 합당한 예절을 보이면서 담대하게, 교회 안에서의 분파가 나누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한다.

4:1 바울은 자신과 다른 사도들을 적절히 평가하게 하기 위해 성도들은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여기서 청지기는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나 재산들을 관리하는 종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하려고 은밀히 숨겨두었던 비밀들을 가리킨다.

4:2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최대의 자질은 “충성스러운 태도”이다. 흔히 사람들은 약삭빠름과 지혜, 부와 성공을 높이 평가하나 하

나눔은 범사에 예수께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4:3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충성됨은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기 쉽지 않은 자질이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평가받는 것을 사소한 일로 여긴다고 고백한 것이다. 바울은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 충성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덧붙였다. “사실상 나 역시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 역시도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 사람임을 인식하였다.

4:4 바울이 여기서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할 때, 그는 주를 섬기는 일을 언급한 것으로서 주님 앞에 자신이 충성스럽지 못하다는 자책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진정 그는 한 순간이라도 자신이 전혀 범죄하지 않는다거나 그리스도인의 기록의 완전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봉사에 있어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의로움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주님만이 진정한 재판장이시다.

4:5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봉사를 쉽게 칭찬하는 것을 극히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다분히 화려하고 감상적인 것을 추앙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비천해 보이고 보이지 않은 일들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최상의 안전책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최종 판단을 보류하는 일이다. 주님은 능한 판단자로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살피신다. 즉, 그분은 우리가 행한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왜 했는지 그 동기까지 살피실 것이다. 그분은 마음의 계획을 들추어내실 것이기에 자기 과시와 자기 영광을 추구할 목적으로 행한 제반 일들은 결코 그분의 칭찬을 받지 못할 것이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는 말씀은 단순히 모든 신자의 봉사는 그 질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 날에 그에 합당한 영광을 얻으리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본문은 마땅히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이다.

다음에 계속되는 여덟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만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분열의 주요 원인임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4:6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설명하고, 자신이나 아볼로를 실례로 들면서 추종하려는 경향을 설명한다(3:5-4:5). 고린도인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를 중심으로 분당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분파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절을 감안하여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전체 지도자들을 대표로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인간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어리석음이나 분파 형성의 교만죄를 인식하도록 했다. 아무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모든 것을 평가하고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기를 원했다.

4:7 만일 한 그리스도인 교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은사를 소유했다면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같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사실상 우리가 소유한 전부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임이 어느 누구에게나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하게 자랑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재능과 은사는 자신의 똑똑함이나 지혜의 소산이 아니다.

4:8 고린도인들은 자족하고 있었다. 한 마디로 그들은 이미 배가 불러 있었다. 그들은 영적 은사가 충분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가졌다. 그들은 이미 부유해진 것이다. 그들은 사치스러운 생활과 안락을 즐겼다. 그들은 어떤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넉넉한 생활을 하였다. 그들은 사도가 없이도 이미 왕처럼 통치하는 삶을 구가하였다. 따라서 바울은 통치할 시기가 이미 왔기에 자신은 그들을 통치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인생은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장차 통치할 시간을 위한 훈련시간이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사 지상왕국을 설립하실 때 그분과 함께 왕 노릇할 자들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구세주를 향한 세인들의 거절과 비난의 능욕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

하롤드 바커(H. P. Barker)는 이렇게 경고했다.

“만왕의 왕이 자신의 면류관을 얻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면류관을 구하는 것은 분명 주님께 불충된 일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었다. 사도들은 정작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

들은 부유했고, 존경을 받았다. 그들은 주인이신 주님께서 힘겨운 고난을 당한 자리에서 일락의 시간을 갖고자 했다.”¹⁰⁾

한 국가의 주권자가 왕관을 쓴 후에야 비로소 그의 동료들도 나름대로의 직위를 얻을 수 있는 법이다. 하지만 고린도인들은 이같은 순리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이 아직까지도 거절당하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의 영예를 추구하였다.

4:9 고린도인들의 자기만족과는 달리 바울은 사도들의 삶을 언급하고 있다. 바울은 사도들이 사람들과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짐승들의 소굴에 던져진 것으로 묘사한다.

고딧(Godet)은 이렇게 묘사했다.

“교회의 사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점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만족과 자긍심을 갖는 것은 실로 시대착오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4:10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로 취급을 받는 동안, 고린도인들은 지역 사회에서 지혜로운 자들로 대우받고 있었다. 사도들은 약했으나 고린도인들은 강하였다. 사도들이 받은 불명예와는 달리 그들은 탁월한 자들로 위세를 떨쳤다.

4:11 사도들에게는 승리의 시간이나 명예가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실로 그들은 배고픔과 갈증으로 고난을 당했고, 늘 헐벗고, 온갖 핍박을 감내해야 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쫓겨 다니면서 정처 없이 생활해야 했다.

10) (4:8) H. P. Barker, *Coming Twice*, p. 80.

4:12 그들은 자급자족하였다. 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축복해 주었다.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은 맞붙어 싸우지 않고 꺾끗이 인내하였다.

4:13 비방을 당할 때 그들은 비방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도록 권면하였다. 요약하면, 그들은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실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관한 이같은 묘사는 오늘날 성도들의 중심에 큰 교훈이 되어야 한다. 만일 사도 바울이 오늘 살아 있다면, 그는 분명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가 우리 없이 왕 노릇 하였도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4:14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21절을 통하여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쟁 문제에 대한 최후통첩을 보낸다. 바울은 자신이 반어적(反語的)인 표현을 사용하여 말했음을 인식하면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 권면했던 것이라고 그의 의중(意中)을 밝힌다. 자신이 당한 수모와 고통을 속으로 삭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복지를 진실히 구하고 있다.

4:15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주안에서 일만 명의 스승을 두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오직 한 아버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실상 바울 사도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영적 아버지였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칠 수는 있어도 어린 양 되신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한 자신만큼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큰 관심과 사랑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 물론 바울의 의도는 가르침의 사역을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우리가 직시하는 대로, 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영혼을 인도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사랑과 관심이 없이 사역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4:16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다. 즉, 바울 자신이 9절부터 13절에서 묘사했던 삶,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 대한 비이기적인 헌신과 동료 성도들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사랑과 봉사의 삶을 본받으라고 촉구하고 있다.

4:17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이같은 목표를 성취하는 일환으로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깊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에서 가르쳤던 바울의 삶의 방도를 고린도 교회에서 상기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자신이 먼저 교훈 받은 일꾼이었다. 바울은, 디모데는 자신이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같은 삶의 태도야말로 그리스도인 사역에 헌신한 모든 종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다.

4:18 바울이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했을 때,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방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고 쉽게 판단했을 것이다. 진정 이같은 사람들은 디모데의 방문을 바울의 개인적인 방문과 다른 것이라고 교만해져 있었다.

4:19 하지만 바울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멀지 않은 장래에 그들

을 방문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따라서 방문하게 되면 그같이 쉽게 말한 자들의 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을 들추어 낼 것이다.

4:20 결국 진정으로 고려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인 말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행동과 능력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닌 실제성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4:21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갖고 방문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불순종의 태도를 보인다면 그는 매를 갖고 그들에게 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겸비하고 순종하려는 심령을 가진다면 그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갈 것이다.

2. 성도 안에 있는 부도덕(5장)

5장은 교회 지체 중의 하나가 공적 성격을 띤 중죄를 범했을 때 교회에서 실행해야 될 징계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징계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근심 없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5:1 고린도 교회 교제권 안에 있는 사람 하나가 성적 부도덕의 죄를 범했다는 소문이 넓게 퍼져 있었다. 여기에 언급된 죄는 심각한 범죄로서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쉽게 그

실례를 찾아보기 힘든 종류의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 부친의 아내와 더불어 성관계를 맺었다. 분명 그 사람의 모친은 죽었을 것이고, 그의 부친은 재혼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아버지의 아내”란 말은 계모를 일컬을 것이다. 본문에서 그녀의 죄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분명 불신자였을 것이다.

5:2 이같은 범죄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깊게 통회하는 대신에 그들은 오히려 교만하고 오만불손한 태도를 취했다. 아마도 그들은 범행자를 징계하지 않을 정도로 잘 인내했다고 스스로 교만해진 것 같다. 아니면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풍부한 영적 은사에 대한 자만심 때문에 그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은 거룩함보다는 교인 숫자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는지 모른다. 아무튼 그들은 이같은 범죄에 대해 별 충격을 받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본문은 만일 그 성도가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취했다면, 주님께서 범행자에게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렸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어드만(Erdman)은 이렇게 썼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진정한 영광은 교회 안에 탁월한 교사나 은사자의 말에 있지 않고 성도들의 도덕적 순결과 본이 되는 삶의 영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했다.”¹¹⁾

11) (5:2) Erdman, *First Corinthians*, p. 55.

5:3 이 사건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무관심과는 상이하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부재 상태지만 마치 그 곳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 문제를 판단했노라고 밝힌다.

5:4 바울은 범죄한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 교회가 함께 모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비록 그가 몸으로는 그 곳에 가지 못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과 만남으로써 한 영으로 그 곳에 함께 있는 것이다. 주 예수는 교회와 사도들에게 이같은 사건을 징계하도록 권위를 부여하셨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 예수의 능력(권위)으로 조치한다고 언급할 수 있는 것이다.

5:5 사도 바울이 취한 행동은, 이같은 사람은 “사단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었다.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주석가들마다 견해가 다르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말이 지역교회로부터 출교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믿는다. 실상 교회 밖의 영역은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이다(요일 5:19). 그러므로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단에게 내어주는 능력은 특별히 당시 사도들에게만 부여된 능력으로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다시금 “육신은 멸하고”라는 용어에 대한 이견(異見)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육신의 정욕의 힘과 인간적인 습성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신체적인 고통으로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육신은 멸하고”는, 천천히 죽어 가는 징계를 의미하며,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를 취하든, 성도들이 받는 징계는 항상 주님과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요컨대, 출교조차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도록 하는데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징계 속에는 결코 영원한 저주의 개념이 없다. 비록 성도가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에 의해 징계를 받지만, 그리할지라도 만일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였다면 그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은 받게 될 것이다.

5:6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한 태도를 책망하고 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사건이 어찌다 한 번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이겠거니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아야 했다. 여기서 누룩은 도덕적 범죄에 대한 묘사이다. 만일 그들이 교회 내에서의 작은 도덕적 범죄를 용인하게 되면, 곧바로 그것은 점차 자라서 마침내 교회 전체 교제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경건하고 공정한 징계는 교회 고유의 특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5:7 이렇듯 그들은 “묵은 누룩을 떼어 내버리라”고 명령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그 악에 대항하여 결연한 행동을 취해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순수한 의미에서 새롭게 될 수 있었다. 거기서 바울은 그들이 누룩을 넣지 않은 자들이라고 덧붙였다. 진정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한 자들로 보신다. 이제 바울은 그들의 상태가 그들이 소유한 신분

에 걸맞은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신분적으로 볼 때 그들은 누룩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 또한 누룩이 없는 순수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들의 본성이 그들이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걸맞아야 하고, 그들의 행위 또한 그들이 입술로 고백한 신앙을 뒷받침해야 한다.

진실로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셨다. 누룩 없는 떡을 회상하면서 바울의 마음은 유월절 절기로 뒤돌아가고 있다.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전야제에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들은 반죽 그릇을 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했다. 그리고 누룩을 놓았던 곳도 말끔히 닦아냈다. 그리고 그들은 등불을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행여 누룩이 제거되지 않은 곳이 있는가 살폈다. 그렇게 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나님! 제가 집안에 있는 누룩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만일 제가 모르는 곳에 누룩이 남아 있다면 제 힘을 다하여 그것 역시 제거하겠습니다.” 이같은 그림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악으로부터의 분리의 온전한 실례이리라.

유월절에 잡는 희생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한다. 이 구절은 예표적인 교훈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신약의 구절들 중의 하나이다. 이 말은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은 장차 올 일들에 대한 예표이자 그림자라는 것이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주 예수의 오심을 직접적으로 지적해 준다.

5:8 본문의 “명절”은 유월절이나 주의 만찬을 가리키지 않고 오

히려 성도의 전 삶을 지칭하는 말이다. 성도의 전 생애는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 인생의 축제를 죄의 누룩이나 사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망쳐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면서 우리는 결코 타인을 향해 악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같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사도 바울은 본문을 문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예컨대, 그는 여기서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누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상징으로서 그것이 다른 것과 접촉했을 때의 전염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는 삶을 살피어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경건한 떡으로 살아야 한다.

5:9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일전에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편지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편지가 분실되었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사실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이 영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서신들만 성경에 포함시킨 것이다.

5:10 사도 바울은 이제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경고의 의미를 설명한다. 그 말은 불경건한 자들과 전혀 접촉하지 말고 격리되어 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실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불신자들을 상대로 사업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들과 접촉함으로써 조상부터 전수되어온 인간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다. 만일 죄인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려면 이 세상을 떠나 지구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

는 자나 우상 숭배를 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 부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이나 재정 관계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세금이나 재산을 사기 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회의 출교 행위에 순종해야 한다. “토색하는 자들”은 공갈, 협박과 같은 폭력을 동원하여 돈을 모으는 약탈자를 가리킨다. “우상 숭배자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기보다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며 그와 연관해서 언제나 수반되는 끔찍한 성적 부도덕 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5:11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확실히 경고하고자 했던 점도 소위 주님을 믿는 형제라는 사람이 이같은 죄악들을 범한 경우이다. 우리는 바울의 권고를 다음과 같이 의역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니 성적 범죄자나 탐욕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공갈 협박자, 술주정뱅이, 사기 치는 자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런 사람과는 애찬을 함께 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일상생활 중에 불신자와 접촉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려면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은 위험하지 않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행한 범죄와 관련해서 어떤 교회적인 징계를 내릴 수 없다.

10절에 언급된 범행자들의 명단에 바울은 11절에 후욕하는 자와 술주정뱅이를 더 추가하였다. “후욕하는 자”는 타인을 향해 분노의 욕설을 퍼붓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주위를 요

하는 부분이 있다. 만일 어떤 형제가 한 번 자제력을 상실하여 분노 중에 합당치 못한 말을 내뱉었다고 교회에서 출교해야 하는가? 우리가 분별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같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다. 다른 말로 하면, “후욕하는 자”는 누가 보든지 타인을 향해 욕설이나 폭언을 일삼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을 지칭한다. 어떤 경우든 본문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잘 통제해야 할 필요를 경계시킨다. 아이언사이드가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단지 부주의했기에 말에 실수가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지적한 것처럼 권총의 방아쇠를 타인을 향해 당긴 것도 단지 부주의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술 취하는 자”는 알코올 중독자를 일컫는 말이다.

사도 바울은 이같은 범죄와 연루된 그리스도인과는 우리가 진정 함께 식사조차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 본문이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그런 류의 사람들과 주의 만찬을 함께 대할 수 없으며, 게다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가 없다. 물론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가령, 그리스도인 아내는 교회에서 출교당한 남편일지라도 그와 함께 식탁을 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규칙은 본문에 나열된 범행을 자행한 사람들은 자신의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회개하도록 그리스도인 교제권에서 추방당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주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한다면, 주님과 함께 식사했던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지도 않았거니와 주님 자신도 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인식하지도 않으셨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할 수 있다. 이 구절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는 사

악한 삶을 살고 있는 신자들과는 결코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5:12 본문에 나온 두 번에 걸친 바울의 질문의 요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을 심판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악한 사람들은 어느 날 주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을 판단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요컨대, 합당한 징계의 실행은 각 지역교회에 부과된 신성한 의무이다.

다시금 “주님께서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다면 우리는 그 말에서 주님은 판단 동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우리가 인간의 동기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그같은 종류의 판단을 할 만한 능력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러나는 죄를 판단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그같이 범죄한 형제가 다시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도록 징계해야 한다고 동일한 어조로 명하고 있다.

5:13 바울은 교회 밖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한 대로 사악한 자들을 모임에서 추방하는 징계를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같은 형제가 더 이상 교제권에 머무를 수 없다는 확실한 공적 광고가 요청된다. 그같은 공적인 광고는 겸비한 심령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을 가지고 되어져야 하고, 출교당한 성도의 영적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가 뒤따라야 한다.

3. 성도간에 있는 송사(6:1-11)

6장 1-11절은 성도간에 있는 송사 문제를 다루고 있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항하여 세상 법정에 고소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왔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되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2,3,9,15,16,19절)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을 주목하라.

6:1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몇몇이 성도들을 세상의 구원받지 않은 법관 앞에 세우기 위해 고소했다고 하는 다소 충격적인 표현으로 말문을 연다. 바울은 참된 의를 알고 있는 성도가 불의한 자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 된 사람들이 참된 의를 주지 못하는 자들에게 의를 구한다고 생각해 보라!

6:2 게다가 장차 어느 날 온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 사이에 발생한 문제조차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중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심판할 권위를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지금 성도들 사이에 있는 사소한 불화조차 해결할 수 없단 말인가?

6:3 바울은 더 나아가 고린도인들은 장차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것임을 상기시킨다. 사도 바울이, 장차 성도들이 누릴 특권을 다루면서 갑자기 그들이 천사조차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삽입하는 기법은 가히 놀랄만하다. 예고나 사전 작업이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천사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언급한다. 우리는 유다서 6절이나 베드로후서 2장 4,9절을 통하여 천사들이 장차 심판받게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장차 심판관이 되실 것임을 안다(요 5:22). 요컨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장차 그분과 함께 천사를 심판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장차 천사를 심판할 자격자임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상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6:4 “너희가 세상 사건에 관하여 판단할 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을 세우는가?” 결단코 구원받지 못한 재판관들은 지역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 물론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일의 중요성 때문에 존경을 받는 자들이다. 하지만 교회 문제에 관한 한 그들은 판단할 영적 자격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질문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제 삼자가 개입하여 공평한 판단을 내려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희들은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 교회의 영적 분별과 검증을 받지 못한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을 셈인가?”

6:5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수치를 느끼게 하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혜 있는 자들이 많고, 성령의 은사가 풍부하다고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가 막상 성도간의 시비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6:6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을 송사하기 위해 불신자들 앞에 끌고 가서 고소하는 모습을 볼 때 교회 내에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실로 통탄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6:7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란 표현은 그들이 이미 형제간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상호간의 문제를 법적으로 다루려는 생각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성도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시점에서 바울의 견해를 반박했을 수도 있다. “바울 사도여, 당신은 사건의 전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사실 모모 형제는 사업하면서 저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바울의 답변은 이러했다. “차라리 너희가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같은 태도야말로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이다. 모름지기 잘못을 범하는 것보다 부당하게 대우받는 편이 훨씬 나은 법이다.

6:8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이같은 겸비한 태도를 갖지 않았다. 기꺼이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고 속임을 당하는 대신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관계에 있는 성도를 향해 실제적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

6:9 불의를 행하는 일이 삶의 특징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린도 성도들이 잊었던 말인가? 만일 그들이 그 사실을 잊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들의 명단을 상기시킬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의 구원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도리어 이같은 범죄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의미이다.¹²⁾

이 목록에서 “음란(음행)하는 자”와 “간음(간통)하는 자”는 구별되어 쓰이고 있다. 여기서 “음행”은 미혼자들간의 비합법적인 관계를 가리키고, “간음”은 기혼자들간의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지칭한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5장에서도 2회에 걸쳐 언급된 바 있다. “남색하는 자”(sodomites)는 동성끼리의 성행위를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반면, “탐색하는 자”(homosexuals)는 변태적인 방법으로 동성연애 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6:10 여기에 “도둑질을 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후욕)하는 자들이나 토색(착취)하는 자들”이 더 추가되었다. “도둑질하는 자들”은 남의 것을 취하는 자들이다. 탐욕을 부리는 죄가 가장 사악한 죄악의 목록에 있음을 주목해 보라. 사람들은 흔히 탐욕을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신랄

12) (6:9)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그 나라를 상속받은 것과의 차이를 둔다. 어떤 신자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중대한 죄를 극복하지 못한 채 구원 받을 수도 있다고 그들은 가르친다. 요컨대,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곳에서 상속(보상)을 거의 못 받거나 아니면 전혀 못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절은 불의한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하게 단죄하신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어코 무엇인가를 차지하려는 지나친 소유욕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술 취하는 자”는 말 그대로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을 의미한다. “후욕하는 자”는 상대가 없는 자리에서 그를 비방하거나 헐뜯는 자를 가리킨다. “토색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필수품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하는 자를 가리킨다.

6:11 바울은 이같은 죄악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바울은 그같은 죄악들은 그들이 과거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악행들이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다. 진정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같은 죄악이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갖 부정한 것에서 계속해서 씻음 받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성별되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즉, 그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대속의 사역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포를 받은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려는 말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극히 간단하다. 헤아릴 수 없이 큰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 성도들의 도덕적 방종(6:12-20)

6:12 6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옳고 그른 것 사이의 구별을 위한 시금석을 제시한다.

제1원리는 모든 것이 합법적일 수 있지만 다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다. 바울이 여기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고 말할 때, 그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어떤 죄악들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 합법이 될 수 없다. 그는 여기서 도덕적인 내용과는 무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다. 가령, 그리스도인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문제는 바울 당시 실제적인 갈등거리였다. 사실상, 음식 섭취에 관한 문제는 도덕과는 거리가 멀다.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하나님께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된다. 바울은 어떤 것은 합법적이긴 해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간략히 말하고 있다. 사실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 하지만 그 일을 행하는 나를 어떤 지체가 보았다면, 그는 나의 행위로 인해 실족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그것은 내게 합당한 것이 못된다.

제2원리는 어떤 일이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것의 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힘주어 말한다. “나는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술이나 담배, 마약 등의 주제에 관한 매우 직접적인 선언이리라. 이같은 것뿐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중독되게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6:13 제3원리는 어떤 것은 성도들에게 완전히 합법적이거나 그 가치가 일시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말한다.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 둘 다 폐하시리라.” 이 말은 인간의 위장은 음식을 받아서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각종 놀라운 양식들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인간의 위장은 그 음식들을 받게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음식을 위하여 생존해서는 안 된다. 음식들은 단지 일시적인 가치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은 성도의 삶에 있어 꼭 필요한 장소에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내 식욕을 채우는 것인 양 살지 말라.

비록 우리 몸이 음식을 받아 소화시킬 수 있도록 신묘막측하게 계획되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즉, 몸은 성적 부도덕을 위하여 존재한지 않고 주를 위해서 존재하며, 주님은 몸을 위하신다. 인간을 창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이 결코 폭력이나 불결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를 의도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주님은 인간의 몸이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사역에 봉사하기 위해 계획하셨다.

본문에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놀라운 교훈이 내포되어 있다. 인간의 몸이 주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내용뿐 아니라,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위하신다는 놀라운 개념이 있다. 이 말은 주님은 우리 신체와 복지, 그리고 적절한 신체 활동에 관심이 있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그분 자신에게 거룩하고 받으실만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롬 12:1). 어드만(Erdman)이 말했듯이 “주님이 없이 몸은 그 참된 가치를 가질 수 없고, 또한 그 불멸의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¹³⁾

6:14 주님께서 몸을 위하신다는 사실이 본문에 좀 더 보충 설명되어 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 주님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살리실 것이다. 우리 몸에 대한 주님의

13) (6:13) Erdman, *First Corinthians*, p. 63.

관심은 죽음의 시기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모든 신자들의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상태로 변형시키실 것이다. 우리는 영원 세계에서 몸이 없는 영혼의 상태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영과 혼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과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이고 그 상태에서 영원히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6:15 매일의 삶을 경건하게 살고, 우리 몸의 순결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상기시킨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그러할진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것이 과연 합당한 말인가? 사도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확인하는 것에서 보듯이 질문 자체가 곧 답변이 되고 있다.

6:16 성행위를 통해서 두 몸은 한 몸이 된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인류 창조시에 이미 선포된 바 있다. “둘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창 2:24). 이 말이 사실일진대 만일 신자가 창녀와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이다. 두 몸은 이제 한 몸이 된 것이다.

6:17 신체적인 행위에서 두 몸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는 주님과 연합되어 한 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연합이야말로 두 인격의 가장 친밀하고 완벽한 연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바울의 논지는 간단하다. 즉,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은 그같은 영적 결합을 파괴하는 어떤 중

류의 연합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피어슨(A. T. Pierson)은 이렇게 언급했다.

“양떼는 목자를 떠나 방황할 수 있고, 가지도 포도나무에서 절단(切斷)될 수 있으며, 지체도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아이들 역시 부모에게서 떨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아내도 남편에게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나 두 영이 하나로 연합되었다면 누가 그 둘 사이를 떼어낼 수 있겠는가? 결코 어떤 외적 연단이나 연합의 모습, 심지어 결혼 제도조차도 두 인격이 하나가 되는 이 완벽한 연합을 확실하게 표현해 줄 수는 없다.”¹⁴⁾

6:18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음행을 피하라”고 경고한다. 그들은 음행과 더불어 장난을 친다거나, 누가 이기는가 하고 싸우거나,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연구해 보거나, 심지어 그것에 대해 이야기조차도 하지 말아야 했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즉 음행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교훈에 관한 아름다운 성경상의 실례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취한 행동이다(창 39장). 때로는 도망하는 것이 최선의 안전책이다.

이제 바울은 덧붙인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대부분의 범죄는 사람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음행은 유독 사람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음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몸에서 범죄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

본문이 다소 난해한 이유는, “사람이 범한 모든 죄가 몸 밖에 있

14) (6:17) A. T. Pierson, *Knowing the Scriptures*, p. 147.

다”는 표현 때문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비교의 측면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우리는 믿는다. 예를 들면, 대식(大食)이나 알코올 중독은 실제로 몸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그것들은 영적, 도덕적인 면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지만 혼외(婚外)정사는 영적, 정신적, 도덕적인 면에서 상호간에 치명적인 상처와 고통을 초래한다.

6:19 다시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하고 존엄한 것임을 상기시킨다.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고린도 성도들은 잊었던 말인가? 모든 성도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엄숙한 진리이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몸을 악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기에 우리 자신도 더 이상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을 제멋대로 사용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 몸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이다.

6:20 우리는 창조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구속에 의해서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본문은 특별히 후자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유권 주장은 갈보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값으로 산 바 되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지불하신 가격표를 본다. 그분은 자신의 보혈을 기꺼이 흘릴 정도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보셨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은 얼마나 큰사

량을 보이셨는가?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나는 더 이상 내 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을 사용한다면 이는 주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다만 주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다.

베이츠(Bates)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머리여, 이마에 가시관을 쓰신 주님을 생각하라! 손이여, 십자가에 그 손이 못 박히신 주님을 위해 힘써 수고하라! 발이여, 그 발이 못으로 관통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내 온 몸이여, 그 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의 성전이 되어라.”¹⁵⁾

“주님은 우리의 물질계와 비물질계 모두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¹⁶⁾

15) (6:20) Bates, 더 이상의 자료는 없다.

16) (6:20) 가장 오래된 헬라이어 비평 사본에서는 ‘영’을 생략하고 있다.

3. 교회 문제에 관한 사도의 답변(7-14장)

1. 결혼과 독신에 관하여(7장)

7:1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이 직접 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여러 남용(濫用)들에 관하여 다루어 왔다. 이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질문에 답하려고 한다. 첫 번째 질문은 결혼과 독신 생활에 관한 내용이었다. 바울은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광범위한 원리를 제시한다. “가까이 한다”는 말은 육체적인 성관계를 의미한다. 바울은 미혼상태가 기혼상태보다 더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어떠한 방해 없이 주님을 섬길 목적으로 자신을 드리고 싶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7:2 하지만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데는 술한 성적 유혹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그는 첫 번 언급, 즉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내용에 덧붙여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돌지니라.” 여기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는 말은 일부일처를 지칭한다.

7:3 결혼생활에서 남편과 아내는 상호 신뢰 가운데 부부생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라는 문맥은 “그로 하여금 남편으로서 그녀에 대한 의무(성생활의 의무를 포함)를 다하게 하라”는 뜻이다. 물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해야 한다. 부부관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상한 가르침을 주목해 보라. 거기에는 조잡하거나 천박한 요소가 없다. 이 주제에 대한 세상의 행습과 얼마나 판이한지 생각해 보라!

7:4 결혼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을 의존하게 되어 있고 동일하게 남편 또한 아내에 대해 그러하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위계 질서를 순종하려면 남편과 아내 모두는 상호 의존성을 인식해야 한다.

7:5 크리스텐슨(Christenson)은 이렇게 언급했다.

“본문은 만일 배우자 중 하나가 상대방과 더불어 성관계를 갖고자 하면 그 배우자는 그 욕구에 기꺼이 응해야 한다고 담담하게 가르친다. 성 문제에 대한 이같은 실제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부부들은 결혼생활 중에 놀랄만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실상 이같은 부부의 관계가 실제에 근거를 두고 있고, 어떤 비실제적이거나 공상적인 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¹⁷⁾

아마도 고린도인들 중에 몇몇이 처음에 구원받게 되자, 마치 부부생활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과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인들의 이같은 그릇된 사상을 정정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바울은 그

17) (7:5) Larry Christenson, *The Christian Family*, p. 24.

리스도인 부부는 분방(分房)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즉, 부부는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다만 두 가지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첫째로 성적 욕구를 제한하는 금욕은 상호간에 충분한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후에 그들은 기도와 금식에 전념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같은 금욕 기간은 일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곧바로 다시 합해야 하는데, 절제를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7:6 본문의 내용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상력과 반론을 제기해 왔다. 바울은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이 아니라”고 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이해하기를, 사도 바울이 향후 기술할 내용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밝힌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같은 해석은 지지를 얻지 못한다. 고린도 전서 14장 3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은 주의 명령에 기인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 아래서는 성생활에 있어 금욕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으며, 이 때 이 금욕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권고라는 의미가 이 구절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기도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같은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본문은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다루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은 결혼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으나, 결혼은 꼭 해야 하는 명령은 아니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7:7 이제 바울은 미혼들에게 관점을 돌려 충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도 바울은 독신 상태가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 안에서만 독신생활을 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독신’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실상 사도 바울이 항상 독신자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이 편지를 쓸 때 독신으로 살고 있었는지, 그의 신상(身上)에 관한 견해들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같은 문제를 구태여 다룰 필요는 없다. 바울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대부분이 결혼을 하도록 분명히 부르신 데 반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독신생활을 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혼을 할 것이냐, 독신으로 남을 것이냐의 문제는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써 어떤 일반적인 규칙을 모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노릇이다.

7:8 그러므로 그는 미혼자들과 과부들에게 자신처럼 그냥 사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7:9 하지만 만일 그들이 미혼자로서 절제할 능력이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타는 정욕은 범죄할 위험을 크게 한다.

7:10 다음 두 구절은 배우자 모두가 신앙을 가진 부부에게 주어진 권고이다. 여기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는 말씀을 살펴보자.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실상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이미 가르치셨던 내용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이 주제에 관해서 이미 분명한 명령을 주신 바 있다. 예를 들면, 주님은 배우자의 불성실함으로 인한 음행 사건 외에는 이혼하는 것을 금지하셨다(마 5:32, 19:9). 여기서 바울의 주요 가르침은 한 마디로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7:11 하지만 그는 아내가 그 남편을 떠나는 것이 꼭 필요한 극단적인 경우들이 있음도 인식하고 있다. 이 경우에 아내는 재혼하지 말고 혼자 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해야만 한다. 일정 기간 동안의 별거(別居)는 결혼관계를 깨뜨리기보다 둘 사이의 차이점을 치료하도록 주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 될 수 있고, 각자가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상호간의 관계 회복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요컨대, 남편 또한 아내와 이혼해서는 안 된다.

7:12 12절부터 24절까지는 부부 중 한 쪽만 주님을 믿은 사람들의 결혼생활을 다루고 있다. 바울은 초두에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다. 다시금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신의 권면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다만 그의 요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같은 가르침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뿐이다. 실상 사복음서에는 이와 유사한 교훈이 없다. 주님은 부부 중에 한 편만이 주님을 믿는 가정의 경우를 들어 가르치신 적이 없으시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는 이 문제에 대해 바울 사도를 통하여 교훈하신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전하는 말씀은 영감 받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

여기서 “남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구절은 결코 불신자와의 결혼을 지지해 주지 않는다. 이는 결혼생활 중에 한 쪽의 배우자가 구원받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 같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이 말씀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유대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산모와 아이 모두가 죽음을 면치 못했다. 이같은 실례는 에스라 10장 2-3절과 느헤미야 13장 23-25절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다. “구원받은 아내로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믿지 않는 아내를 둔 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제 그가 믿지 않는 아내를 떠나야 하는가?” 물론 그 답변은 부정적이다. 구약의 계명은 더 이상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어떤 성도가 불신자 아내를 두고 있다면, 그는 그녀를 떠나서는 안 된다. 물론 이 말은 불신자와의 결혼이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에 구원받게 되었다면 비록 아내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7:13 이와 같이 불신 남편을 가진 믿는 아내가 만일 그 남편과 계속 살고자 한다면 이혼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어찌면 아내된 자매의 온유함과 경건한 삶의 간증이 그 불신 남편을 구원할지도 모른다.

7:14 사실상 불신 가정에 성도가 있다는 사실이 식구들에게 거룩케 하는 영향력을 제공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분리시킨다”는 의미이다. 여기 본문은 불신 남편이 아내로 인해 구원받거나 아내로 인해 거룩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외적인 특권을 소유하는데 있어 구별되었다는 의미이다. 실상 그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아내를 소유한 행운을 갖고 있다. 또한 믿는 아내의 삶과 간증이 집안에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께 대한 좋은 인상과 영향을 끼친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가 믿지 않는 아내를 둔 때보다 신앙을 가진 경건한 아내를 두고 있을 때 구원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바인(Vine)은 이렇게 썼다. “그 남편은 실제로 영적 영향력을 받아서 회개할 가능성이 많다.”¹⁸⁾ 물론 불신 아내가 믿는 남편을 둔 경우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이같은 경우 믿지 않는 아내도 거룩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덧붙여 말한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구약시대 어린이들은 이방인 아내와 더불어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상고한 바 있다. 이제 바울은 은혜의 세대에서 한편만이 믿는 성도일 경우 이같은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거룩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거룩(holy)이라는 단어는 본질 초반의 ‘거룩하다’(sanctified)는 말과 동일한 어근(語根)에서 유래했다. 이 말은 아이들이 스스로 성결케 되었다거나 혹은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깨끗하고 성결된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이 말은 그들이 특권을 누리며 위치를 소유했다는 뜻이다. 즉, 그들은 부모 중에서 최소한 한

18) (7:14) W. E. Vine, *First Corinthians*, p. 97.

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들을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다. 아이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진정 그들은 부모 중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한 분을 둔 가정에서 사는 특권을 갖고 있다. 이같은 경우에 그들은 거룩케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 구절은 또한 한편이 불신자인 가정이 자녀를 가지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내포한다. 하나님은 그같은 결혼 생활을 이해하시며, 그 아이는 결코 사생아가 아니다.

7:15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할 때 그리스도인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변은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는 표현은 단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불신자가 명백히 헤어지기를 원하면 성도인 배우자는 자연스럽게 이혼할 수 있다고 받아들인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15절을 삽입구로 보고, 16절은 14절에 이어진 내용이라고 본다.

(1) 14절은, 이상적인 상황은 믿는 배우자가 불신자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요, 그로 인하여 가정에 구원의 기회를 다방면에서 줄 수 있는 이른바 거룩케 할 수 있다고 언급해 준다.

(2) 16절은, 동거하므로 성도가 불신 배우자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3) 15절은 삽입구로서 불신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원하면 이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재혼의 가능성도 내포한다고 이해된다.

최후의 구원의 소망은 불신 배우자가 집을 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연합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성경 학도들은 15절이 별개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이혼이나 재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있어 본문은 불신자 배우자가 떠나가면, 그는 화평 가운데 떠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믿는 아내도 불신 남편이 헤어지기를 원할 때 더 이상 동거할 의무가 없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감정적인 폭발을 드러낼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헤어지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 두 해석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바른 해석인가? 한 마디로 어느 해석이 옳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한편이 간음죄를 범한 경우에 이혼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 무죄한 배우자는 재혼할 자유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관한 한, 우리는 불신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떠났다고 해서 이혼하거나 재혼을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처럼 믿는 배우자를 떠난 사람들은 거의가 타인과 새 관계를 맺기 때문에 최초의 결혼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

데이비스(J. M. Davies)는 이렇게 서술했다.

“믿는 성도를 떠난 불신 배우자는 대개 다른 사람과 곧바로 재혼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처음의 결혼관계는 파기되기 마련이다. 버림을 당한 성도 편에서 결혼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대부분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짐이다.”¹⁹⁾

7:16 본문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어떤 면에서 15절에 대한 해석에 달려있다. 15절의 말씀이 이혼 승인(承認)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16절 본문을 그 증거 구절로 제시할 것이다. 그들은

19) (7:15) J. M. Davies, 더 이상의 자료는 없다.

성도들이 시한부적인 별거는 할 수 있지만 이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혼은 재결합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의 구원의 가능성을 빼앗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믿는 배우자가 불신자 배우자에게서 버림을 받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본문 16절은 14절과 연결되는 구절이고 15절을 단지 삽입구로 이해한다.

7:17 초신자들은 종종 과거의 생활에 대한 전적인 관계 단절의 요청을 지나치게 받아들이기 쉽다. 예컨대, 그들은 죄가 되지 않는 결혼생활까지도 정리하려고 한다. 새로 발견한 구원의 기쁨 속에서 과거에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팽개쳐버릴 위험이 있다. (물론 주님 앞에서 범죄한 옛 생활과 습관은 두말할 것 없이 버려야 한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는 법이다. 오히려 변화를 가져오되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본문 17-2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현존하는 제반 관계들을 완력(腕力)으로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의심 없이 바울은 일차적으로 결혼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부차적으로 그 원리는 인종적, 사회적 관계 전반에 적용된다.

모든 성도들은 각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만일 주님이 결혼생활을 하도록 부르셨다면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 덧붙여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당시 불신자 아내와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그는 그 결혼관계를 끊지 말고 아내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은 단지 그들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공히 적용되는 교훈이다.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자신이 이 강령의 주체자임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한 교훈이 동일하게 모든 교회에 주어진 것임을 단순히 인식시키기 위해 그같이 썼다.”²⁰⁾

7:18 바울은 18절과 19절에서 혈통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 유대인이었다면, 그는 격렬한 태도를 취해서 과거에 남긴 육체적인 할례의 표시를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같은 외적인 차이는 진정 고려할만한 것이 못된다.

7:19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태도에 관심을 두고 계시지,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말이다. 요컨대, 생명의 관계는 기독교 입문시 격렬한 포기로 얻어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 의해 신자는 모든 배경과 환경을 초월한 위치에 올려지게 되는 법이다”라고 켈리(Kelly)는 말했다.²¹⁾

7:20 일반적인 법칙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은 범죄하는 삶 가운데 계속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을 때 사악한 일들과 관계되어 있다면 그는 반드시 그같은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같은 성격이 아니다. 이

20) (7:17) W. E. Vine, *The Divine Plan of Missions*, p. 63.

21) (7:19) William Killy, *Notes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p. 123.

같은 사실은 종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음 구절에 의해 입증된다.

7:21 종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주인에게 대항하여 자유를 요구해야 하는가? 기독교는 우리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주장하던가? 바울이 그 답변을 하고 있다. “네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종의 신분을 가졌는가? 그럴지라도 그 신분 문제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종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기독교의 최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네가 자유스럽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법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만일 네가 자유할 수 있게 된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講究)해서 그 기회를 활용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는 종이 자유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그에게 그 자유를 얻도록 힘쓰지 말라고 권고한 내용으로 이해한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속박을 주 예수님을 증거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해석을 선호하는데, 아마도 그 해석이 올바른 것 같다. 하지만 이같은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두 번째 해석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본과 좀 더 일치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7:22 “이는 종도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출생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종의 신분이었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종의 신분으로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자신의 종의 신

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그가 주님의 자유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 죄와 사단의 속박에서 자유케 된 자이다. 한편, 어떤 사람이 자유인으로서 구원받았다면, 그는 그때로부터 주님의 수족(手足)인 종이 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7:23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값을 치르고 산 바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사신 주님의 소유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종이 되어야 하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

7:24 그러므로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그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란 말이 전체 진리를 푸는 열쇠이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모든 종들은 진정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고귀함과 성별함을 제공한다.”

7:25 25절부터 28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독신 남녀에게 권면한다. “처녀”라는 말은 총각과 처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본장의 내용이 영감 받은 글이 아니라고 25절을 근거로 주장한다. 그들은 심지어 독신자로서 바울은 여성 혐오자였으며, 그같은 바울의 편견(偏見)이 이곳에 나타나 있다고 극단적인 태도를 취한다. 물론 이같은 태도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진리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행위이다. 처녀에 대해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없다고 바울이 말했다고 할 때, 그 말은 곧 주님의 지상사역 중에는 이 주제에 관해 명확한 교훈을 주지 않으셨다는 말이다. 따라서 바울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자신의 의견을 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의견(혹은 분별)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7:26 일반적으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임박한 환난 때문이다. 여기서 ‘임박한 환난’은 이 지상생애 동안 직면하는 일상적인 고난을 가리킨다. 아마도 바울이 본 서신을 쓸 당시에 특별한 환난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환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7:27 바울의 충고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놓이기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서 자유하였다면 그는 아내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아내에게 놓였다”는 표현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를 가리키지 않는다. 다만 이것은 그가 결혼의 구속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의미하며, 결코 결혼해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할 수 있다.

7:28 바울의 권면에는 결혼하는 것이 죄임을 지적해주는 말이 전혀 없다. 결국 결혼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제도였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창 2:18)라고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혼인은 모든 면에서 귀한 것이니 침상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히 13:4).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마지막 시대 배교(背敎)의 징조로서 결혼을 금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임을 언급한다(딤후전 4:1-3). 그런 까닭에 바울은 이렇게 기술한다. “설령 네가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며 설령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니라.” 기독교에 입문한 초신자들은 결혼

관계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바울은 결혼한 여인들은 육신에 고통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것은 아마도 산고(産苦)의 고통과 생활고 등을 의미할 것이다. 바울이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라고 말할 때, 그는 (1) 결혼생활과 동반되는, 특히 가정생활의 고통 측면에서 그들을 아낀다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2) 모든 고통의 내용들을 열거함으로써 독자들을 아낀다는 내용이리라.

7:29 바울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같은 결혼생활조차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를 원했다. 진정 주님의 오심이 가깝기에 남편과 아내들은 각기 배우자에게 충성을 다하면서도 모든 삶에 있어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셔야 한다.

그것에 관해 아이언사이드(Ironside)는 이렇게 표현했다.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진실로 날아가고 있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개인적인 안락함도 주의 뜻을 성취하는데 있어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²²⁾

바인(W. E. Vine)도 이렇게 언급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기혼 남자가 남편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저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의 아내와의 관계가 더 고귀한 주님과 관계 아래 위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진정 그의 마음에 주님은 최우선 순위를 점해야 한다. 그는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

22) (7:29) Harry A. Ironsid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p. 223.

을 방해하는 자신의 자연적 관계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²³⁾

7:30 인생의 고락이 우리의 삶에 있어 부당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인생사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한 기회를 사려는 우리의 노력에 부속되어야 한다.

7:31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것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다. 신자로서 피치 못할 접촉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용할 때도 그것들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예컨대,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이나 의복, 그리고 쾌락을 위한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결혼, 재산, 상업, 정치, 과학, 음악, 예술행위 등은 이 세상에서 탁월한 위치를 점하나 그 모든 것들은 영적 삶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 세상의 형적(形迹)은 지나감이니라”는 표현은 극장(劇場)에서 쓰는 용어를 빌려온 것으로서 장면이 바뀌는 것을 지칭한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이 덧없음을 말한다. 이같은 짧은 인생의 특성은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어구(語句)에 잘 표현되어 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모든 남녀는 각기 자신의 역할을 하는 연극인들이다. 그들 각자는 무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때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에 한 사람은 많은 부분을 연기한다.”

7:32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 없기를 원했다. 그는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을 말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장가가지 아니한 사람은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

23) (7:29) W. E. Vine, *First Corinthians*, p. 104.

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라고 설명한다. 이 말은 모든 독신자 성도들이 아무런 방해가 없이 주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독신생활 자체가 결혼생활에서는 쉽게 하기 어려운 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말이다.

7:33 다시금 본문은 기혼자는 주님의 일에 헌신적일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결혼생활은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해줄 의무가 요청된다는 일반적인 고찰을 한 것뿐이다. 그는 결혼한 자로서 배우자를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바인(Vine)의 적절한 지적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기혼일 경우 그는 섬기는 분량에 있어 제한을 갖고 있다. 만일 그가 독신이었다면 그는 세상 끝까지 아무 때나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다.”²⁴⁾

7:34 “혼인하지 아니한 여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지만, 혼인한 여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함이라.” 여기서도 단어 해석이 필요하다. “시집가지 않은 자”나 “처녀”는 주의 일을 위해 자신의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는 단순히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기혼자들보다 더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미혼자는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몸과 영혼을 좀더 성별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녀는 기혼자보다 더 순결하지는 않지만 자유로운 시간을 더 갖고 있다.

다시금 “시집간 자는 세상일을 더 염려한다”는 대목을 보자. 이 말은 결혼한 여인이 독신녀보다 더 세상적이라는 말이 아니다. 하

24) (7:33) W. E. Vine, *First Corinthians*, p. 105.

지만 기혼녀는 가정을 돌보는 것과 같은 세상일에 더 시간을 할애해야만 한다. 물론 결혼생활에 있어 이같은 일들은 합법적이고 올바른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결코 결혼생활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미혼녀가 기혼녀보다 자유롭고 좀더 폭넓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한다.

7:35 바울은 사람들을 경직된 조직의 굴레에 얽어매고자 이 교훈을 선포하지 않았다. 그는 실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익을 위해 교훈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삶과 주님을 섬기는 일을 살펴보기를 원했다. 그 결과 그들은 바울의 이 교훈의 빛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지도 모른다. 독신생활은 선한 것이고,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방해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다. 바울에게 있어, 결혼생활을 하든지 독신생활을 하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이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고 보았다. 바울은 올가미를 씌우거나 그들의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기를 원했다.

7:36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본서 중에서, 아니 전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오해받는 내용들이다. 일반적인 해석을 정리하면 이와 같다. 바울 당시 사람들은 가정에서 엄격한 통제를 행사했다. 따라서 자신의 딸이 결혼을 할 것인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한에 있었다. 한 마디로 딸들은 아버지의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만일 사람이 자기 딸의 결혼을 승낙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일이요, 만일 그가 결혼을 승낙한다 해도 그것이 범죄는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본문이 현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혀 무의미한 교훈처럼 보이게 한다. 실상 그같은 해석은 본장의 나머지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으며, 우리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개정표준역(RSV)은 ‘처녀’를 ‘약혼녀’로 번역했다. 그같은 번역의 배경은 곧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약혼자와 결혼하면, 그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파혼하면 그것은 더 잘한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같은 견해는 우리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뿐이다.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윌리엄 켈리(William Kelly)는 탁월한 장점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대체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켈리는 ‘처녀’(헬, *παρθένος*)라는 단어는 ‘처녀성’(virginity)²⁵이란 용어로 번역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되면 이 구절은 어떤 사람의 처녀 딸에 관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동정(童貞)을 염두에 둔 교훈이 된다. 이 해석에 따르면, 본문은 만일 어떤 사람이 미혼 상태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이고, 그가 결혼하기로 결정한다 해도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뜻이다.

존 다비(John Nelson Darby)는 자신의 저작인 ‘새번역’(New Translation)에서 위와 동일한 해석을 하였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처녀성(동정)을 거스려 행동하고자 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죄짓는 것이 아니니 결혼하도록 하라. 하지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자신의 동정을 지키고자 하면, 그것 또한 잘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결혼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

25) (7:36) ‘처녀성’에 해당하는 표준 헬라어는 추상 명사이다. 따라서 만일 본문에서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처녀성’이었다면,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23에서 단순히 ‘처녀’를 의미하는 말로 쓰인 그 단어를 바울이 왜 구태여 사용했는지 의아해한다.

하는 일이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한다면, 그는 더 잘하는 것이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어 자신에게 절제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되면 그가 결혼한다고 해도 죄짓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보인다. 그가 그렇게 결혼할 필요를 느낀다면, 그는 그렇게 소원하는 대로 결혼을 해야 한다.

7:37 하지만 어떤 사람이 방해받음 없이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려 한다면, 충분히 절제할 수 있어 결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래서 독신으로 살기로 결정한다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실로 잘 하는 일이다.

7:38 결론적으로 스스로²⁶⁾ 결혼하기로 결정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나, 주님을 더 섬기고자 독신 상태로 남고자 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7:39 다음 두 구절은 과부들에 대한 충고이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 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묶여 있다. 여기서 ‘법’은 하나님에 의해 제도화된 결혼법을 지칭한다. 어떤 여인의 남편이 죽으면, 그는 다른 남자와 더불어 결혼할 자유를 갖고 있다. 죽음이 결혼 관계를 깨뜨린다고 하는 동일한 진리가 로마서 7장 1-3절에 선언되어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녀가 재혼을 하되 다만 “주님 안에서 하라”는 자격을 제시한다. 첫째로, 이 말은 그녀가 결혼할 상대는 그

26) (7:38) 본문의 ‘스스로’ 결혼하기로 결정하는 자에서 ‘스스로’는 필사자의 보충 내용으로서 헬라어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말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뜻 안에서’라는 뜻을 가진다. 다른 말로 하면, 그녀는 그리스도인과 재혼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벗어나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녀는 재혼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있어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성도와 결혼해야 하는 것이다.

7:40 바울의 솔직한 판단으로 볼 때, 과부는 재혼하지 않는 편이 더 복되다. 이같은 분별은 젊은 과부는 재혼하라는 바울의 분별을 담은 디모데전서 5:14의 내용과 대치되지 않는다. 여기서 바울은 그의 일반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고,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특별한 예외 사항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덧붙인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생각하노라.” 어떤 이는 바울이 이같은 내용을 언급함에 있어 확신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재차 우리는 이같은 해석이 전혀 무가치하다고 강력히 반발하는 바이다. 이 부분에 대한 바울의 글이 영감되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는 여기서 반어법(反語法)을 사용하고 있다. 몇몇 고린도인들이 바울의 사도권과 그의 교훈을 반발하고 나섰다.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했노라고 고백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뜻을 피력한다. “다른 사람이 내게 무엇을 말하든지, 나 역시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성령을 소유했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은 분명 성령님을 독점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바울이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썼으며, 또한 행복의 지름길은 그분의 교훈을 따르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2. 우상에 바쳐진 음식 섭취에 관하여(8:1-11:1)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문제가 8장 1절부터 11장 1절에 걸쳐 다루어지는 바, 이는 당시 이방 종교에서 회개하고 신앙을 가진 초신자들이 직면한 문제였다. 아마도 그들은 신전(神殿)에서 열리는 행사에 초대되었을 것인데, 거기에는 보통 일전에 우상에게 헌납되었던 고기가 풍성하게 진설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시장에 고기를 사러 가곤 했는데, 그 푸줏간에서는 먼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파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물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 그 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기를 사야 하는가?

또 다른 각본을 구성해 보면, 한 성도가 어떤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대접받을 경우도 있다. 만일 그가 그 음식의 출처(出處)를 알고 있었다면, 그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바울은 이같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8:1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나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언급하므로 8장을 시작한다. 이 문제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주제가 아니었다. 예컨대, 그들은 우상에게 고기 한 덩어리를 바치는 단순한 행위가 어떤 의미로든 고기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 고기의 맛과 영양가는 종전대로 남아있다. 하지만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상에 관한 지식 그 자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사실상 이 모든 문제에 있어 그리스도인들은 지식뿐 아니라, 사랑을 사용해야 한다. 그

는 자신에게 합법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최선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8:2-3 바인(Vine)은 2절을 다음과 같이 의역했다. “만일 혹자가 스스로를 충분한 지식을 획득한 자로 생각한다면, 그는 그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게 되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 사랑이 없이는 참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나 또 다른 의미에서 주님은 특히 자신을 믿는 자들을 알고 계신다. 하지만 여기서 ‘안다’는 말은 특별히 사랑을 받거나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 문제에 대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내렸다면, 다시 말해서 그의 결정이 단순한 지식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필경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8:4 우상에 바쳐진 일에 관한 한 성도들은 우상 자체는 힘과 지식, 그리고 사랑을 가진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바울은 우상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 바울은 나무나 돌에 새겨진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후에 그는 이같은 우상 배후(背後)에 사단의 능력이 있음을 직시한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우상들의 참 실체로서의 신들은 없다는 점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8:5 바울은 이방신화 속에는 주피터(Jupiter; 로마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신), 주노(Juno; 주피터의 아내), 머큐리(Mercury; 로마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사자) 등과 같은 많은 신들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 신들 중에는 하늘에 거하는 신들이 있고, 로마신화에 나오는 풍년의 여신인 세레스(Ceres)나 바다의 신인 넵투누스(Neptune) 등은 이 지상에 거한다고 믿었다. 그런 관점에서 많은 신과 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사람들을 구속하는 신화적 존재가 있음을 바울은 시인한다.

8:6 신자들은 “한 분 참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은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의 존재 목적이 되심”을 알고 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와 보존자이시며, 인간 또한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의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목적이자 목표이시다. 또한 우리는 “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존재함”을 알고 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라는 표현은 주 예수를 중보자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묘사한 것이요,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는 표현은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이심을 지적하는 말이다.

바울이 “한 하나님 곧 아버지”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언급할 때 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는 오히려 창조나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두 인격이 각기 성취하신 고귀한 역할을 단순히 지적한 것이다.

8:7 하지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초신자들은 스스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유한 가치를 알지 못했다. 우상 숭배나 우상에 드러진 일 등에 관한 배경 문제에 있어 그들은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을 때 우상 숭배의 죄에 동참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우상의 능력이 실재한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그들의 양심은 약해졌고 오염되었다.

“약해졌다”는 말은 신체적으로나, 더욱이 영적으로 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비도덕의 문제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 관한 한, 성도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없다. 물론 구약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고기는 금지된 음식이었다. 하지만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같은 음식 문제에 관해서는 완전한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태계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음식 선택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구운 돼지고기가 저녁 식탁에 나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같은 자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연약한 형제’이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 안의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상, 그가 돼지고기 섭취를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스스로 범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바로 이 상태가 본문에 묘사된 “그들의 양심은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는 말의 의미이다. 내 양심이 어떤 행위에 대해 정죄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은 곧 범죄한 것이 된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치 않은 것은 죄이다”(롬 14:2-3).

8:8 음식 자체는 실상 하나님께 별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어떤 음식을 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거나 역으로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는

다.

8:9 특정한 음식을 먹으므로 특별한 어떤 것을 얻는 것은 없을지라도 그같은 식성(食性)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는 있다. 이 때문에 사랑의 원리가 도입된 것이다. 성도들은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연약한 형제(자매)를 넘어지게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8:10 어떤 문제에 대해 갈등하고 있는 연약한 형제가 그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행하는 다른 형제의 본을 봄으로써 심령이 정죄받는 일을 행할 위험이 있다.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상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정죄하고 있는데, 그같은 행위가 다른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바울이 여기서 “우상의 집에서 먹는다”고 할 때, 그는 당시 결혼식 같은 사회 공식 모임이나 일반 회합을 염두에 두었다. 어떤 경우든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음식을 먹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바울은 후에 그같은 섭취를 정죄했다(10:15-26). “지식 있는 네가…누구든지 보면”이란 표현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 불결하게 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너를 어떤 사람이 보면”이란 의미이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곧 우리는 이같은 행위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더 숙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8:11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한 지식을 자랑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연약한 형제에

게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말이다. 본문의 “멸망한다”는 말은 그가 얻은 구원이 상실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은 ‘존재의 상실’(being)이 아니라 ‘행복의 상실’(well-being)을 의미한다. 즉 연약한 형제의 간증이 손상을 당하고 그의 삶이 주님께 불명예를 끼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형제를 실족케 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에 나타나 있다. 바울의 논쟁의 요지는 이렇다. 만일 주 예수께서 그 사람을 그토록 사랑했고, 기꺼이 그를 위해 죽고자 했다면 우리는 감히 그같은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그의 영적 진보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음식 몇 조각으로 그같은 행위를 하다니 말도 안 될 소리다!

8:12 이같은 행위는 단순히 그리스도 안의 연약한 형제나 그의 연약한 양심만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그분께도 범죄하는 행위이다. 무엇이든지 소자에게 행하는 것은 곧 주님께 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몸의 지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동시에 몸의 머리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각 주제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빛 안에서 보도록 독자를 이끈다고 바인은 지적했다. 반즈(Barnes)는 “이는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사랑과 고통의 호소이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절규이다”²⁷⁾라고 언급했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는 말은 고뎃(Godet)의 표현대로 “최고의 범죄”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근거해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할 줄 알고, 행여 다른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는 행동은 삼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27) (8:12) Barnes, *I Corinthians*, p. 147.

8:13 다른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범죄하는 행위이므로 바울은 자신이 고기를 섭취하므로 형제들을 실족케 한다면 앞으로 결코 고기를 금하겠노라고 고백한다. 다른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고기 한 덩어리보다 중요하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섭취하는 문제가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부분에서 주신 원리들은 시대를 초월한 중요성을 지닌다. 현대 성도들에게도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직면한다. 우리가 그같은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만, 더 큰 권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성도들의 영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9장은 전혀 새 주제를 다루는 것 같다. 하지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에 관한 문제는 다음 2장에 걸쳐 계속 다루어진다. 바울은 다만 9장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실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8장 13절에서 소개한 원리에 따라서 사도로서 재정적인 보조를 받을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였다. 그러므로 9장은 8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9:1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바울은 자신은 인간이 준 권위와 무관하게 주 예수의 진정한 사도임을 변호한다. 그는 자신의 사도적 근거를 두 가지로 밝힌다. 첫째로, 그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았다. 이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다.

또한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질문함으로써 자신이 소유한 사도 신분의 증거를 제시한다. “주님 안에서 행한 나의 일(사역)이 너희가 아니냐?” 만일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의심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신앙, 즉 구원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물론 그들은 자신의 구원은 영원하다고 답변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가 바울이 주님의 진정한 사도였다는 사실을 반증(反證)해주고 있었다.

9:2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 대접해 주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진정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바울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9:3 본문은 아마도 과거의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리라. 바울은 방금 말한 내용을 자신을 심문하거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천명하고 있다.

9:4 4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은 사도로서 재정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 예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바울은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권리를 겸비하게 부인하였다.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손수 장막 만드는 일을 하였다. 의심할 바 없이 이같은 바울의 태도는, 그에 관한 비판을 낳게 했다. 즉 바울이 물질 공급을 거절한 이유는 그 스스로가 사도가 아니었음을 자인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 문제에 답한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리가 없겠는가?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일을 아니할 권리가 없겠는가? 실로 우리가 교회의 지원을 받을 신분이 아니란 말인가?”

9:5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동반시킬 권리가 없겠는가?” 아마도 바울을 비판한 사람 중에는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생각한 것 같다. “그가 결혼할지라도 교회로부터 어떠한 공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거야.” 사실상,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주의 형제들처럼 결혼하였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결혼한다 해도 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다.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는 표현은 단지 결혼을 지칭하는 수준을 넘어 사도의 배우자로서 교회로부터 공급받을 권리를 말한다. “주의 형제들”은 아마도 주님의 육신의 동생들이거나 사촌 동생들을 지칭하는 것 같다. 비록 다른 말씀 속에서 마리아가 장자인 예수님 아래로 자녀들을 두고 있다고 알려줄지라도 이 본문만으로는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단정하기 어렵다(눅 2:7; 마 1:25; 12:46; 13:55; 막 6:3; 요 2:12; 갈 1:19 참조).

9:6 바울처럼 바나바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 일한 것 같다.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만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지원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고 반문하였다.

9:7 사도 바울은 먼저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도들의 실례를 들어 언급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인간

사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다룬다. 군인은 자신의 경비를 들여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법이다. 또한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은 누구나 그 일을 통한 결과를 기대한다. 또한 목자는 우유를 얻을 목적으로 양떼들을 기르기 마련이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전쟁에 참가하는 군인이나, 들판의 농부나, 목자의 삶과 다를 바 없다. 그 사역은 군인으로서 대적들과의 싸움, 농부로서 하나님의 과실수를 돌봄, 목자로서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일 등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일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은 극히 마땅한 것이어야 한다.

9:8 바울은 일꾼의 공배 받을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 구약으로 우리의 시야를 돌린다. 이처럼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나 농사일이나 목양 등의 실례를 통해서만 바울의 논지가 뒷받침 될 수 있는가? 성경에서 그 근거들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9:9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신명기 25장 4절에 명백하게 언급되어 있다. 즉, 추수를 하는데 이용되는 동물은 그 추수 곡식을 얼마는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하나님께서 소들을 염려해서 기록했던 말인가? 물론 하나님은 소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그분은 말 못하는 짐승들을 위하여 그 같은 내용들을 구약에 기록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있다.

9:10 “오직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냐?” 그 대답은 “그렇다”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복지를 염두에 두셨다. 어떤 사람이 쟁기질을 할 때 그는 풍성한 수확을 소망하며 일한다. 이같이 곡식을 떠는 사람도 그 보상을 기대하며 일한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도 쟁기질이나 곡식을 떠는 일 등과 유사점이 있다. 하나님은 이 사역에 종사하는 자들이 자기의 비용을 들여 그 일을 수행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9:11 바울은 자신을 일궈고 고린도 지역 성도들을 위하여 영적인 것들을 뿌리는 자로 언급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고린도에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고귀한 진리들을 전해주었다. 그렇게 한 사람으로서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보답하는 양 자신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지나치다는 말인가? 자신이 베푼 것에 비해 설교자로서 자신이 받은 보상이 너무 적었다는 것이 바울의 논지(論旨)이다. “물질적인 보상은 영적으로 베푼 복에 비해 훨씬 작은 법이다.”

9:12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곳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다른 일꾼들을 물질로 후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을 의무감으로 했으나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태도로 대했다. 그래서 바울은 묻는다.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랴?” 만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물질 지원의 의무를 인식하고 있다면, 왜 그들이 영적 아버지 바울을 향한 물질 지원의 의무를 인식하지 못한단 말인가? 의심할 바 없이 물질적 지원을 받는 자들 중에는 유대교 출신 교사들도 있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비록 공궤 받을 권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인다. 그는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았다. 진정 그는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받을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온갖 고난과 수고를 감내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였다.

9:13 연이어 바울은 유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후원했던 일을 소개한다. 성전 봉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성전 수입 중에서 생활비를 받았다. 이렇듯 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았다. 또한 제단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제단에 드린 제물의 몫을 취할 수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주변에서 일하는 레위인이나 거룩한 성전 기물을 다루는 제사장들 모두가 자신의 봉사를 통하여 생활비를 지원받았다.

9:14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님의 명백한 명령을 소개한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하셨다. 이 말 씬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하지만 이 말 씬은 또한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기를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대한 답변은 15-18절에서 주어지고 있다.

9:15 그는 이같은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자 현재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 그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9:16 그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실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강권함이 바울에게 임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것은 결코 소명이 될 수 없다. 그는 사명을 받았고 그 신탁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원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온 사명임을 가리킨다.

9:17 만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기꺼이 증거했다면, 그는 이 봉사 에 대한 보상, 요컨대 지원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의 백성으로부터 지원받을 자격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친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마치 못해 주의 종이 되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의 사도권의 기원이 주님에게서 시작되었음을 밝힌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강조한다. 만일 그가 임의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즉 그가 심령에 불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것은 그가 복음 증거의 직분을 임명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분부를 받아 일하는 사람이었고, 따라서 그 일을 하는데 자랑할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17절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분명한 것 같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이유는 복음 사역은 자신이 임의로 선택한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떠맡았다.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물질 지원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어디서든지 보상을 요구하

지 않을 것이다.

낙스(Knox)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스스로 선택해서 행한 것이라면 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강권함을 받아 행동할 때 나는 다만 위임받은 것을 실행할 따름이다.”

라이리(Ryrie)는 이렇게 주해했다.

“바울은 복음 증거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 청지기직(책임)이 그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결코 대가를 다 지불할 수 없는 복음 증거의 명령을 받았다(눅 17:10 참조).”²⁸⁾

9:18 만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실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면, 그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선택사항, 즉 복음을 전하되 값없이 증거하는 것으로 자랑할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생계비를 벌었다. 이렇듯 그는 복음 증거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받을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논지를 요약해 본다면, 그는 의무적인 것과 선택적인 것을 구분하고 있다. 복음 증거에 있어 그는 결코 억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기쁨으로 복음 증거에 힘썼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엄숙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같은 복음 증거의 사명감을 감안할 때 그는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재정을 지원받을 권리를 갖고 있었

28) (9:17) Charles C. Ryrie, *The Ryrie Stud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p. 1771.

다. 그러나 그는 그 권리를 사용하기보다 고린도인들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였다. 이같은 선택은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는 바로 이같은 결정을 자랑할 수 있었다. 바울이 장막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 스스로가 사도가 아님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그의 변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바울은 이같은 자급(自給)적인 삶을 들어 자신의 사도권을 더 강력히 주장함과 아울러 더 고차원적인 삶의 태도임을 밝힌다.

19절부터 22절까지에서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 합법적인 권리를 포기한 자신의 실례를 인용한다.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성경의 중요 원리를 희생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는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고는 믿지 않았다. 이 구절에서 그는 도덕적 무관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사역할 대상자들의 관습과 전통에 동화되었는데, 그것은 다만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려는 명백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그 어떤 행동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9:19 한편으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지배하거나 강요하는 태도에 굴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모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자 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희생시키지 않고 어떤 것을 양보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영혼을 얻으려는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9:20 유대인에게는 그들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되었다. 이 말은 그가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 것을 보고자 모세의 법 아래로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다. 이같은 실례는 그가 디모데와 디도에게 행한 할례 행위 속에 잘 나타난다. 디도의 경우, 그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었다. 이같은 주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행위였음을 인식한 바울은 디도가 할례 받는 것을 극구 거절했다(갈 2:3). 하지만 디모데의 경우, 할례 받는 것이 이같은 구원받는 일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할례 받는 행위가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디모데가 할례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행 16:3).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²⁹⁾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킨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본문 초반에서 유대인들과 연관해서 언급한바 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여기서 이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에 따르면, 바울이 이 구절 초반에서 ‘유대인’들과 연관해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을 가리킨 반면, 여기 ‘율법 아래 있는’이라는 말은 종교생활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간단한 보충설명이 요구된다.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율법 아래서 출생하였다. 따라서 그는 율법을 준수하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 하였으나 결국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실상 율법은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를 비추어 주었으며, 자신을 추악한 죄인으로 정죄할 따름이었다. 궁극적으로 그는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며, 인간에게 그 죄성을 드러내 주는 하

29) (9:20) 가장 오래된 헬라어 비평 사본에는 “비록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라는 설명조의 말이 덧붙여져 있다.

나님의 방책이요, 구세주의 필요를 알려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때 바울은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자신이 깨뜨렸던 율법의 정죄는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

회심 후에 바울 사도는 율법이 결코 구원의 길이 아니고, 더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위한 규칙도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서 사는 존재들이다. 그렇다고 이 말이 성도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자각이 그로 하여금 그 같은 육신의 욕구로부터 지켜준다는 의미이다. 실상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차원의 생활 방식을 영위할 수 있다. 이제 그는 성결한 삶을 갈망하게 되는데, 이는 그가 율법을 깨뜨림으로 받을 심판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때문이다.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긴 동기가 두려움이었다면, 은혜 아래서 그분을 향한 섬김의 동기는 사랑이다. 사랑은 두려움보다 훨씬 차원 높은 마음의 태도이다. 사랑은 결코 공포를 느끼면서는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성취케 한다.

아르뉓(Arnot)은 이렇게 기술했다.

“영혼들을 붙들어 순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유성(遊星)들이 제멋대로 이탈하지 않고 궤도 안에 머물도록 붙드시는 것과 유사하다. 우리는 이같은, 밝게 빛나는 유성들이 그 중심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쇠사슬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그 유성들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붙들려 있는 것이다.…구속 받은 성도를 근신시키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강권하는 것은 바

로 그들을 값 주고 사신 주님께 대한 사랑,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 때문이다.”³⁰⁾

그같은 간략한 배경을 갖고 이제 20절 후반으로 되돌아가자.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바울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유대인 처럼 행동했다. 예컨대, 그는 유대인들이 먹는 동일한 음식을 먹었고 유대인들의 금기 음식인 돼지고기와 같은 음식은 가급적 피했다. 아마도 바울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로서 사도 바울은 삶의 규칙으로써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율법적인 전통과 습관, 편견들을 수용하였다.

9:21 라일(Ryrie)은 다음과 같이 썼다.

“바울은 두 얼굴, 아니 여러 얼굴을 가진 자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섬길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제한적인 자기 훈련을 증거하고 있다. 시냇가의 물 흐름이 무한 늪지의 물 흐름보다 강한 것처럼 바울의 제한적인 자유는 그리스도를 위한 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었다.”³¹⁾

“율법 없는 자”에게 바울은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진 자지만 그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였다. 여기서 “율법 없는 자”란 용어는 제반 법규를 무시하고 범하는 것을 지칭하기보다는, 단순히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실상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수여되었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30) (9:20) William Amot, *The Church in the House*, pp. 467,468.

31) (9:21) Charles C. Ryrie, *The Grace of God*, p. 83.

아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 불충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방인들의 관습과 느낌에 동화 되고자 힘썼다. 바울은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하였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행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실상 그는 그리스도의 율법아래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모세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에 의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배하며 섬기고 기쁘시게 할 자로 묶여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법아래 예속되었다. 우리는 흔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고 말한다. 바울이 강조하는 태도도 엇비슷하다.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는 가능한 한 주님께 충성하는 범위 안에서 이방인들의 삶의 관습에 적응하려 힘썼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맥이 문화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 교회적이거나 도덕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님을 숙지해야 한다.

9:22 본절은 연약하고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실제로 근본적이지 않은 사항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렇듯 약한 자들에 대해 바울은 약한 자처럼 되었는데,³²⁾ 이는 그들을 구원하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육식을 하면서 공격을 받으니 차라리 채식주의자가 되고자 했다. 요약하면,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그들 중에 몇몇이라도 구원하려는 마음 때문이었다. 이 구절들은 성경의 명백한 원리들을 무시하는데 사용되는 증거 구절로 사용될 수 없다. 다만 이 구절들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그들의

32) (9:22) 가장 오래된 헬라어 비평 사본은 ‘...와 같이’란 말을 생략했다. 그러나 이 단어(as)는 바울의 논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다. 그는 실제로 약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다.

관습과 생활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바울이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은 결코 아니다. 실상 그는 주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임을 잘 알고 있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주님과 친밀히 연합되어 있기에 복음 전도 사역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점을 주목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은 복음 사역이야말로 진정 존귀하고 명예스러우며 존엄한 일임을 드러내 준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자기 훈련의 부재로 말미암아 성도가 받을 상급을 상실케 되는 내용을 묘사해 준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으려는 바울의 태도는 이같은 자기 훈련의 일환이었다.

9:23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함은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앞절에서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의 사역에 정진하고자 열망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왜 그는 이렇게 행했는가? 한마디로 그는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 즉 그는 장차 다가오는 복음의 승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였다.

9:24 의심할 바 없이 바울 사도가 24절을 썼을 때, 그는 고린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개최되는 이스미안 경기(Isthmian games; 고린도 지협에서 2년마다 개최했던 고대 그리스 경기)를 회상했을 것이다. 고린도 지역 성도들은 이 이스미안 경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같

은 배경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달린다고 해서 모든 선수가 다 상을 얻는 것이 아님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상기시킨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주하는 것과 같다. 경주하는 사람에게는 절제와 부단한 지구력이 요청된다. 또한 승리하겠다는 정확한 목적의식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경주에는 한 사람만이 상을 얻는다고 교훈하는 것은 아님을 염두에 두자. 다만 이 구절은 성도로서 우리가 승리자처럼 경주해야 함을 교훈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술선수범해서 실천한 자기 부인의 실례를 동일하게 실천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상”은 구원을 의미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봉사의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을 가리킨다. 구원이 신앙 경주를 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언급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요컨대,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9:25 이제 바울은 육상 경기에서 레슬링 경기로 화제를 바꾼다. 그는 독자들에게 레슬링 경기에서 승자가 되려는 모든 선수들은 모든 것에 있어 절제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한번은 어떤 레슬링 선수가 자신의 코치에게 물었다. “제가 담배 피우고 술을 마시며, 그리고 안락한 시간을 가지면서도 레슬링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코치가 대답했다. “물론 자네는 그렇게 할 수 있지. 하지만 자네가 절대로 승자는 될 수 없을 걸세!” 바울은 이같은 경기들을 생각하면서 최후 승자가 상을 타기 위해 시상대로 올라가는 장면을 떠올렸다. 그들은 무엇을 상으로 받을까? 그것은 씌어질 면류관으로서 꽃이나 풀잎을 엮어 만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시들어버

릴 월계관이었다. 하지만 바울이 대조적으로 사용한 썩지 않을 면류관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긴 모든 성도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다.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노라.
그것은 비천하기 짝이 없는 지상의 들풀도,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인간의 칭찬도 아니라네.
그것은 썩지 않을 면류관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보좌에서
그분의 독생하신 아드님이 친히
우리에게 수여하실 상급이라네.” (H 보나).

9:26 이같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싸우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바울의 봉사는 목적이 없거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눈앞에 분명한 목적을 가졌으며, 자신의 모든 행동을 심사숙고하여 행하려는 것이 그의 삶의 태도였다. 그는 결코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았다. 바울 사도는 단순한 세상사에는 관심이 없었다.

9:27 대신 그는 자신의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켰는데, 이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거절당하거나 혹은 자격을 상실당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절제나 극기(克己)가 요청된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설교한 후에 자신은 정작 자격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엄숙한 가능성을 인식하였다.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 다른 견해들이 있다.

(1) 어떤 사람들은 본문의 내용을 사람이 구원받았어도 궁극적으로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 물론 이같은 견해는 그리스도의 참된 양(羊)은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신약의 일반적인 가르침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2) 다른 사람들은 본문의 ‘버림받는다’³³⁾고 번역된 말은 강한 어조로써 영원한 저주를 가르친다고 이해한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바울이 가르치는 바는,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거짓 교사들, 그들이 어떻게 온갖 정욕에 이끌렸는가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즉,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그가 과거에 진정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것이며, 만일 그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 했을지라도 그 자신은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이론이다.

(3) 세 번째 견해로서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봉사에 관한 내용이라는 분별이다. 그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봉사에 관한 한, 주님의 시험을 견딜 수 없고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 해석은

33) (9:29) 흠정역의 ‘버림받다’는 번역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낳는다. 헬라어 ‘아도 키모스’는 단순히 ‘승인받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운동 경기 용어로서 이를 영어 성경(NIV, NASB)에서 ‘자격을 상실하다’(disqualify)로 옮긴 것은 잘못된 번역이다.

‘자격을 상실한다’(disqualified, 한글 개역성경은 ‘버림받는다’로 번역됨)는 용어 자체와 잘 조화를 이룬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도 주님에게 무용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엄위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어쨌든, 본문은 실로 중대한 말씀으로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심에서 우리나는 반성을 촉구한다. 각자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의미를 쓰디쓴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않게 되기를 힘써야 한다.

절제의 필요성을 생각하자 바울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떠올랐다.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만에 빠졌고, 몸을 절제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주님 앞에서 자격을 상실하고 인정받지 못하게 됨을 회상한다.

먼저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특권을 언급한다(1-4절).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이 받은 심판(5절)과 아울러 그들이 실패한 원인들을 밝혀준다(6-10절). 그 후에 그는 이같은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설명해 준다.

10:1 사도 바울은 “유대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를 통과하였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킨다. 강조점이 “다”(all, 모든)라는 말에 있다.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회상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기적같이 인도함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피난하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특권에 관한 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을 체험하는 기쁨을 누렸다.

10:2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모세에게 속해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들이 모세와 그의 지도력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고자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했을 때, 전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모세와 동맹 관계로 연결되었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구원자로 인식하였다. 한편, “구름 아래”란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가리키고, “바다에서”란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분리되었음을 묘사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10:3 그들은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기적적인 방법으로 공급된 만나를 지칭한다. 여기서 “신령한 식물”이라는 표현은 비물질적인 음식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신령한”이라는 용어는 물질적인 음식이 영적 영양분의 모형이나 그림이었다는 것을 드러내 주고, 영적 실체를 본서 저자가 염두에 둔 것이다. 물론 이 음식이 초자연적으로 주어진 음식이라는 개념도 내포할 수 있다.

10:4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셨다. 그 물은 말 그대로 물이었지만, 다시금 그것이 영적 활력의 모형이자 기적적인 공급이었다는 점에서 “신령한 음료”라 불렸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 물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들 모두는 갈증으로 죽고 말았을 것이다.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라는 표현은 문

자적으로 실제 바위가 그들의 여정동안 뒤따라왔다는 의미가 아니다. 반석은 그 곳에서부터 흘러넘치고, 이스라엘들을 따라다니는 강물을 상징해 준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이 말은 주님이 바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었고, 그분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임을 묘사해 준다.

10:5 이스라엘인들이 소유한 이같은 탁월한 특권들을 열거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대다수의 이스라엘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성을 느꼈다. 이스라엘인들은 그 결과 광야에서 멸망당해야 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집트를 떠났고 지도자 모세를 따라 한 마음과 한 영이 되었다고 고백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글픈 사실은 그들의 몸은 광야에 있어도 마음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들은 애굽 왕 바로의 속박에서 신체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기뻐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애굽 땅에 속한 정욕을 탐했던 것이다. 애굽을 떠난 20세 이상 된 군인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고 말았다.

1절에서 4절 가운데 사용된 ‘다’(all)란 말과 5절에 사용된 ‘다수’(most)란 말의 비교를 주의하라. 그들은 다(모두) 특권을 소유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멸망하고 말았다.

고딕(Godet)은 이렇게 경탄한다.

“놀라운 점은 사도 바울이 자기 만족에 도취된 고린도 성도들 앞에 제시한 내용이다. 즉, 하늘에 속한 기적의 음식과 음료를 먹은

사람들의 시신이 광야의 메마른 땅을 뒤덮었다는 것이다.”³⁴⁾

10:6 출애굽 당시 발생했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도 적용되는 교훈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 그들이 행했던 것같이 우리도 악행을 추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준다. 구약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역사책이 아닌 현대를 위한 실제적인 교훈을 내포하는 기록임을 이해해야 한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곳에 열거된 대부분의 범죄들이 육체의 탐욕과 관계되어 있음은 주목할 만한 관찰이다.

10:7 본문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스라엘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고 잇달아 가진 사건을 가리킨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출애굽기 32장 6절을 보면 그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춤추기 위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10:8 이곳에 언급된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딸들과 혼합 결혼한 사건을 가리킨다(민 25장). 이방인 선지자 발람의 계략에 의해 이스라엘인들은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적 방종에 빠져들었다. 본문에는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구약에는 이만 사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민 25:9). 성경을 비판하는 자들은 종종 성경의 무오성을 반박하기

34) (10:5) Godet, *First Corinthians*, pp. 59,60.

위해 이 차이를 실례로 들곤 했다. 하지만 그들이 성경 문맥을 좀더 주의 깊게 읽기만 하면 거기에 어떤 모순도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신약의 본질에는 하루에 죽은 사람들이 이만 삼천 명이라고 밝혀준다. 구약성경에는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상자의 도합이 이만 사천 명이었음을 보여준다.

10:9 다음으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의 질에 대해 불평하고, 주님의 선하심에 관해 의심을 표현했을 때를 상기시킨다. 그 당시 하나님은 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민 21:5-6). 다시금 탐식(貪食)이 그들의 패망의 요인이었음을 주목해 보라.

10:10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의 범죄가 여기에 언급되어 있다(민 16:1-47). 재차 거기에도 음식 문제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여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민 16:14).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과 연관된 절제의 훈련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절제에 실패한 자들이었다. 오히려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채웠는데, 이는 그들의 죽음이 잘 입증해 준다.

10:11 다음 세 구절은 앞에서 기술한 사건에 관한 실제적인 적용을 보여준다. 먼저 바울은 이같은 사건들이 갖는 의미가 단지 당시 역사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도 심오한 교훈을 주고 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은 당시 유대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와 유사한 현대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실로 복음시대에 살면서도 이같은 과거의 죄악을 답습하는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다.

10:12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자기 확신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주의하라.” 아마도 이 말은 그같은 염려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강한 신앙인들에게 한 말 같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징계의 손안으로 떨어질 가장 위험스러운 존재들이다.

10:13 하지만 이때 바울은 유혹을 당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격려의 말을 덧붙인다. 바울은 우리가 직면하는 시험과 시련, 유혹 등은 공히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적인 것임을 가르친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넘은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가 구출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는다. 반면에 그분은 그 시험과 유혹의 강도를 제한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신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제공하실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능히 그 시련과 유혹을 감당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이 구절을 읽는 자들은 누구나 과거 수 세기에 걸쳐 하나님의 경건한 종들이 당한 시련과 또한 그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위로들을 생각하며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 성도들은 그 약속을 생명선처럼 붙들었고, 연로한 성도들은 그 약속을 베개처럼 의지하였다. 아마도 바울의 서신을 받을 독자 중에는 우상 숭배를 참석하게 만드는 불같은 유혹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동시에 그들은 스스로 유혹의 자리에 가지 말도록 경고 받아야 했다.

10:14 14절부터 11장 1절은 우상 제물에 관한 주제로 돌아가 좀 더 깊게 그것을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신자가 우상 신전 축제에 참여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끄집어낸다(14-2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아마도 고린도에 살고 있는 신전에서 열리는 우상 잔치에 성도들이 초대를 받은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유혹)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같은 장소에 한번 간다고 해도, 큰 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감 받은 바울의 충고는 단호하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것이다. 그는 우상 숭배에 관해 연구해 보거나 그것을 더 잘 알아보거나, 더 나아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면하라고 권면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반대쪽으로 도망가야 했다.

10:15-16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지성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16절에서 그는 주의 만찬에 관해 언급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언급한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여기서 “축복의 잔”은 주의 성만찬 때 사용하는 포도주 잔을 가리킨다.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잔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일컬어 “축복의 잔”이라 한다. “우리가 축복하는”이란 말은 “우리가 감사드리는데”라는 의미이다. 이 잔을 입술에 대고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흘러넘치는 온갖 복들에 동참하는 자들임을 놀라운 방법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다.

“그 잔은 주 예수의 보혈을 통해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해 주며, 또한 그 잔은 우리가 감사하는 동일한 잔이다. 그리고 그 잔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유익들의 참여자라는 사실 외에 다른 무엇을 증거해주겠는가!”

동일한 진리가 우리가 떼는 떡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떡을 떼어 먹으면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이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과,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지체됨을 증거해 준다. 요컨대, 그 잔과 떡은 주님과 그의 교제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을 가리켜 준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주의 만찬 제정에 관한 언급이 있는 11장 23절 이하에서는 떡이 먼저 언급된 데 반해 왜 본문에서는 잔이 먼저 언급되었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합당한 답변은 이렇다. 즉,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올 때 거치는 일반적인 순서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갓 거듭난 신자는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진리를 인식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먼저 인식한다.

10:17 모든 신자들은 여럿일지라도 떡 한 덩어리가 상징해 주듯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주는 유익들을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고 있다.

10:18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곧 주의 만찬에서 먹는 행위는 주님과 그의 교제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진리가 희생제물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이렇게 제물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상 제단과 교제했던 것이다. 의심 없이 그 제

물은 화목제물을 가리킨다.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제물을 성전으로 가져왔다. 그때 제물의 일부분은 제단에서 불에 태워졌고, 또 다른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제물을 가져온 자와 그의 친구의 몫으로 남겨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날 그 제물을 다 먹었다. 제물을 먹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시하는 것이며, 아울러 그 제단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일까? 그 답변은 실로 간단하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그의 교제에 동참하는 것이다. 화목제물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의 제단과 교제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신전에서 우상 축제에 참여해서 먹는 자는 우상과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10:19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 앞에 놓은 제물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그 성격과 질이 변했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상은 실제 있어서 보고 듣는 능력을 가졌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인가? 이 두 질문에 관한 답변은 분명히 “아니오”라는 것이다.

10:20 바울의 강조점은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실상 귀신들에게 바쳐졌다는 것이다. 어떤 신기한 방법에 의하여 우상 숭배는 귀신 숭배와 연관되어 있다. 우상들을 사용하여 귀신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 실상 마귀(사탄)는 하나이지만 마귀의 수종을 드는 귀신들은 수없이 많다. 바울은 “나

는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10:21 “너희는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 없다. 너희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서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다.” 이 구절에서 ‘주의 잔’은 비유적 표현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들을 묘사해 준다. 이 표현은 흔히 환유법으로 잔은 잔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물을 표시해 준다. “주의 상”(the Lord’s table)이란 표현 또한 비유적인 표현이다. 주의 상이 주의 만찬에 포함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주의 만찬을 가리키지 않는다. 상(식탁)은 음식을 차려놓은 가구 이름의 하나이고 그 곳에서 교제를 즐길 수 있다. 여기서 “주의 상”(식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의 총체를 의미한다.

“너희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서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 없다. 너희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서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바울이 말했을 때,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실 신자는 말 그대로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그같은 일들이 도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여 교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태도는 주님께 불충성하는 행위요 반역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그같은 행위는 도덕적으로 불합리하고 전적으로 그릇된 행위이다.

10:22 그뿐 아니라 그같은 행위는 주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킨다. 윌리엄 켈리(William Kelly)가 언급했듯이 “사랑은 또 다른 상대의 사

량을 구하려는 행위를 질투할 것이다. 만일 자신에게 불충실한 행위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용납한다면 그것은 참 사랑일 수가 없다.”³⁵⁾ 그리스도인은 이렇듯 주님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주님의 공의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10:23 사도 바울은 이제 우상 숭배 동참이란 주제를 바꾸어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중에 적용해야 할 일반적인 원리를 다룬다. “모든 것이 합당하다”라고 할 때 그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다. 예컨대, 그는 살인을 자행하거나 술 취하는 순간에도 자신은 거리낌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재차 우리는 이같은 표현이 비도덕적인 사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실상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그 자체로 합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항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적으로 합법적이거나 자신이 생활하는 나라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지혜롭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즉, 그러한 행위가 다른 형제의 거룩한 믿음을 세우지 못할 수 있다. 그러할진대 고자세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돕는 태도를 취할 것인가?

10:24 제반 결정에 있어 우리는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위를 취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한 이타적인 태

35) (10:22) Kelly, *First Corinthians*, p. 166.

도를 취해야 한다. 이 구절에서 배우는 이러한 원리들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와 삶의 기준이나 여가생활 등 전반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다.

10:25 성도가 고기를 살 목적으로 육류 시장에 갔다면, 그는 살 고기가 일전에 우상 제단에 드려졌었는지 여부를 물을 필요가 없다. 실상 고기 자체는 어떤 이유로든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것을 먹는 행위가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에 의문을 던지지 않는다.

10:26 이상의 충고를 던지면서 바울은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와 의 것이로다.” 본문에 나타난 사상의 요지는 곧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주님께서 특별히 인간들을 위해 은혜로 공급하신 것이라는 점이다. 하인리히(Heinrich)는 시편 24편의 본 인용구는 유대인들이 식탁에서 감사드릴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한다.

10:27 이제 바울은 성도들이 질문을 받았을 경우를 실례로 든다. 불신자가 신자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상상해 보라. 그리스도인은 이같은 초대에 기꺼이 응할 수 있는가? 물론이다. 만일 당신이 불신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꺼이 가서 차려진 음식을 자유롭게 먹어라.

10:28 하지만 식사 자리에 연약한 양심을 가진 다른 그리스도인이 배석했고, 먹는 음식이 이전에 우상에 드려졌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도 계속 그 음식을 먹을 것인가? 그럴 수 없다. 그것을

먹음으로써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그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음식 섭취를 통해 불신자가 주님을 영접하는데 방해를 받는다면 결코 먹지 말아야 한다. 이 구절 끝에 시편 24편 1절이 재차 인용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여호와 의 것 이로다.”³⁶⁾

10:29 이상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양심 때문에 음식 섭취를 금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신자로서 고기를 먹을 완전한 자유가 있다. 그러나 동석한 연약한 형제가 그같은 음식 섭취를 부담스러워 하기에 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하는 것이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겠느냐?”는 질문을 아래와 같이 의역해 볼 수 있다.

“왜 내가 고기를 먹을 자유를 이기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하겠는가?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정죄를 받게 하겠는가?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정죄 받은 양심에 나의 자유를 표출(表出)하겠는가? 왜 나의 선행을 비방 받게 하겠는가”(롬 14:16).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에게 그렇게 방해할 정도로 고기를 먹는 것이 중대하단 말인가?(하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론을 인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음 구절에서 답변을 하기 전에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인다.)

10:30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곧 어린 형제에게 걸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음식을 인해 감사를 드리는 것이 자신에

36) (10:28) 가장 오래된 헬라어 비평 사본은 본문의 반복을 생략하고 있다.

게는 전적으로 모순되어 보인다는 점이다. 다른 성도의 빈축을 살만한 어떤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더 좋은 법이다.

윌리엄 켈리(William Kelly)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자유에 대해 다른 사람이 정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좋다. 내가 감사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빈축을 사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했다. 왜 우리가 활용하는 이같은 자유가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도록 하겠는가? 왜 나의 감사 제목이 오해를 받고 신성모독이란 말을 들으며 추문이 되게 하겠는가?

10:31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삶을 위한 가장 위대한 두 원리가 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첫째 원리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초신자들은 종종 어떤 일련의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곤 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원칙이 여기 있다. 요컨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하기에 앞서 그 일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주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도움을 간청할 수 있는가?

10:32 두 번째 원리는 동료들의 복지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바울은 온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누고 있다. 물론 유대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헬라인들은 회개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출신을 불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신자 전부를 일컫는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충성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을 격동시키고 자극시킬 수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같은 증거로 인한 결과를 다루고 있지 않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끊임없이 거치는 태도를 말한다. 그는 우리의 합법적인 권리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10:33 바울은 정직하게 그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

11:1 본절은 그 내용상 차라리 10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바울은 이제까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자신의 행동을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권한다.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개인적인 권리와 장점을 포기하였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같은 바울의 태도를 따라야 한다. 실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를 가져 오거나 연약한 형제들을 공격하는 등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이기적으로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

3. 여성의 너울에 관하여(11:2-16)

본장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바, 2-16절은 여인들의 너울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17-34절까지는 주의 만찬에 관한 오용을 다룬다. 여기서 첫 번째 주제는 그간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혹자는 본문에 주어진 교훈을 바울 당시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독신자로서 여성에 관한 부정적인 편견을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비록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부분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교훈대로 순종하려고 한다.

11:2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에서 바울 자신을 기억하고 그에게서 받은 유전들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칭찬한다. 여기서 “유전”(tradition)이란 용어는 교회 역사 가운데 내려온 어떤 실행이나 관습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영감 받은 교훈을 말한다.

11:3 바울은 이제 여자들의 너울을 다루기 시작한다. 제반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 속에는 권위와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의 교훈 뒤에 나타나 있다. 이 두 원리가 잘 준수되지 않는 곳에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바울은 권위와 순종이 존재하는 세계의 위대한 관계를 언급한다. 첫째,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즉,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인간은 그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 둘째,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다. 지도적 지위가 남자들에게 주어졌다. 셋째,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신격(神格)에서조차 한 위격을 가지신

분은 통치의 위치를, 다른 위격을 가지신 주님은 기꺼이 순종의 위치를 취하신다. 이같은 지도적 지위와 순종의 분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써, 그분의 통치를 받는 우주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원리이다.

하지만 순종은 열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명백히 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성부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들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결코 남자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다.

11:4 남자로서 머리에 너울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불명예를 돌리는 행위이다. 그같은 남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실로 무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11:5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여자는 남자에게 불명예를 끼친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지도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겠다는 태도일 뿐이다.³⁷⁾

만일 이 구절이 여자들에게 관한 유일한 성구라고 한다면,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고 있는 한 언제든지 모임에서 기도나 예언하는 것이 올바를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곳에서 여자들은 모임 중에서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다(고전 14:34). 또한 남자 위에서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되며, 다만 침묵할 것을 가

37) (11:5) 본문 4,5절은 다음 사실을 분명히 강조한다. 즉 기도와 예언을 하는 상황에서 여자가 너울을 쓰는 것이 합당한 것은 마치 남자가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과 같다.

르친다(딤펴 2:12).

사실상 교회의 모임은 17절에 가서야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2-16절에 나타난 너울에 관한 교훈은 교회 모임으로만 제한시킬 수 없다. 이 너울의 원리는 자매들이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곳 어디서나 적용된다. 자매들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여주는 바, 공적으로 여자가 아닌 남자들이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것을 순종하여 모임에서 조용히 기도해야 한다. 자매들은 공적 모임 이외에서는 조용히 기도할 수도, 소리 내서 기도할 수도 있다. 또한 자매들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연하의 자매들을 가르칠 수 있다(딤펴 2:3-5).

11:6 여자가 너울을 쓰지 않으면 그녀는 머리를 깎는 것이 좋다. 그러나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된다면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한다. 한마디로 너울을 쓰지 않는 여인의 머리는 삭발한 것처럼 수치스러운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발소에서의 이발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일치가 어떠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11:7 7절부터 10절까지에서 바울은 남자를 향한 여자의 순종을 가르침에 있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같은 내용은 여자의 너울에 관한 교훈이 당시에만 실행된 문화적인 것으로써 현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반 생각들을 영원히 제거시킨다. 남자의 지도력과 여자의 순종은 창세로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였다.

무엇보다도 여자가 남자의 영광인데 반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영광이다. 이 말은 남자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대표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고, 이 지구를 통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너울을

쓰지 않는 남자의 머리는 이 사실을 무언(無言)으로 증거한다. 반면 여자는 결코 이같은 머리의 위치를 부여받지 않았다. 대신 여인들은 바인(Vine)이 표현했듯이 ‘남자의 권위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남자의 영광이다.³⁸⁾

남자는 기도할 때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11:8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남자가 여자에게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창조되었음을 상기시킨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그 후에 여자가 남자 편에서 취함을 얻은 것이다. 창조에 있어 남자의 우선권은 사도 바울의 남자의 머리됨에 관한 교훈을 뒷받침해 준다.

11:9 창조의 목적은 다음으로 가정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기본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았다. 주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사람이 독처(獨處)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a helper)을 지으리라.”

11:10 남자에 대한 순종의 위치 때문에 여자들은 권위의 표시를 머리에 두어야 한다. 여기서 ‘권위의 표시’(권위 아래 있는 표)는 너울을 가리키고, 여기서 그 너울은 여인이 소유한 권위가 아닌 자기 남편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지시해 준다.

38) (11:7) Vine, *Expository Dictionary, under Glory*, p. 154.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천사를 인하여”(because of the angels)라는 말을 덧붙였을까? 실상 천사들은 천지 창조시에 만물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날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다. 첫 창조에 있어 천사들은 여자가 어떻게 남자에게 위임된 지도적 지위를 강탈했는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남편인 아담이 마땅히 해야 할 결정을 무시하고 대신해 버렸다. 그 결과 말할 수 없는 불행과 저주를 동반한 채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다. 이제 하나님은 과거 첫 창조에서 일어났던 비극이 새 창조에서는 다시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천사들이 지상을 내려다 볼 때, 하나님은 남자에게 순종하는 여자들의 행위를 천사들이 목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이같이 순종하는 내적인 태도를 그녀의 머리에 씌우므로 해서 외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 내용이 있다. 즉, 너울 쓰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표시이며, 따라서 그것이 내적인 은혜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 될 때만 비로소 참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울 쓰는 것은 그 자체로는 큰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가장 중대한 것은 마음이 진정으로 순종의 태도가 되어야 하며, 그때에만 여인들의 너울은 참된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11:11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남자는 전적으로 여자와 무관한 존재가 아님을 밝힌다. “주님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즉, 남녀는 공히 상호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복종의 개념은 상호의존의 개념과 전혀 상치되지 않는다.

11:12 여자는 창조시에 아담 편에서 취해진 존재이다. 그러나 바울은 남자 역시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바울은 출생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실상 여자가 남자에게 아이를 낳아준다. 하나님은 이렇듯 완전한 균형을 갖고 남녀를 만드셔서 남녀는 이성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정하셨고, 따라서 불평할 일이 전혀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인간이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관계성뿐 아니라, 인생의 존재 목적 또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밝혀준다. 이 모든 사실은 남자를 겸손케 하고 여자를 만족하게 만든다.

11:13 사도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판단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소유한 원초적 감각에 호소한다. 하나님 존전(尊前)에 여인이 너울을 쓰지 않고 나가는 것은 경망스럽고 버릇없는 태도라는 결론이다.

11:14 남자가 긴 머리를 갖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본성 자체가 명백히 지적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남자의 머리카락은 여자의 경우처럼 그렇게 길게 자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자에게 있어 긴 머리카락은 사내답지 못한 모습이다. 대부분의 문화에 있어 남자는 여자보다 짧은 머리카락을 유지하고 있다.

11:15 수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오해해 왔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의 머리는 쓰는 것을 위해 주었다’는 말씀을 들어 여자는 달리 머리

에 너울을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가르침은 거룩한 말씀인 본문을 사장(死藏)시키는 행위이다. 본장에는 두 종류의 덮개(coverings)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은 전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구절이 된다. 이같은 사실은 본장 6절에도 나타나 있다. 거기에는 “만일 여자가 쓰지 아니하려거든 또한 깎을 것이요”라고 쓰여 있다. 방금 위에서 언급한 어떤 사람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말은 “만일 여자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때 그녀는 또한 머리를 깎을 것이요”라는 말이 되는데, 이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진정 그녀가 머리카락이 없다면, 머리를 깎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15절에 나타난 실제적인 논의는 곧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 사이에 실제적인 유추가 있다는 것이다. 실로 하나님은 남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방법으로 여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천연의 가리개(머리카락)를 주셨다. 그리고 이 천연의 가리개에 또한 영적인 중요성이 부여되어 있다.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 위에 너울을 써야만 한다는 것이 이 부분의 가르침이다. 자연적인 영역에서 진리인 것이 또한 영적 영역에서도 진리가 되어야 한다.

11:16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논쟁을 하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런 규례는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없느니라”는 언급으로 이 주제를 끝맺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말해온 내용이 논쟁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말하는 것일까? 또한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관습이 없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같은 가르침은 선택적인 내용으로서 여성들에게 주님의 계명처럼 강조할

수 없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겠는가? 위에 언급한 그같은 가르침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데도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만일 그같은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바울은 그리 무의미하게 너울에 관한 교훈을 발설한 것이고, 결국 성경 반장 분량을 낭비한 셈이다!

성경 다른 부분과 일치하는 두 가지 가능성 있는 해석이 있다. 첫째, 어떤 사람이 이 문제에 관해 변론하려는 태도가 있을 것을 예상했고, 그리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 변론하는 관습은 없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상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논쟁하지 않으며, 단지 바울의 가르침을 주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두 번째 해석은 윌리엄 켈리(William Kelly)가 선호하는 바, 하나님의 교회는 여자들이 너울을 쓰지 않고 기도와 예언하는 그같은 관습이 없노라고 바울이 말했다는 것이다.

4. 주의 만찬에 관하여(11:17-34)

11:17 사도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 분당이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다(17-19절). “너희가 모일 때”라는 표현의 반복을 주의해 보라(11:17,18,20,33,34; 14:23,26). 11장 2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해준 유전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 칭찬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칭찬할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모임 안의 분열 문제이다. 공적 모임을 가졌을 때, 그들은 유익이 아닌 해가 되는 모임을 가졌다. 이같은 내용은 교회 모임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악을 가져오는 정도까지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엄숙하게 경고한

다.

11:18 책망 받게 되는 첫 번째 경우는 분당 혹은 분열의 문제였다. 이 말은 모임이 깨져 나가서 또 다른 교제권을 형성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파벌의식이 팽배했다는 의미이다. 분쟁(Schism)은 모임 안에서 파벌을 형성하는 것이고, 분파(Sect)는 모임 밖에서 다른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믿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인 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울(F. B. Hole)은 이렇게 썼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에 관한 소식을 최소한 불신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육신적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의 상태에서 출발하여 점차 그들이 취할 행동을 설득시켜 나간다. 그들의 육신적이고 미숙한 상태를 감안해 볼 때, 바울은 그들이 인간의 만성적인 경향에 따라 어떤 희생자를 낼 것이고, 강력한 목소리로 결집해서 결국에는 분당을 이룰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들의 이같은 어리석은 행위를 파기시키고, 오히려 그것이 그분에 의해 인정받은 사람을 드러내주는 계기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실로 그는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결과적으로 주의 능력에 의해 그같은 분열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될 것이다.”³⁹⁾

11:19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서 시작된 분쟁이 점차 더 심

39) (11:18) F. B. Hole, “The Administration of the Mystery”(booklet), p. 5.

각해질 것이라는 점은 예견하였다. 일반적으로 이같은 편당(偏黨)은 교회를 해롭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같은 일들을 통해서 한 가지 선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영적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바울이 여기서 “너희 중에 편당(factions)⁴⁰⁾이 있어야”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편당이 도덕적⁴¹⁾ 견지에서 필수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진정 하나님은 교회의 분열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다. 실상 고린도 교회의 육신적인 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당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분당은 그곳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준다.

11:20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 만찬과 연관된 잘못을 힐책한다. 고린도인들이 주의 만찬을 대하려고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의 행위는 극히 경망스러웠다. 따라서 주님께서 지정하신 그 방법으로 주님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들은 외적 행위로는 실행에 옮겼으나, 실제로 전 과정은 주님을 진솔하게 기억할 만큼 준비가 되지 못하였다.

11:21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과 더불어 아가페, 즉 애찬(愛餐)을 실행하였다.

애찬은 공동 식사와 비슷한 형태로 이른바 사랑과 교제의 장이었다. 그리고 이 애찬을 끝마칠 무렵, 성도들은 종종 빵과 포도주를

40) (11:19) 헬라어는 ‘하이레세이스’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 단어는 ‘이단들’이란 뜻으로 쓰이지 않았다. 디도서 3:10에 대한 주석을 참조하라.

41) (11:19) 헬라어 ‘오페이로오’는 항상 도덕적 필요를 나타내는데 사용한다. 여기서 바울은 ‘논리적’ 필요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 ‘데이’를 사용했다.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였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애찬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본문이 암시하듯이 애찬은 그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애찬을 대하기 전에 사람들을 오래 기다릴 뿐 아니라, 부한 자들은 풍성한 음식을 갖고 와서 혼자 먹음으로써 가난한 형제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술에 취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배고프게 되었다. 종종 주의 성만찬이 애찬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들은 술에 취한 채 만찬에 참여하려고 동석하였다.

11:22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같은 경거망동(輕舉妄動)한 태도에 분개하여 책망하였다. 최소한 그들은 교회의 모임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다. 고귀한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참지 못할 뿐 아니라, 가난한 형제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바울은 그 일과 연관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결코 칭찬할 수 없었고, 도리어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

11:23 그들의 이같은 불충한 태도와 만찬의 진정한 의미와의 대조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바울은 본래 만찬이 제정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만찬이 그저 일상적인 식사나 축제 음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정하신 엄위한 예식임을 보여준다. 바울은 이 만찬에 관한 지식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그 어떤 반대도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자 함이다. 실상 그가 가르치는 내용은 주님의 계시에 근거한 것이었다.

먼저 그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에 어떻게 떡을 떼셨

는지를 언급한다. 문자적 의미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때에”이다. 사악한 자들이 밖에서 주님을 팔아넘기려는 음모를 꾸미는 동안 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 떡을 떼셨다.

만찬이 이처럼 밤에 실행되었다는 사실이, 곧 그 이유로 주님의 만찬이 꼭 저녁에 실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시 유대인에 따르면 일몰이 한 날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일출을 하루의 시작으로 여긴다. 또한 사도의 모범(Apostolic example)과 사도의 교훈(Apostolic precepts)은 차이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우리는 사도들이 행한 모든 것을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 모두를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11:24 주님은 떡을 떼어 먼저 그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셨다. 떡은 주님의 몸을 예표하므로 실상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성부께 감사했던 것이다.

구세주께서 “이것이 나의 몸이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그 떡이 실제적인 의미에서 당신의 몸이 되었다는 의미로 말씀한 것일까? 화체설(化體說) 교리를 받아들이는 로마 카톨릭은 성찬식에서의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완전히 실체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재설(共在說) 교리를 주장하는 루터교는 주님의 실제 몸과 피가 식탁 위에 있는 떡과 포도주 속에 있고, 함께 하며, 아래 있다고 가르친다.

이 두 교리에 대한 반론은 곧 주 예수께서 처음에 이 기념예식을 제정하실 당시에 그분의 몸은 아직 찢겨지지 않았고, 그분의 피 역시 흘러지지도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이것이 내 몸을 나타낸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이것은 너희를 위해 상하게 될 내 몸을 예표해준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 따라서 떡을 떼어먹는 것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행위이다. 실로 ‘나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자애로움이 있다.

11:25 이와 같이 주 예수께서 유월절 저녁을 드신 후에 잔을 취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의 만찬은 유월절 잔치가 마치자마자 곧바로 제정되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은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셨다고 언급하고 있다. 잔과 연관해서 주님은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31-34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연관된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의에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죄악을 더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이른 바 무조건적인 언약이었다.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또한 히브리서 8장 10-12절에 나타나 있다. 이 새 언약은 지금도 유효(有效)하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불신 때문에 그 약속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나 약속된 온갖 복을 누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은 이 새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같은 국가적인 회개는 그리스도의 천년통치 때가 되어서야 가능할 것이다. 그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재가(裁可)되었다. 그 때문에 주님은 잔을 그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언급하신다. 새 언약의 기초는 십자가를 통하여 완

전하게 세워졌다.

11:26 본절은 얼마나 자주 주의 만찬을 실행해야 하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준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사실상 어떤 율법적인 규칙도, 일정한 날짜도 확정된 바 없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참고할 때 초대교회 제자들은 일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음이 확실하다. 이 예식이 단지 초대 교회 당시에만 시한부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오실 때까지’라는 표현에 함축되어 있다. 고뎃(Godet)은 “주의 만찬은 주님의 두 번의 오심, 즉 초림에 대한 기억과 재림에 대한 보증을 연결시켜 준다”고 아름답게 묘사했다.⁴²⁾

만찬에 관한 제반 교훈을 통틀어 특별한 집례자로서의 목회자나 제사장이란 용어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이 특기할 만하다.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단순한 기억(기념)예식일 뿐이다. 요컨대,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함께 모여 성도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

11:27 주의 만찬의 기원과 목적을 언급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릇되게 만찬에 참여하는 행위로 빚어진 결과를 언급한다.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떡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이 엄위한 만찬에 참여하기에 무가치한 자들이다. 그같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의 자비와 인애를 받을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의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우리는

42) (11:26) Godet, *First Corinthians*, p. 163.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합당하지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던 바, 그들이 함께 모여 만찬을 불경스럽게 참여하는 행위를 지적하고 있다. 그들의 부주의하고 경건치 못한 행위가 정죄받고 있다. 그들의 이같은 불경스런 행위는 곧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와 같은 것이다.

11:28 주의 만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만 한다. 죄는 무론 대소하고 자백되어야 하고, 그 범죄 행위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향한 피해는 보상해 주어야 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

11:29 합당치 못한 태도로 먹고 마시는 행위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자신을 판단하며 먹고 마시는 것이다. 실상 주님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죄악들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 가운데 사는 것이다. 패터슨(F. G. Patterson)은 기술한다. “우리가 만일 판단받지 않은 죄악과 더불어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하신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11:30 자기 판단의 결여는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몇몇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했다. 많은 사람들이 약하게 되었고, 병들었으며, 심지어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몇몇은

육체적인 질병을 갖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다. 삶 속에 있는 범죄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대하여 징계 행위를 내린 것이다.

11:31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 행위를 받을 필요가 없다.

11:32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친자식들처럼 다루신다. 그분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범죄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듯 우리는 곧바로 양떼의 목덜미를 붙잡아 끄는 목자의 갈고리를 인식한다.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어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장소에는 부합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보이기에는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있다.”

11:33 성도들이 애찬을 위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무시한 이기주의를 버리고 서로 기다려주어야 한다. “서로 기다리라”는 말은 21절에 나온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는다”는 말과 대조를 이룬다.

11:34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를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만찬과 연관된 애찬을 일반적인 식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주의 만찬이 갖는 특성을 무시한 채 부당하게 그것을 대하면 판단 받는 모임이 될 것이다.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의심할 바 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아직 그가 다

루지 않은 몇 가지 사소한 문제들이 있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방문할 때 개인적으로 그같은 문제들을 다루겠노라고 밝힌다.

5. 교회 안의 영적 은사와 그 활용에 관하여(12-14장)

이제 12-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를 다루게 된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 남용이 있었는데, 특히 방언 은사의 활용에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바울은 방언 은사의 남용을 바로잡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고린도 교회 속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배우지 않았지만 특별한 능력으로 어떤 외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⁴³⁾ 하지만 그들은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대신에 도리어 자신을 드러내고자 힘썼다.

그들은 집회 도중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고, 그같은 언어 구사 능력을 뽐내었다. 결국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자랑함으로써 방언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이 일반 성도보다 더 우월한 존재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들은 상대적으로 이같은 은사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열등감과 시기심, 그리고 무력감을 유발시켰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같은 그릇된 태도를 바로잡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 활용에 대한 바른 지침을 베풀 필요가 있었다.

43) (12장 서론) 헬라어 ‘글로사’(방언)는 ‘언어’를 가리키는 일상적인 용어이다. 유사하게, 오늘날도 정식 영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이같은 표현을 쓴다(실레, 프랑스어[the French tongue]).

12:1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일과 은사 문제에 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않았다. 본절 초두의 문자적인 해석은 “이제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무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노라”이다.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들은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 영적이라는 말 뒤에 ‘은사’(gifts)란 말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은 바울이 다만 성령의 은사만을 생각했다기보다는 악한 영들도 염두에 두었음을 제시해 준다.

12:2 회심하기 전에 고린도 성도들은 한 때 우상 숭배자들로서 악한 영의 노예들이었다. 그들은 사악한 영을 두려워하며 살았고, 그 영향 속에서 살았다. 그들은 영계(靈界)의 초월적인 나타남을 목도했고, 악신에 사로잡힌 주술들을 따랐던 자들이었다. 악령의 영향 아래에서 그들은 때로 자제력을 상실했고, 때로는 무아지경 가운데 말하거나 행동하였다.

12:3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들은 제반 영적 현상들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즉, 악한 영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간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차이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시금석은 주 예수에 관한 간증에 달려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는 저주받았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가 분명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사악한 영의 특징은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결코 어떤 사람을 이끌어 구세주를 욕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령의 사역은 주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다.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입술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든다.

여기서 하나님의 세 인격이 3절과 4-6절에 언급되었음을 주목하라.

12:4 바울은 다음으로 교회 안에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곳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세 인격을 내포하는 삼중적인 연합이 있음을 밝힌다.

먼저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이나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교회 속에는 방언의 은사 하나만 존재하는 양 행동하였다. 그러자 바울은 덧붙여 말한다. “천만에! 너희의 연합의 근거는 하나의 은사를 공유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은사의 원천이신 성령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12:5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직임 혹은 봉사는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소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같이 서로를 인정하는 태도로 섬겨야 한다.

12:6 영적 은사에 관해 다시 강조하건대, 거기에는 여러 다양한 역사(활동)가 있지만 각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 이시다. 만일 하나의 은사가 다른 것보다 더 성공적이고 특별하고 능력 있게 보인다면, 이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분임을 보여줄 뿐이다.

12:7 성령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부여하심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신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각기 은사를 부여받았고, 따라서 그 은사의 기능을 발휘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다. 다시 말하면, 은사는 우리 자신을 과시하거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수여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본장 전체의 저변에 깔려 있는 중대한 요지이다. 이제 자연스럽게 은사들의 목록을 살펴볼 단계이다.

12:8 “지혜의 말씀”은 신적 통찰력을 갖고 말하거나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을 변호하며, 분쟁을 해결하거나 실제적인 충고를 해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리킨다. 또한 그것은 당국자들에게 어떤 사안을 간청하는 능력도 포함한다. 이같은 지혜의 은사는 스테반이 그의 대적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증거한 경우에서도 발견된다.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행 6:10).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의 내용을 잘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사도 바울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고전 15:51)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살전 4:15) 등과 같은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실상 지식의 말씀은 새로운 진리를 기본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미 중단된 은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믿음은 영 단번에 성도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다(유 3절). 요약하건대, 그리스도인의 교리 체계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 다만 부차적인 의미에서 “지식의 말씀”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진정 주님과 더불어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지식과 깨달음은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시 25:14을 참고하라). 그렇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지식의 말씀”이다.

12:9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약속이나 계명에 반응하고 또한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위하여 큰 역사를 이루는 능력을 의미한다. 조지 뮐러야말로 이 믿음의 은사를 소유한 고전적인 실례라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필요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60여 년의 세월 동안 만 여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부양할 수 있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질병을 고치는 특별한 능력을 가리킨다.

12:10 “능력 행함”은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물질을 다른 것으로 바꾸며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등을 내포한다. 예를 들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였다(행 8:6-7).

“예언의 은사”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때때로 선지자들은 장래 일을 예언하기도 했다(행 11:27-28; 21:11).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더 주력하였다. 사도들과 같이 선지자들은 교회의 기초를 닦는데 관여하였다(엡 2:20). 물론 사도들과 선지자 자신들은 기초가 아니지만, 그들은 주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의 기초를 제공한 분들이다. 일단 기초가 세워지자 더 이상 선지자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은 신

약성경 속에 우리를 위해 간수되어 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가적인 진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소위 선지자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⁴⁴⁾

부차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고 날카로우며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설교자들을 묘사할 때 쓰기도 한다. 선지자들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나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거나 힘있게 하는 일에 관여하기도 했다(눅 1:67-68; 행 15:32).

“영 분별”은 어떤 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말하는 것인지 사단의 힘으로 말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혹자가 사기꾼인지 아니면 기회주의자인지를 잘 구별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듯 베드로는 시몬이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할 수 있었다(행 8:20-23).

“방언의 은사”는 앞서 지적한 대로 어떤 외국어를 배운 경험이 없이도 그 외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방언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적으로 주어졌다.

“방언 통역”은 일전에 결코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이해하고 다른 지역의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리킨다. 이 같은 은사는 우선적으로 감정적이 아닌 지적인 사람과 연관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같은 성경적인 사고와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방언 은사를 다른 은사들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다. 그들은 어쩌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더 소유하면, 그만큼 더 큰 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44) (12:10) 오늘날 ‘예언’이라고 부르는 많은 경우는 대개 단순히 성경 본문을 반복하는 것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전혀 거짓말하는 둘 중의 하나이다.

실상 그들은 영성을 혼동했던 것이다.

12:11 8절에서 10절에 걸쳐 언급된 제반 은사들은 동일한 성령에 의해 나타나고 통제된다. 여기서 다시금 우리는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성령님은 그분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부여하신다. 여기서 또 다른 중대한 요점, 즉 은사에 대한 성령님의 주권을 볼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이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한편으로 교만한 마음이 제거될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수여 받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은사에 대한 성령님의 주권 인식은 자신이 소유한 은사에 불만을 갖지 않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무한하신 지혜이자 사랑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요, 그분의 선택은 완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갈망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만일 모두가 같은 악기를 연주한다면, 당신은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결코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만일 한 사람의 몸이 허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괴물이나 다름없는 모습이라.

12:12 인체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잘 보여준다. 몸은 하나이나 실상 많은 지체들을 소유하고 있다. 비록 모든 신자들은 각기 다른 개성을 갖고 있고 역할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한 몸이라는 독특한 단위의 연합체이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영광중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 아니라, 지상의 그분의 몸된

지체를 함께 염두에 둔 표현이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인체가 자신의 인격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하나의 매개물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리스도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자 선택한 유일한 매개체이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들에게조차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적용하도록 허락한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은혜를 명백히 입증해 보인다.

12:13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나간다. “한 성령으로(By one Spirit) 침례를 받았다.” 좀 더 문자적인 해석은 “한 성령 안에서”(in one Spirit)이다.⁴⁵⁾ 이 말은 곧 물이 성도들이 받는 침례 실행에 있어 중대한 요소가 되듯이 성령 또한 성령 침례에서 중대한 요소임을 밝혀준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은, “한 성령으로”란 말쯤처럼 성령께서 침례를 베푸시는 대행자이심을 의미할 수 있다. 후자가 더 타당성 있고 납득할만한 해석이다.

성령 침례는 오순절에 일어났다. 실상 교회도 성령 침례를 받은 날 탄생하였다. 이제 우리들도 거듭나는 순간 이 성령 침례의 유익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여기서 몇몇 요점을 정리해 보자. 먼저, 성령 침례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따라서 성령 침례는 물 침례와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이같은 사실은 마태복음 3장 11절, 요한복음 1장 33절,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게다가 성령 침례는 신자가 좀 더 영적 존재가 되도록 구원 후에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아니다. 모든 고린도인들은 성령

45) (12:13) 헬라어 ‘엔’은 문맥이 허락한다면 ‘안으로’, ‘...와 함께’ 혹은 ‘...로’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단어이다. 그런데 우리는 ‘안으로’란 가장 문자적인 해석을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는 헬라어 용어 자체가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으로 침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책망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명백한 표시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예컨대,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 침례를 받아서 모두가 방언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12:30). 물론 신자가 성령의 통제에 굴복했을 때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성령의 독특한 체험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같은 경험이 성령의 침례와 동일한 체험은 아니며, 따라서 이 성령 침례를 성령 충만의 여러 체험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본문은 계속해서 신자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언급한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격으로서 성령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사역의 유익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12:14 무수한 지체들이 없이 우리는 인체를 소유할 수 없다. 인체를 이루려면 거기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야 하고, 각 지체들은 다른 지체들과 다른 기능을 가져야 하며, 모두가 머리에 순종하고 각기 협력해야만 한다.

12:15 다양성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체에 필수적임을 깨달을 때, 이같은 사실은 우리를 두 극단적인 태도, 즉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열등감이나(15-20절),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우월감에서 지켜줄 것이다(21-25절). 발이 손이 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스스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실상 발은 다른 수많은 활동뿐 아니라 서서 걷고, 뛰며, 오르고, 춤추며, 걷어차게 할 수 있다.

12:16 귀는 자신이 눈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몸의 지체 중에서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귀머거리가 되기 전에는 귀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귀의 기능과 역할이 얼마나 탁월한 것이었는가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12:17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당신은 서커스 극장에서 단지 유흥거리에 지나지 않는 괴상한 존재일 것이다. 또한 만일 온 몸이 단지 귀만 있다면, 가스가 폭발할 때 그 방음 장치가 불가능해서 결국 기절하거나 심지어 죽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요점은 만일 온 몸이 전부 혀라면 그 또한 괴물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고린도인들은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결국 고린도 교회를 전부 혀로 만들어버린 꼴이 되었다. 그들은 말만 무성했고,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12:18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형태에 대한 책임이 없었다. 실상 하나님은 견줄 수 없는 지혜 속에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몸 안에 각기 다른 지체들을 두셨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깊은 감사의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 기쁨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른 성도가 소유한 은사를 시기하는 태도는 분명 범죄 행위이다. 이같은 시기심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대항하는 반역 행위이다.

12:19 지체 하나만 가진 몸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모

두가 방언의 은사만 소유하고 있다면 몸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하게 할 수 없음을 고린도인들은 기억해야 했다. 물론 덜 화려하고 덜 주목을 받기는 해도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위해 다른 은사들이 꼭 필요한 법이다.

12:20 하나님은 몸을 만드실 때 비록 지체는 많으나 하나의 몸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일차적으로 인간의 신체를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하나, 더 나아가 이 말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봉사를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다.

12:21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역으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고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심히 어리석은 것이다.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눈은 물건이 어떻게 놓여 있어야 할지를 잘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눈은 그 물건을 정리할 수 없으니, 다만 손동작을 의지할 뿐이다. 그와 같이 머리는 어느 지점에 가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2:22 몸의 어떤 지체들은 다른 지체들보다 약하게 보인다. 예컨대, 콩팥은 팔뚝처럼 강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 팔은 없어도 살 수 있으나 콩팥이 없이 인간은 생존할 수 없다. 우리는 수족(手足)이 없이 살 수 있고, 심지어 혀가 없어도 살 수 있으나, 심장이나 폐, 간이나 뇌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 하지만 이같은

인체의 내부 기관들은 결코 공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 기관들은 다만 끊임없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12:23 어떤 지체들은 별로 주의를 끌지 못하는데 비해 어떤 지체들은 펍 매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별로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존귀로 옷을 입혀 준다. 이렇듯 지체들 중에는 확실히 충분한 보호를 받는 것도 있어서 서로간의 차이를 최소화해 준다.

12:24 몸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별도의 주목을 끌만한 돌봄이 불필요하다. 오직 하나님께서 몸의 지체들 간의 차이를 고르게 하여 하나의 유기체로 만드신다. 어떤 지체들은 아름답고, 어떤 지체들은 수수하다. 어떤 지체들은 공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나 어떤 지체들은 은밀히 봉사하는 일을 잘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특한 기능을 주어서 모든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상호의존적으로 만드셨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의 약점을 보완해 주도록 하셨다.

12:25 지체들간의 깊은 돌봄은 몸 안의 분열을 예방해 준다. 한 지체가 다른 지체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그 도움을 준 지체는 스스로를 채울 수 없는 어떤 필요를 또 다른 지체의 도움을 통해 공급을 받게 된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성령의 은사 중에 어느 하나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결국 지체들 간에 분열과 다툼을 초래할 것이다.

12:26 한 지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곧 모든 지체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이는 인체에 잘 나타나는 특성이다. 예컨대, 감기는 몸의

어느 한 기관에만이 아니라 인체 전 기관에 영향을 준다. 더 나아가 각종 질병과 고통 또한 우리 인체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안과 의사는 환자의 눈을 진찰함으로써 종종 뇌종양이나 간질환, 혹은 허파에 질병 등이 있는지를 간파할 수 있다. 그 이유인즉 이같은 몸의 각 지체들은 독특하고 완전히 구별된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한 몸의 각 기관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 긴요하게 연관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에 영향을 준 것은 또한 다른 지체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역할에 불만족하거나 다른 지체와 무관한 독립심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진정한 연대의식을 소유해야 하리라.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상처를 주는 어떤 행위는 우리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슬픔을 가져다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성도가 영광을 얻는 것을 보면, 우리는 질투심을 갖기보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12:27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통틀어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몸 중에 하나”란 의미를 지칭하지도 않는다. 이 말은 단지 고린도 성도들은 집합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축소판이나 소화상(小畫像)이라는 의미이다. 개별적으로 각 지체들은 거대한 협력체의 일원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되 그 어떤 교만한 마음이나 독립심으로 시기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라는 열등감을 가진 것이 없이 행해야 한다.

12:28 바울 사도는 여기서 또 다른 은사의 목록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 은사 중 그 어느 것도 완성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이다. ‘첫째’란 낱말은 모두가 사도가 아님을 지적해 준다. 열두 제자들은 주님에 의해 그분의 사자로 위임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주님의 지상 사역 중에 그분과 함께 동거했고(행 1:21,22),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다(행 1:2,3,22). 그러나 이 열두 사도 외에 또 다른 사도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도는 바로 바울이다. 또한 바나바가 있었고(행 14:4,14), 주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었고(갈 1:19), 실라와 디모데도 있었다(살전 1:1, 2:6). 신약시대의 선지자들과 함께 사도들은 교회에 관한 교리적인 기초를 놓았고, 그 안에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다(엡 2:20).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도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설교자와 교회 개척자들을 두고 있다. 사도라는 말 대신에 선교사들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우리는 이 선교사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진 능력이나 비범한 권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인상을 피하고 있다.

다음으로 “선지자들”이 있다. 전에 언급한 것처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형태를 취하기 전에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를 가리킨다.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그 의미를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자들이다.

“능력 행함”은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를 쫓아내는 기적 등을 의미한다. “병 고치는 은사” 또한 전에 언급한 것처럼 육체에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순간적으로 치료하는 은사를 말한다. “서로 돕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물질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집사의 일과 연 관되어 있는 용어이다. 한편, “다스리는 은사”는 일반적으로 장로들과 감독들에게 적용되는 은사이다. 이들은 지역교회를 돌보는 경건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인도자들이다. 끝으로 “방언의 은사”가 있다. 본문에 나타난 은사들의 언급 순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바울은 “사도”를 첫 번째로 언급했고, “방언”을 맨 나중에 언급하였다. 실상 고린도 성도들은 방언 은사를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생각한데 반해, 사도는 그들의 생각을 업신여기고 있었다!

12:29-30 바울 사도가 각종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모든 성도는 동일한 은사를 소유한 것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오”였음이 원어 문맥이 보여주고 있다.⁴⁶⁾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소유해야만 한다는 어떤 종류의 제안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가르침이다. 게다가 많은 지체들이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몸의 개념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게다가 모든 사람이 방언 은사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방언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표시라는 주장은 그릇된 것이다. 그 경우에 모든 사람이 성령 침례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명백한 진리는 이것이니, 즉 모든 성도는 이미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이다(13절).

12:31 바울 사도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고했을 때, 그는 지역 교회 전체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것이지, 한 개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같은 사실을 헬라어 동사가 복수

46) (12:29-30) 이같은 질문들은 헬라어 ‘네’로 시작하며, 그 의미는 아래처럼 의역될 수 있다. “확실히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로 쓰였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고린도 교회 전체가 회중 가운데서 몸을 세우는 은사들을 세워 주시도록 갈망하라고 바울은 권고한다. 가장 큰 은사들은 가장 주목을 받는 것들이라기보다는 가장 유용한 은사들을 가리킨다. 물론 모든 은사들은 성령에 의해 주어졌으며, 따라서 어느 은사도 멸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은사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 몸에 더 큰 유익을 끼친다는 점이다. 바로 이같은 은사들이야말로 각 지역 모임이 그들 중에서 세워주시도록 주님께 간청해야 될 것들이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과 더불어 연이어 소위 사랑장(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킴)을 소개한다. 그가 말하려는 것은 단순히 은사를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코 사랑으로 그 은사들을 활용하는 것을 따를 수 없다는 점이다. 진정 사랑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는 것을 보는 것은 한층 더 즐거운 일이다.

혹자는 13장을 별개 내용으로 보기도 한다. 그들은 12장과 14장에 언급되는 방언에 관한 뜨거운 논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13장을 삽입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13장은 바울의 계속되는 논쟁 중에 사활(死活)을 걸만큼 중대한 부분이다.

방언의 은사 남용은 확실히 모임 안에 다툼을 일으켰다. 자기 과시나 탐욕을 위해 일을 할 경우 그가 어떤 은사를 소유했는지 간에 그는 사랑 가운데서 은사를 활용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전에 결코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공적으로 말하므로 만족을 얻

을 수 있다. 하지만 청중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생소한 언어를 그저 앉아서 듣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주장한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우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아마도 반(反)은사주의자들은 사랑이 없는 가운데 너무 지나칠 수 있었다. 즉, 그들은 모든 방언은 마귀로부터 유래했다고 너무 극단적인 견해를 주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모국어인 헬라어는 은사주의자들의 방언보다도 더 나쁠 수도 있었다. 결국 그들의 사랑 없는 행위는 방언의 오용보다도 더 끔찍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바울은 지혜롭게 양측 모두에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상기시킨다. 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행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 진정 거기에는 출교나 분열이 아닌 사랑이 요청된다.

13:1 어떤 사람이 제반 언어, 즉 인간의 언어나 천사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서로 맞부딪쳐 시끄러운 소리만 내는 팽과리 보다 나올 게 없다. 어떤 선포된 말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그 어떤 유익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같은 말은 다만 신경 거슬리는 소음으로서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방언이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통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때서야 선포된 말이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다. “천사들의 방언”은 비유적 표현으로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신비한 말이라기보다

는 탁월한 연설을 지칭하는 것 같다. 이는 성경에서 천사들이 인간에게 말할 때마다 그 말은 항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13:2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계시를 받을 수도 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과,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알게 된 놀라운 진리들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는 특별하게 주어진 신적인 지식을 다량으로 받았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는 산을 옮길만한 정도의 가치 영웅적이라고 할 만한 믿음을 소유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같은 놀라운 은사들을 다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세우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들은 쓸모 없으며 그같은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존재이다.

13:3 바울 사도가 자신의 전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같은 용감한 행동 자체도 사랑의 정신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못한다. 만일 그가 단지 사람들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자신의 명성을 구한다면 그같이 내보이는 덕행도 무가치하게 될 뿐이리라.

13:4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구절은 사랑에 관한 논문을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약성경에서 가장 주옥이 빛나는 사랑에 관한 표현이다. 그런데 이 사랑의 표현은 몇몇의 지역교회와 연관해서 소개된 것이다”고 했다. 핫지(Hodge)도 지적하기를, “고린도 사람

들은 조급했고 불만족했으며 시기하고 우월감을 가졌으며 이기적이었고 무례했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관심을 무시했고, 회의주의적이었고, 분노를 폭발시켰고 비판적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참 사랑이 갖는 특성들을 대조시킨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 오래 참음은 짜증스러운 상황에서 인내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친절함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이 영광을 얻고 높아지는 것을 기뻐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즉, 사랑은 어떠한 소유물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따라서 인간이 뽐낼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심지어 성령의 은사들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수여한 것으로서 아무리 그 은사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은사자들이 자궁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13:5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진정 사랑 가운데 행동한다면, 그는 예의바르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은 이기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 사랑은 급히 성내지 않으며, 오히려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을 받을 때 기꺼이 인내할 것이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즉, 나쁜 동기를 갖고 다른 사람을 상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는다. 사랑을 소유한 자는 간교하지 않고 정직하다.

13:6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 인간 본성 속에는 어떤 불의를 즐기는 비열한 성향이 있다. 특히 어떤 불의가

그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올 때 더더욱 그 불의를 즐겁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같은 태도는 결코 참 사랑의 정신이 아니다. 사랑은 진실한 방법으로 성취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승리라 할지라도 기뻐한다.

13:7 “모든 것을 참는다”는 표현은, 사랑은 인내를 갖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결점을 덮어주고 참아 준다는 의미이다. ‘참는다’는 단어는 ‘덮어준다’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불필요하게 떠벌리지 않는다. 물론 필요할 때 근실히 징계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다룰 수는 있지만 말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즉, 사랑은 제반 행동과 사건을 위한 가장 가능성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사랑은 모든 것이 최상을 이루도록 간절히 소원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것을 바란다. 사랑은 핍박이나 부당한 취급에 대해 모든 것을 견디어낸다.

13:8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묘사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은사들의 일시적 특성과 상반되는 사랑의 영원성을 다룬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한편, 이같은 은사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존재한다.

8절로 13절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해석이 있다. 하나의 전통적인 견해는,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 그리고 지식의 은사는 신자들이 영원한 상태에 들어갈 때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른 견해는 이같은 은사들은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이미 사라졌다는 해석이다. 두 견해를 정리하기 위해 우리는 ‘영원 상태’(Eternal State)와 ‘완성된 정경’(Completed Canon)이라는 제목 아래 8절로 12절의 내용을 의역해 보자. 아래의 두 항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원 상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현재 존재하는 예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본향에 이르게 될 때 끝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지식의 은사는 우리가 영광중에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바울이 “지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하늘에는 지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는 신적 지식을 특별하게 수여 받은 지식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13:9 현세에서 우리의 지식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을지라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우리가 하는 예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성경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많은 신비가 내포되어 있다.

13:10 그러나 완전한 것, 즉 우리가 영원 세계에서 온전한 상태에 도달할 때에 부분적인 지혜의 은사와 부분적인 예언의 은사는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다.

13:11 현 세상은 어린아이에 비교될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의 언어나 명철, 그리고 사고가 극히 제한적이고 미성숙하기 때문

이다.

13:12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마치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불분명하게 사물을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게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아무런 방해물 없이 사물을 볼 것이다. 지금 우리의 지식은 부분에 지나지 않으나 천국에 가서는 있는 그대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천국에서조차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전지(全知)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지식은 지금보다는 훨씬 광대한 분량의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2) 완성된 정경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바울 당시 예언과 같은 직접적인 계시의 필요는 신약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었을 때 끝나게 될 것이다. 방언은 바울 당시에는 활용되었으나 성경 66권이 완성되었을 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제 방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설교를 확증해 주기 위해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히 2:3-4). 신적 진리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에 의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이 지식도 그리스도인의 전 교리 체계가 영 단번에 전달되었을 때 끝나게 될 것이다.

13:9 사도들인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 받은 이른 바, 영감 받은 지식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부분적인 계시를 전달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13:10 완전한 것이 올 때, 즉 신약성경의 마지막 행이 더해져 정경이 완성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간헐적이고 단편적인 계시는 멈출 것이고, 이 진리에 관해 미리 예언하는 일도 중단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분적인 계시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13:11 이적의 은사들은 교회의 초기 시대와 연결되어 있다. 물론 은사 자체는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은사들은 성령의 은사로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한번 하나님의 전체 계시가 성경 속에서 담겨지게 되자 이같은 기적의 은사들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서 “어린아이”⁴⁷⁾란 단어는 자신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아기를 가리킨다.

13:12 지금(사도 시대) 우리는 거울을 보듯 희미하게 본다. 우리 사도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 그 계시는 마치 퍼즐 게임의 조각들처럼 일부분만 주어졌을 뿐이다. 하지만 성경의 정경이 완성될 때 애매한 부분은 제거될 것이고, 우리는 그 계시의 전체를 확연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책이 신약성경에 더해졌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훨씬 완전하고 친밀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될 것이다.

13:13 믿음, 소망, 사랑은 켈리(Kelly)가 “기독교를 특징짓는 도덕

47) (13:11의 ‘완성된 정경’ 중에서)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네페오스’이다 (히 5:13 참고).

적 원리들”이라고 부르는 덕목이다. 성령의 이같은 은혜들은 물론 성령의 은사들보다 더 우월하고,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 요약하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들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더 유용하기 때문에 은혜들보다도 더 위대하다. 사랑은 자기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이다.

본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몇몇 내용을 정리해 보자. 위에서 언급한 대로, 본장 8절로 12절에 대한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현 세상의 상태와 영원한 상태를 대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완성된 정경’이란 입장에서 해석한다. 즉, 기적의 은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성문화된 문서의 형태를 취하기 전에 사도들이 설교를 확증하기 위해 주어졌다고 믿는 이론이다. 따라서 신약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이같은 기적의 은사들은 그 필요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같은 견해가 몇몇 숙고할만한 장점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결정적으로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예컨대, 기적의 은사들이 사도 시대 말기에는 광범위하게 사라진 것으로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는 기적의 은사들을 보일 수 없노라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는 없다. 아무튼 우리가 어떤 견해를 취하든 간에 생생한 교훈은 이것이니 곧 성령의 은사는 부분적이요 일시적이나, 성령의 열매는 영원하고 은사보다 더 탁월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면, 은사를 오용함으로써 생길 분파나 갈등, 은사의 남용 등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것이다.

14:1 14장은 사랑의 장인 13장과의 연관성은 확실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 말은 그들이 항상 다른 사람을

쉽기려고 시도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그들은 또한 모임을 위하여 영적 은사들을 열망해야 한다. 은사들은 성령에 의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수여된다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지역 교회의 교제권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은사들을 우리가 간청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까닭에 바울 사도는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갈망하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는 예언의 은사가 왜 방언의 은사보다도 더 큰 유익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14:2 통역 없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회중의 유익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시나 사람들은 그 말이 외국어이므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는 알려지지 않은 놀랄만한 진리를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해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이다.

14:3 반면에 예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며 그들을 위로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즉, 사랑의 언어인가, 아닌가가 큰 차이를 가져온다. 예언은 세워주고 자극을 주며 사람을 묶어 준다고 바울이 말할 때, 그는 여기서 예언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는 메시지가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로 증거될 때 그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할 뿐이다.

14:4 본문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적인 방언사용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구절로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교회’라는 용어가 본장에서 9회나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4,5,12,19,

23,28,33,34,35절)은 성도가 개인적인 삶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다는 오히려 지역모임 안에서의 방언의 활용에 바울이 더 관심 갖고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맥이 보여주는 바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의 그 어떤 은사 활용도 정죄한 것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방언의 은사가 사랑 가운데서 활용된다면, 그것은 분명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이고 다만 자신만을 위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과시하여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히려 그는 회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건설적인 말을 증거할 것이다.

14:5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멸시하지는 않는다. 그는 이 은사가 성령의 은사임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는 성령께로 말미암은 어떠한 것들도 멸시할 수 없었고, 또 멸시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라고 바울이 말할 때, 그는 그 은사를 자신에게 국한시키려는 갈망을 포기하고 있다. 바울의 갈망은 모세가 표현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민 11: 29).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갈망하면서도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같은 은사를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12:29-30 참조).

그는 고린도 성도들이 오히려 예언하기를 소원했다. 그들이 통역 없이 방언을 말하므로 청중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해 유익을 얻지 못하는 반면, 예언을 실행하므로 타인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드러내 놓는다”는 표현보다는 “덕을 세운다”는 말을 더 선호했다. “놀라운 것은 영적인 덕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⁴⁸⁾

여기서 “통역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통역자 없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면”이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어떤 통역 없이”라는 의미이다.

14:6 심지어 바울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방언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바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전혀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말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 등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흔히 주석가들은 계시나 지식은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것을 내적으로 수여 받는 것과 관계된 반면, 예언이나 가르침은 동일하게 받은 것을 선언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믿는다. 어쨌든 이 구절에서의 바울의 요점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메시지는 이해되는 말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사실을 다음 구절에서 입증하고자 한다.

14:7 먼저 그는 악기를 실례로 든다. 피리나 하프가 악보에 따라 정확한 음을 내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것이 피리 부는 소리인지 하프 타는 소리인지 모를 것이다. 최상의 음악을 연주하려면 주어진 악보에 따른 정확한 연주와 음정, 그리고 명쾌한 장단 등이 함께 잘 어우러져야 한다.

48) (14:5) Kelly, *First Corinthians*, p. 229.

14:8 동일한 원리가 나팔을 불 때도 적용된다. 군대를 집결시키는 나팔 연주도 분명하고 정확한 연주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군인도 다가오는 전쟁을 예비할 수 없다. 나팔수가 일어나서 단음으로 길게 소리 내어 불면 어느 군사도 그 소리에 자극을 받지 않을 것이다.

14:9 인간의 언어도 때 한가지이다. 우리가 전달하는 말이 알기 쉬운 말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같은 말은 허공에다 떠드는 소리일 뿐이다. 본문의 ‘방언’은 외국어가 아닌 발성기관(發聲器官)을 가리킨다. 여기에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원리가 나타나 있다. 즉, 어떤 사역이나 가르침은 그 내용이 분명하고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 내용이 너무 심오해서 사람들의 이해를 초월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청중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다.

14:10 바울은 이제 그 내용의 진리를 밝히고자 또 다른 실례를 소개한다. 그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다른 종류의 소리가 있다고 언급한다. 여기서 수많은 종류의 소리는 단지 인간의 언어 범위를 넘은 여러 피조물들의 의사소통을 내포한다. 아마도 바울은 각종 새 소리들과 동물들의 우는소리를 생각했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새들의 구애(求愛) 소리나 이동할 때 내는 소리, 그리고 먹이를 요청하는 소리들이 각기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위험을 알리는 동물들의 특이한 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모든 소리들은 제각기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실로 뜻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 각 소리는 어

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14:11 뜻 없는 소리가 무용하다는 사실은 인간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정확한 말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단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뇌까리는 야만인이 될 뿐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14:12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 은사를 향한 열정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힘써야 했다. 모팻(Moffatt)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다. “이 영적인 은사를 갈망하는 것을 뛰어넘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 되도록 하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은 결코 영적 은사를 향한 고린도 성도들의 갈망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이루도록 하였다.

14:13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말하면, 그는 그것을 통역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아니면 이 말은 어떤 사람이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의미이다.⁴⁹⁾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울러 통역의 은사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둘 모두를 소유한다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닐지라도 말이다.

다음으로 언급되는 인체를 실례로 든 유추는 각기 다른 지체가 각기 다른 기능을 소유하고 있음을 제시해 준다.

49) (14:13) 하지만 원문에서는 ‘통역하도록’이란 말의 주체가 ‘말하다’라는 주체와 다르다고 제시하지 않고 있다.

14:14 예컨대, 어떤 사람이 교회의 모임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는 일반 상용어는 아닐지라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그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그의 마음(understanding,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회중은 결단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제 14장 19절에서 설명하겠지만, “내 마음”이라는 말은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마음(지각)”을 가리킨다.

14:15 “그러면 어찌하리요?” 이같은 질문은 단순히 이런 의미이다. 바울은 영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태도로 기도하겠다는 의도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표현대로 “마음으로(지각으로) 기도할 것이다.” 반복하건대, 그는 자신의 마음(지각)을 좇아 기도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도하겠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그는 영으로 노래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지각)으로 노래할 것이다.

14:16 위의 해석이 문맥상 옳다는 사실이 16절에 의해 더 명백하게 지지되고 있다. 만일 바울이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으로 감사한다면, 그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말에 따라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는가?

14:17 외국어로 말할 때 혹자는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지 모르나,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여타 사람들은 덕 세움을 입지 못하는 것이다.

14:18 사도 바울은 분명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제반 외국어보다도 더 많은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실상 여러 외국어를 배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의심할 것 없이 방언의 은사, 즉 배우지 않고도 특별히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를 가리킨다.

14:19 이같은 탁월한 언어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외국어로 일만 마디 하는 것보다도 이해할 수 있는 말 다섯 마디를 하겠노라”고 고백한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요약하면, 바울 사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하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내 마음(지각)”이란 어법이 ‘목적 소유격’(objective genitive)이라는 점이 흔히 지적되곤 한다.⁵⁰⁾ 이 말은 내 자신의 마음(지각)을 지칭하기 보다는 내가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갖는 마음(지각)을 가리킨다.

햇지(Hodge) 역시 여기 문맥은 바울이 방언으로 말할 때 스스로가 갖는 마음(지각)이 아니라, 바울이 말할 때 그의 말을 듣는 다른 사람의 마음(지각)을 가리킨다고 지적한다.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고, 그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바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그 방언의 사용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었

50) (14:19) 문자적 표현은 ‘나를 이해함’이다. ‘나를’이란 말은 소유격으로 명사가 제시하는 행동의 목적을 가리킨다. 동일한 형태가 주격 소유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것이 더 잘 어울리는가에 따라 문맥의 해석이 결정된다.

다는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주장은 더더욱 믿을 수 없다. 이 구절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무아지경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준다. 이 구절에서는 방언 은사의 본질에 관한 일반적인 교리가 하나의 변함없는 특성으로 나타난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지라도 바울은 잘 알려지지 않은 언어로 일만 마디를 하는 것보다 그들이 깨달은 말인, 지적인 말 다섯 마디를 하고 싶다고 고백한다. 교회(church), 즉 모임(assembly)에서 바울이 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행, 카테케오) 교훈할 목적을 위해서이다(갈 6:6).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깨달은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는 교훈을 전달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⁵¹⁾

14:20 바울은 이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아직 미성숙했음을 지적한다. 아이들은 흔히 유용성보다는 재미있는 것을 선호하고, 견고한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화려한 것을 좋아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과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이같은 특별한 은사들로 인해 어린아이들처럼 기뻐하지 마십시오. 다만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서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 생각해야 합니다.”

14:21 이제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를 인용함으로써 방언이 신자들보다는 불신자들을 위해 주어진 표적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분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그것을 조롱했기 때문

51) (14:19) Charles Hodge, *First Corinthians*, p. 292.

에 장차 외국어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겠노라고 언급했다(사 28:11). 이 예언은 앓수르 침략자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그 가운데서 앓수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성취되었다. 그것은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에 대한 엄위한 표적이었다.

14:22 하나님은 본래 방언을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셨으니, 고린도 성도들은 신자들의 모임 중에서 자유롭게 방언을 말하겠다는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문의 요지이다. 도리어 그들이 예언을 한다면, 그것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준 것이다. 실상 예언의 은사는 불신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선지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14:23 만일 온 교회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통역 없이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는가?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간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성도들이 모두 정신 이상에 걸린 것은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요컨대, 22절과 23-25절 사이에는 명백한 대로가 존재한다. 22절에서 우리는 방언은 불신자를 위한 표적이요, 예언은 신자들을 위한 표적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23-25절에서 바울은 예언이 불신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 비해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방언은 단지 혼란을 초래하고 불신자들에게 걸림돌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상반되게 보이는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즉, 22절에서 언급되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진리에 마음을 담은 자들이다. 그들에게 있어 방언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심판의 표적이었던 것처럼(21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표적이다. 그러

나 23-25절에 언급되는 불신자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는 자들인데 그 당시 그들이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이 그 증거이다. 만일 그들이 통역 없이 외국어로 하는 설교를 듣는다면 그들은 분명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14:24 만일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방언이 아니라 예언의 말을 하는 모임에 들어왔다면, 그 방문자는 증거 되는 말을 이해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곧 선포되는 말을 청중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실한 죄책감을 갖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논지이다. 통역이 없이 방언 은사를 활용할 때, 단언하건대 어떤 방문자도 그것으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물론 예언을 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상용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로 청중들은 그 선포되는 메시지의 내용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4:25 사람 마음의 은밀한 것은 예언에 의하여 폭로된다. 청중은 설교자가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실상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고 선언할 것이다.

이렇듯 22-25절에서 바울 사도가 지적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즉, 통역 없는 방언의 말은 예언의 말이 초래하는 것과는 달리

불신자들에게 그 어떤 양심의 가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14:26 방언의 은사와 연관해서 교회 내에 들어온 은사 남용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방언의 은사 활용에 관한 규칙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26절로 28절에서 우리는 이같은 규칙을 만난다.

초대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26절을 근거해 볼 때 당시 교회의 모임은 상당히 자유롭고 비형식적인 것 같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제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자유가 있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시편을 읽었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교리를 가르쳤다. 또 다른 사람은 외국어를 말했다. 어떤 사람은 직접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미 발설된 외국어 내용을 통역하기도 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른 형제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이같은 공개적인 모임을 묵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은사 활용에 대한 첫 번째 규칙을 확립한다. 즉, 제반 모든 은사 활용은 덕을 세울 목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특이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하여 교회가 아무거나 다 허용할 수 없는 법이다. 교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 사역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운다”, 즉 교회의 영적 성장을 가져온다는 의미이다.

14:27 두 번째 규칙은 한 모임 안에서 많아야 세 명 정도가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누가 방언을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자신의 원대로 외국어를 구사하는 그같은 모임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규칙은, 한 모임에서 방언을 말하도록 허락된 두 세 명은 특별히 질서를 따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그들이 동시에 함께 말해서는 안 되고, 한 사람씩 순차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같은 지침은 한 번에 여러 사람들이 말하므로 겪게 되는 혼란하고 무질서한 상황은 피하게 해준다.

네 번째 규칙은 방언을 말하는 곳에는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사람은 통역하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외국어로 말하려면, 그는 먼저 자신이 말하는 바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14:28 지금 방언을 통역할 사람이 없다면, 그는 교회에서 침묵을 지켜야 한다. 물론 그는 조용히 앉아서 자신과 하나님께만 외국어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통역 없이 공적으로 말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

14:29 예언의 은사 활용에 관한 규칙은 29-33절 상반절에 나타나 있다. 무엇보다도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해야” 한다. 한 모임에서는 많아야 세 사람이 예언할 수 있으며, 앉아서 듣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의 여부와, 혹은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14:30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선지자는 주님께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을 교회 앞에서 계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계시를 전달한 후에 그가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도 있었을 법하다. 그

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선지자가 말하는 도중 청중석에 앉아 있던 또다른 선지자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말하던 설교자는 거기서 멈추어 더 최근에 받은 계시를 지닌 사람이 말하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예언하던 사람이 더 많이 말하면 할수록, 그는 주님으로부터 영감 받은 말을 하기보다 그 자신의 힘을 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길게 하는 설교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신의 말을 하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진정 계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한 것이다.

14:31 예언자들은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어떤 한 사람이 시간 전체를 독점할 수 없었다. 그같은 방법을 준수하므로 교회는 최대의 유익을 받을 수 있었다. 실로 그들은 모두가 배우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할 수 있었다.

14:32 가장 중대한 원리가 32절에 계시되어 있다. 행간(行間)을 읽어볼 때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릇된 생각,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사로잡힘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는 자제력을 더 잃게 된다고 믿었던 것 같다. 고뎃(Godet)의 주석에 따르면, 그같은 사람이 곧 일종의 입신 상태에 들어간 것이고, 그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덜 지적(知的)이 되고, 자신을 망각하게 된다고 고린도인들은 믿었다. 고린도인들에게 있어 성령의 통제 아래 있는 사람은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게 되고, 자신의 언어를 통제할 수 없을 뿐더러 설교 시간의 길이나 일반적인 행동조차도 자의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켰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생각이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 말은 설교자가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는 능력을 상실했거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자신은 도저히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구차한 변명을 일축시키고 있다. 요컨대, 설교자는 언제 설교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 동안 설교할 것인지 그 시기와 분량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14:33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시다. 다시 말하면, 만일 어떤 모임이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면, 그 모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14:34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교훈은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같이 단정할 수 있는 이유는 본문의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는 내용에 근거한다. 신약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비록 여인들이 고귀한 사역을 다방면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사역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인들은 가정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여인들은 모임 전체를 가르치는 공적 사역을 하도록 허락 받지 않았다. 여인들은 남자들의 지도력에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율법에 이른 것같이”란 표현은 남자를 향한 여자의 순종 태도와 관계가 있다. 여기서 율법에 나타난 태도는 우선적으로 모세 오경에 나타난 가르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6절은 이렇

게 기록되어 있다. “너의 바람은 네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바울이 이 구절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예배가 드러지는 도중에 여자들이 이야기나 잡담을 하지 말라는 교훈이라고 종종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해석은 그 근거가 빈약하다. ‘말하는 것’(헬, *라레오*)으로 번역된 단어는 고대 헬라어에서 단순히 ‘대화 나누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단어는 본장 21절과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사용되었는데 모두가 권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14:35 참으로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만일 여자가 무엇을 배우려면, 그녀는 집에서 남편에게 문의해야 한다. 어떤 여자들은 말하는 것을 금하는 34절의 말씀을 오히려 질문함으로써 교묘히 피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 단순히 질문하는 행위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문은 이같은 간교한 피할 길을 모두 차단하고 있다.

이 말씀을 미혼 자매들이나 과부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면, 먼저 그 답변은 성경이 각 개인의 경우를 모두 다루지 않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각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만일 어떤 여인이 남편이 없다면,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나 형제, 혹은 장로들 중에 한 분에게 질문할 수 있었다. 사실상,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 “여자들이 하여금 자기 집안의 남성들에게⁵²⁾ 물을 것이다.” 기억해야 할 기본 원칙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이다.

52) (14:35) 헬라어 ‘안드레스’는 ‘남편들’, ‘남성들’을 의미할 수 있다.

14:36 분명 사도 바울은 이같은 자신의 가르침이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을 인식했다. 실로 그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되었다. 여타의 논쟁을 다루기 위해 그는 먼저 이렇게 질문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 이르렀느냐?”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인들이 이같은 문제들을 사도 바울보다 더 잘 안다고 고백했다면, 그렇다면 그는 교회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설했는지, 아니면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냐고 반문한 것이다. 태도로 보아 고린도인들은 스스로 이 문제에 관해서 공적 권위를 취했던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은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원이 될 수 없다. 또한 그 어떤 교회도 그 말씀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는 않았다.

14:37 앞서 말한 제반 교훈들과 연관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같은 교훈들이 단지 개인적인 생각이나 해석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들이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바울 자신이야말로 그같은 사람임을 밝힌다. 본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 중에, 특히 여자들과 관련된 가르침 속에는 그의 개인적인 편견이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을 일축시킨다. 본문의 이같은 가르침들은 결코 바울의 사사로운 권면이나 해석이 아닌 주님의 교훈들이다.

14:38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는 만일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두라”고 덧붙이고 있다. 어떤 사람이 바울의 서신들이 성령의 영감 받은 글임을 깨닫지 못하

고 순종적인 태도를 거부한다면 그 무지함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달리 길이 없다.

14:39 은사 활용에 관해 앞에서 언급한 교훈을 요약하면서 바울은 이제 “예언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형제들에게 권한다. 이 구절은 이 두 은사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진정 예언이 방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예언 사역을 통하여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세움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통역자 없는 방언 활용은 하나님과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섬길 수 없다. 그렇다! 그같은 방언 활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드러낼 뿐이다!

14:40 바울의 마지막 권고는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이다. 이같은 명령이 본장의 마지막에 위치한 것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수 년 동안 소위 방언의 은사를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모임 속에서 질서정연함을 무시해 왔다. 오히려 그같은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무절제한 감정 폭발과 아울러 혼란이 그 특성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역교회 내의 방언사용에 관한 몇 가지 지침을 정리, 요약해 보자.

- (1) 우리는 방언 은사 활용을 금하지 말아야 한다(39절).
- (2)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말하려면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야 한다(27하반절, 28절).
- (3) 한 모임에서는 세 사람까지 방언을 말할 수 있다(27상반절).

(4) 한 번에 한 사람씩 방언을 말해야 한다(27중반절).

(5) 증가되는 내용은 반드시 타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26중반절).

(6) 여자들은 공적 모임에서 침묵을 지켜야 한다(34절).

(7) 모든 것은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한다(40절).

이상은 오늘날 현대 교회들에게도 공히 적용되는 변개될 수 없는
지침들이다.

4.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대 부활장이다. 몇몇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몸의 부활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사후의 삶 자체를 부정한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우리가 죽으면 다시 몸의 형체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영체(spirit being)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 같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같은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전통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1. 부활의 확신성(15:1-34)

15:1-2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상기시키고 있다. 사실상 그 기쁜 소식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증거했던 것이요, 그들은 즐겁게 받아들였던 것이며, 더 나아가 이제는 그들이 그 복음 안에 서 있게 되었다. 물론 고린도인들에게 이 복음은 새로운 교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같은 민감한 시기에 그 복음을 곰곰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었다. 요컨대, 고린도인들은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만일 너희가 내가 증거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이라고 덧붙인다. 이 구절에 사용된 ‘만일’이란 단어는 그렇다고 해서 그

들이 받은 구원이 의심스럽다거나 혹은 굳게 잡아야만 구원된다는 조건부 구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과 같은 사건이 없었다면, 거기에는 결코 구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복음의 전체 진리를 향해 전면 공격을 시작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바울에게 있어 부활은 사활을 건 근본적인 문제였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의미하다. 실상 본질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의 목전에서 고린도인들은 복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다.

15:3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또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그가 받은 메시지의 첫 번째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주님은 결코 자신의 범죄 때문에 죽으셨거나 혹은 순교자로서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 돌아가셨다. 이 사건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된 것이다. 여기서 “성경”이란 단어는 구약성경을 가리키는데 그 이유는 아직 신약성경이 문서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정 구약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물론이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5-6절은 이에 대한 강력한 증거 구절이다.

15:4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에 관한 예언은 이사야 53장 9절에 나

타나 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시편 16편 9절에 예언되어 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성경의 증거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태도는 우리의 믿음과 연관된 제반 문제들에 관한 훌륭한 시금석이 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15:5 5절부터 7절에서 우리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록을 본다. 먼저, 주님은 게바(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이는 실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의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불충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부활 후에 은혜롭게 개인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시었다.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얼마나 탁월한지! 그 후에 주님은 또한 열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사실상 그 당시 열두 제자가 함께 모여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열둘’이라는 표현은 물론 어떤 특정한 순간에 함께 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쓰곤 하였다. 게다가 복음 외에 기록된 주님의 부활 후에 나타남이 전부 이곳에 기록된 것이 아님을 감안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은 부활 후의 주의 나타나심 가운데 그분의 쓰임에 적절한 경우만 선택하여 언급하였다.

15:6 오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은 일반적으로 갈릴리에서 발생했다고 믿고 있다. 바울이 본서를 쓸 당시 부활을 목격한 대부분의 형제들은 살아 있었고, 일부는 주님과 함께 본향에 있노라고 적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의 신빙성에 어느 누군가 증인을 요청한다면, 그는 기꺼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목격자들을 대면시켜서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5:7 여기에 언급된 야고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분명치 않다. 물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가 바로 주님의 육신의 동생이라고 가정하지만 말이다. 본절은 또한 주님이 모든 사도들에게 부활 후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셨노라고 언급한다.

15:8 이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개인적인 체험을 언급한다. 이는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는데, 당시 그는 하늘로부터 큰 빛을 보았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것이다. “만삭(滿朔)되지 못하여 난 자”란 말은 ‘조산아를 가리킨다. 여기서 바울은 마치 미숙아가 정상아에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이 자신을 다른 사도들 중에 가장 어린 자로 말하고 있노라고 바인(Vine)은 설명한다. 그는 교회의 핍박자였던 자신의 과거 생활을 회고하는 견지에서 자신을 책망하는 말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쓰고 있다.

15:9 구세주를 대면하여 만났던 특권을 생각했을 때, 바울은 자신이 극히 무가치한 존재임을 통감하였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는지를 회상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여겼고, 더 나아가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하지 못한 자로 인식했던 것이다.

15:10 그는 현재 자신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 있든지 간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서둘러 밝힌다. 그리고 그는 이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은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의무감을 더하게

만들었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있어 지칠 줄 모르는 수고를 감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같은 수고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히려 자신과 더불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15:11 이제 바울은 자신을 다른 사도들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리고 누가 설교를 했든지 간에 그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복음을 전파하되,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음을 밝힌다.

15:12 12절부터 19절에서 바울은 몸의 부활을 부인할 때 생기는 결과들을 적고 있다. 무엇보다도 몸의 부활에 대한 부인은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여기서 바울의 논리는 반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몸의 부활 같은 것은 없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바울은 덧붙인다. “좋다. 너희가 몸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여!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겠는가?” 물론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떤 사실에 대한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한번 일어난 사건을 증거로 제시하는 일이다. 따라서 몸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신 단순한 사건을 자신의 논리 전개 토대로 삼고 있다.

15:13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이같은 결론은 고린도인들에게 절망적인 어둠을 던져 주었을 것이다.

15:14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때는 사도들의 설교는 그 실체를 상실한, 그야말로 헛된 것이다. 사도들이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왜 헛된 것일까? 먼저는 죽은 지 사흘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약속대로 사흘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큰 실수를 하신 것이다. 이 둘 중에 어느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주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사랑의 죽음보다도 주님의 죽음의 가치가 훨씬 더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죽음으로부터 주님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온전히 만족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주셨다.

명백한 사실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그릇되었다면, 분명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었으리라. 그릇되었고 헛된 메시지를 신뢰하는 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15:15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은 단지 거짓 메시지를 증거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상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셨다고 증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증거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15:16 부활이 문자적으로 성취 불가능한 일이라면, 거기에는 어

면 예외도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역으로, 부활이 한번 일어났었다면, 그리스도의 경우를 볼 때, 부활이 불가능했으리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다.

15:17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신자들의 신앙도 헛되고 신앙은 무력해질 것이다. 게다가 죄의 용서는 있을 수 없다. 이렇듯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치를 거절하는 것이다.

15:18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사람들에게 관한 한, 그들의 경우는 완전히 절망적이었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신자들의 믿음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잠자는”이라는 표현은 성도들의 몸과 연관되어 있다. 잠잔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영혼과 관련되어 사용된 적이 전혀 없다. 신자의 영혼은 죽는 순간 몸에서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반면에 몸은 무덤에서 잠자는 상태로 묘사되고 있다.

여기서 “망하였으리라”는 단어를 잠시 생각해 보자. 이 말은 존재의 정지나 소멸을 가리키는 말이 결코 아니다. 바인(Vine)이 지적한 것처럼, 여기서 “망하였으리라”는 존재의 상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복지(well being)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나 사물이 본래 창조될 때 소유했던 그 목적이 파괴되었음을 가리킨다.

15:19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처럼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다. 살아있

는 신자들 역시 속아왔던 것이다. 실로 그들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의심할 바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온갖 고난과 슬픔, 시련과 핍박 등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이같은 그릇된 연유 때문에 환난을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애처로운 일이다.

15:20 그런데 이같은 긴장은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사실과 그 복스러운 부활에 따른 복들은 승리감에 가득 차 선언했을 때 완전히 역전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the resurrection of the dead)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사이에 차이를 두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구절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다루어 왔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죽은 자가 참으로 부활하는 것에 관해 논쟁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다. 이 말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부활은 제한된 부활이다. 모든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는 자의 부활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

15:21 사망이 최초로 세상 안으로 들어온 것은 사람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인류의 조상이었다.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한 인간으로 보내사 첫 사람의 범죄 행위를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믿는 자

들은 아담 안에서는 결코 알지 못했던 축복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15:22 아담과 그리스도는 그룹의 수장(首長)으로 제시된다. 이 말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들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아담의 후손 모두는 죽게 되었다. 역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하신다. 이 구절은 때때로 만민구원설을 가르칠 목적으로 인용되어 왔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담 안에서 죽은 동일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여기서 열쇠가 되는 것은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들만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살게 될 모든 사람이라는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살게 될 사람들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대적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상 그같은 대적들은 장차 주님의 발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25절). 성도가 주와 더불어 복락을 누리는데 반면, 이같은 주님의 공의의 심판의 형벌을 접하게 될 사람들의 두려움과 고통을 생각해 보라.

15:23 다음에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케 된 그룹들을 보게

된다. 첫 번째 그룹은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이다. 주님은 여기서 첫 열매로 언급된다. 첫 열매는 농부가 본격적인 수확을 거두기 얼마 전에 추수 밭에서 잘 익은 곡식을 손으로 거두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같은 첫 열매를 거두는 일은 뒤따라오는 추수에 대한 맛보기이자 보증이었다. 예컨대, 우리는 이같은 경우들을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고, 신약에서는 나사로나 과부의 아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것과 완전히 구별된다. 사람들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는데 반해,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결코 다시 죽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영생의 능력으로 사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그분은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시되 영화로운 몸을 입으시고 살아나셨다.

첫째 부활의 두 번째 그룹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 말은 휴거의 시간에 부활하게 될 사람들을 내포한다. 또한 대환난 기간에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될 성도들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환난 시간의 끝에 살아나게 될 믿는 성도들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스도 재림에도 여러 단계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의 부활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 첫째 부활은 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고 죽은 사람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충성했던 성도들, 혹은 이기는 자였던 성도들만이 주님의 재림 때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성경은 이같은 부분 휴거설을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오실 때 하나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15:24 우리가 믿기에 “그 후에는 끝이 오리라”는 표현은 부활의 끝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원수들을 발아래 두시는 천년 통치 말미에 전에 죽었던 사악한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 부활은 최후의 부활 사건이 될 것이다. 요컨대, 주님을 불신하고 죽은 모든 자들이 일어나 주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천년왕국과 사단의 파멸(계 20:7-10) 후에 주 예수는 그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 드릴 것이다. 그 즈음 주님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실 것이다. 이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서 통치해 오시고, 하나님의 증보자로서 섬겨오셨다. 그리고 천년왕국 통치 말년에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모든 반대는 제거될 것이고 모든 대적들은 파괴될 것이다. 인자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늘의 영원한 왕국으로 양보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의 통치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15:25 본절은 방금 전에 말한 내용을 강조해 준다. 즉, 그리스도의 통치는 모든 반역과 대적이 굴복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15:26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 기간 동안에도 사람들은 죽게 될 것이다. 특히 주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은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백보좌 심판대에서 사망과 음부는 불못 가운데로 던져질 것이다.

15:27 하나님은 만물을 주 예수의 발아래 복종시켰다고 선언하

셨다. 물론 만물을 주님 발아래 복종시켰다면 하나님 자신이 거기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사실상 27절은 본문에 쓰인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가르치는지가 쉽지 않기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다. 그 내용을 의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켰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거기서 제외되는 것은 분명하다. 실상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15:28 만물이 아들에게 복종하게 된 후에도 주님 자신은 영원히 아버지께 복종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경륜 중에 그리스도를 통치자와 집행자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아래 놓여 있다. 그래서 주님께 의탁한 업무를 아버지 앞에서 계산할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 주님은 만물을 굴복시킨 후에 왕국을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이다. 창조 세계는 완전한 상태로 다시 아버지께로 되돌려질 것이다. 주님께서 인간이 되어 구속의 사역, 회복의 사역을 완성하셨을지라도 그분은 성육신 하실 때 취하셨던 복종의 위치를 고수하신다. 만일 주님께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신 후에 인간되기를 중단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접촉점은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이다.”(발췌문).

15:29 아마도 본문은 성경 전체 구절 중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다. 이 구절에 대해 많은 해석들이 주어져 왔다. 예를 들면, 어떤 사

람들은 주장하기를, 생존해 있는 신자들은 이 의식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침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같은 해석은 성경적인 의미와 상당히 거리가 먼 이론이다. 실상 이같은 해석은 성경 전체의 지지가 아닌 단지 한 구절을 근거한 말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한 세례’는 침례를 통해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는다. 물론 이는 가능성 있는 해석이나 본문에서 의미하는 내용은 아니다.

본문에 부합해 보이는 해석은 다음과 같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는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핍박이 가해졌었다. 이 핍박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특히 침례를 받을 때 더 심했다. 물 침례를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면 종종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 순교를 당하곤 하였다. 하지만 이같은 핍박의 시련이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행위를 멈추게 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놀랍게도 순교 당하는 숫자만큼 새롭게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수가 더해졌다! 신자들이 물 침례를 받고자 물속으로 발을 내디딤으로써 실제 의미에서 그들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주님께 대한 자신의 담대한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사건이 없다면 순교당함으로 부족케 된 신자의 머리 수에 자신이 포함되고자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행위가 아니냐는 것이 바울의 논지이다. 부활이 없다면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들의 숫자를 채우고자 또다시 지원군을 보내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은 실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버텨보는 차원일 뿐이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

을 하겠느냐?

15:30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시간 위험에 처해야 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위협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있었다. 그를 살해하려는 비밀스러운 음모 또한 있었다. 그가 주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했다면 이 모든 환난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상,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일이 없었다면,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15:31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써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는다.” 이해를 돕고자 의역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자녀처럼 여기고 확실히 여러분을 기뻐하건대, 나의 매일의 삶이 죽음에 노출되어 있노라.”

15:32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직면했던 불같은 핍박을 회상한다. 우리는 그가 직접 야생 동물 가운데 던져졌다고 믿지는 않는다. 여기서야 야생 동물처럼 사악한 사람들에 관해 말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은 야생 동물들과 싸우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가 정확히 어떤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만일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다면 그같은 위험천만의 싸움에 그가 어리석게 휘말려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참으로 부활이 없다면 그가 다음과 같은 철학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지혜

로웠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 함께 먹고 마시자. 왜냐하면 내일 우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즉 이 세상이 전부라 할지라도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바울은 그같은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최상의 삶을 구하는 것이 더 좋은 태도이리라.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음식과 의복, 그리고 쾌락을 위해 살았을 것이다. 그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 외에 무엇을 바랄게 있겠는가?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지고 말 그같은 일들을 위해 감히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 우리는 장차 있을 ‘그때’를 위해 살지, ‘지금’을 위해 살지 않는다.

15:33 고린도 성도들은 이 부분에서 속지 말아야 한다. 악한 동무는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부활은 도무지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가르쳤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사람들이나 사악한 가르침과 관계를 가지면 그들에 의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악한 가르침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릇된 교훈은 결코 사람을 거룩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15:34 고린도 성도들은 의에 대하여 깨어 있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이같은 사악한 교훈에 의해 미혹당해서는 안되었다.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이 구절에 대한 폭넓게 받아들이는 해

석은, 전 세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남녀가 많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본문의 일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지식을 갖지 못한 고린도인들의 교제권 안에 있다는 점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들은 참 신자들이 아니고, 다만 양의 탈을 쓴 이리요, 제멋대로 하는 거짓 교사들이다. 이같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교제권에 들어와 자신의 위치를 갖고 그같은 사악한 가르침을 나누도록 허락한 것은 분명 고린도 성도의 수치였다. 불경건한 사람들은 모임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부주의는 회중 전체의 도덕기준을 약화시키고, 제반 그릇된 교훈을 받아들이는 준비단계를 갖추는 셈이다.

2. 반(反)부활론에 대한 속고(15:35-57)

15:35 35절부터 49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실제 양식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을 개진한다. 그는 몸의 부활의 실체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두 가지 질문을 예견하고 있다.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이고, 두 번째 질문은 “또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서 오는가?”이다.

15:36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36절에 주어졌다. 자연 법칙에 나타난 일반적인 예화가 부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기 전에 먼저 죽어야 한다. 이는 실로 모든 작은 씨 속에도 숨겨져 있는 생명의 신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씨앗을 해부하여 그것을 현미경 아래 놓고 연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비밀은 불가해한 신비로 남아 있다. 우리가 아는 전부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거기에서 전혀 믿어지지 않게 그 죽은 씨앗에서 생명이 움터 나온다는 사실이다.

15:37 두 번째 질문이 곧이어 다루어진다.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후에 그 결과로 나타날 형체를 뿌리지 않는다고 바울은 설명한다. 다만 우리는 씨앗 알맹이, 즉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를 뿌린다. 이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결론은 무엇인가? 식물의 형체가 원래 우리가 뿌린 씨앗 알맹이와 동일한가? 아니다. 식물의 형태는 본래 씨앗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 하지만 씨앗의 알맹이와 그 형체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요컨대, 씨앗이 없다면 그에 따른 식물의 형체도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식물은 그 형체를 그 씨앗에서 나오게 만든다. 부활도 바로 그와 같은 특징이 있다.

“부활한 몸은 처음에 뿌려진 몸의 실체와 같은 종류이며, 그 실체의 지속적인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그 부활한 몸은 타락되고 불명예스러우며 나약한 본래의 몸에서 정화되어, 이제 부패하지 않고 영화로우며 능력 있고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 것이다. 실상 몸은 동일한 몸으로서 한 형태를 뿌렸으나 다른 형태로 살아 일어난 것이다.”(발췌문).

15:38 하나님은 뿌린 씨앗에 따라 형체를 주신다. 그리고 각 씨앗들은 결과적으로 고유한 종류의 식물 형태를 취한다. 그 식물의 크기, 색깔, 잎사귀, 꽃 등을 결정하는 제반 요인들은 실상 뿌려진

씨앗에 포함되어 있다.

15:39 부활한 몸의 영광은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몸의 영광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실례로 보여주기 위해 바울 사도는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님을 지적한다. 예를 들면, 인간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으며 고기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는 법이다. 이 육체들은 각기 다른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모두가 육체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복사물은 아니지만 서로 유사한 특성이 있는 것이다.

15:40 하늘의 몸(육성)의 영광과 땅에 연관된 몸의 영광이 서로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로 현재 신자의 몸과 장차 죽은 후에 갖게 될 몸에는 차이가 있다.

15:41 심지어 하늘에 속한 몸 가운데서도 영광에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햇빛은 달빛보다 밝으며 별들 중에도 그 밝기는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바울이 장차 있을 몸의 부활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의 영광과 다르다는 것을 계속 강조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들은 천상에서 신자들 간에 영광의 차이가 있음을 41절이 지시해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홀스텐(Holsten)의 견해, 즉 “바울이 하늘에 속한 몸의 다양성을 강조한 방법은 부활한 성도 사이에는 그 영광에 있어 유사한 차이가 있다고 상상하게 만든다”는 견해를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동일한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명백하다. 물론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적으로 닮는다고 할지라도(혹은 다른 말로,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신체적으로 닮게 되지는 않는다. 주님은 영원에 걸쳐서 독특한 분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각기 독특한 인격을 소유한 자들로 드러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대한 충성도에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각기 다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천상에서 지고한 행복을 누리는데, 어떤 성도들은 그 행복의 정도가 더 큰 지복(至福)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옥에서 각자가 저지른 죄악의 정도에 따라 고통에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성도로서 각자가 행한 봉사에 따라 천상에서 누릴 기쁨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15:42 42절부터 49절에서는 현재 성도의 몸과 성도가 장차 영원 세계에서 취하게 될 몸의 차이를 대조해서 보여준다. 현재 우리의 몸은 질병과 죽음에 굴복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몸이 무덤에 묻히면, 얼마 후 그 몸은 썩어져서 결국 먼지로 돌아간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결코 그와 같지 않을 것이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은 더 이상 질병이나 죽음에 굴복하지 않게 될 것이다.

15:43 현재 성도의 몸은 수치로 심겨져 있다. 죽은 시신이 뭐 그리 영광될 것이 있겠는가! 하지만 동일한 몸이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부활한 몸은 주름지지 않고 상처도 없으며 노화되지도 않고 비만하지도 않을 것이며, 게다가 죄의 유혹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나이가 들면서 인간

은 점점 더 연약하게 되어 결국 죽게 된다. 젊을 때의 그 모든 힘이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영원 세계에서 인간의 몸은 이같은 서글픈 한계 상황에 굴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반면에 그 몸은 현세에서는 소유하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예컨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물쇠로 잠겨 있는 방을 아무 거리낌없이 출입하셨다.

15:44 여기서 우리는 “신령한”이란 말이 ‘비물질적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강조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세계에서 우리는 육체가 없는 영들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결코 본문이 의미하는 내용이 아니며, 또한 성경적으로도 그릇된 것이다. 주 예수의 부활의 몸은 육체와 뼈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는 주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눅 24:39)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육의 몸”(a natural body)과 “신령한 몸”(a spiritual body)의 차이는 곧 전자가 이 세상에 살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다면, 후자는 하늘에서의 삶을 살기에 적합하게 지어졌다는 것이다. 육의 몸은 일반적으로 혼의 통제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신령한 몸은 참으로 영의 통제를 받는 몸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과 혼, 그리고 몸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항상 영을 첫째로 언급하셨는데, 이는 영이 혼과 몸보다도 더 우선적이며 중요한 위치에 놓이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였기 때문이다.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고 난 후 매우 이상한 어떤 일이 인간 세계에 발생하였다.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언제나 ‘몸, 혼, 영혼’의 순서로 말하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을 최우선의 위치에 두셨다. 그러므로 부활의 시기에는 인간의 생각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혼과 몸을 지배하는 위치로 회복하실 것이다.

15:45 여기서 다시금 “첫 사람 아담”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되고 있다. 하나님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그 결과 그는 살아있는 존재(a living being)가 되었다(창 2:7). 그 후 아담의 후손 모두는 그가 가진 특성들을 유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즉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a life giving spirit)이 되셨다(요 5:21,26). 여기서 둘 사이의 차이점은, 첫 번째 아담은 육체적 생명을 부여받았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어드만(Erdman)은 이렇게 설명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그와 같이 지음받아 장차 죽을 몸 안에 살아있는 영혼으로 기거하고 있고, 땅에 속한 부모의 형상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우리는 불멸의 몸을 덧입고 있고 하늘에 속한 우리 주님의 형상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⁵³⁾

15:46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근본적인 법칙을 개진한다. 즉,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라고 하는 진리를 언급한다. 이는 여러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아담, 즉 육 있는 사람이 인간 역사의 무대에 처음으로 들어오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즉 신령한 자가 오셨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육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후

53) (15:45) Erdman, *First Corinthians*, p. 148.

에 거듭날 때, 우리가 신령한 존재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먼저 육 있는 몸을 부여받고, 그 후 부활의 시기에 신령한 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15:47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은 아담의 기원은 땅에서 비롯되었고, 그의 특성 또한 땅에 속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첫째로 땅에 속한 흙으로 지음 받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에 있어 실제적인 의미에서 땅에 묶인 것 같았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시다.⁵⁴⁾

15:48 45절에 언급된 두 사람 가운데 예수님은 두 번째였다. 그분은 영원부터 존재해 온 분이셨으나 인간으로서는 아담 다음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따라서 그분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지상적이요 혼적인 것이 아닌, 천상에 속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었다.

대표로서 이 두 수장이 그런 것처럼, 두 수장의 추종자들의 특성 또한 동일하다.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땅의 특성들을 상속받았고,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특성들을 부여받았다.

15:49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의 특성들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는 또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될 것이다.⁵⁵⁾

54) (15:47) 가장 오래된 헬라어 비평 사본은 '주님'이 생략되어 있다.

55) (15:49) 여기에 대부분의 헬라어 사본은 권면의 말이 있다. "우리가... 입자."

15:50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 시기에 살아있는 성도이든, 죽은 성도이든 간에 그 몸에 일어나게 될 변화로 그 초점을 옮기고 있다. 그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노라”는 선언으로 서론을 시작한다. 이 말은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몸은 장차 영원한 하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음이 사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질병에 약하고 썩어지기 쉬운 우리의 현재 몸은 부패가 없는 영원의 세계에 부적당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있는 성도의 몸이 천상에서의 삶을 위해 준비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15:51 그 답변은 비밀 형태로 주어진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밀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진리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계시하셔서 그들이 우리에게 알게 한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즉 신자들 모두가 죽음을 경험할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생존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죽었든지 아니면 살아 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부활 그 자체의 진리는 구약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죽지는 않는다는 것과 주님의 재림 때 생존해 있는 성도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은 결코 이전에는 알려진 바 없는 새로운 비밀이다.

15:52 변화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마지막 나팔은 세상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군다나 계시록에 언급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 나팔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 공중에 오실 때 들리게 될 마지막 나팔을 의미한다(살전 4:16).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 때 땅과 바다가 전 세기에 걸쳐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을 내어줄 터인데, 그 장엄한 순간을 생각해 보라! 인간의 마음은 이같은 엄청난 사건을 온전히 숙고하기에 용량이 부족할 뿐이다.

15:53 우리가 믿기에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두 부류의 성도가 있음을 가리키는 것 같다. “이 썩을”이라는 말은 그 몸이 이제 썩어 먼지가 된 사람들과 관계있다. 그들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 죽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몸이 아직 살아 있으나 장차 죽음에 굴복케 될 사람들과 관계있다. 이런 몸들은 장차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15:54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변화될 때, 그 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바 되었느니라”(사 25:8)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이 얼마나 장엄한 광경이겠는가!

매킨토시(C. H. Mackintosh)는 이렇게 감탄했다.

“이같은 부활의 능력 앞에서 죽음과 무덤, 부패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흘 동안 사자(死者)로 묻혀 있는 것이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수천 년간에 걸쳐 썩어 먼지가 된 수백만의 사람들이 복되신 주님의 음성과 함께 순식간에 생명을 취하게 되고, 불멸의 존재로 바뀌고, 영원한 영광을 덧입게 될 것이다!”⁵⁶⁾

15:55 이 구절은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죽음에서 부활하면서 부르게 될 일종의 조롱의 노래가 될 것이다. 성도들은 사망을 조롱할 것인데, 이는 그 사망의 쏘는 힘이 무력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음부(Hades-NIV; 우리말 성경에는 ‘사망’으로 번역됨)를 조롱할 것인데, 이는 그 음부의 권세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실로 사망은 더 이상 성도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그들이 영접 받고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5:56 죄가 없다면, 사망은 어느 누구도 쏘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고백되지 않은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죽음을 직면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죄가 양심을 괴롭힌다면,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영원한 심판의 전주곡이 되리라.

“죄의 능력은 율법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죄인들을 정죄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례를 불복종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고한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곳에 사망도 없을 것이라는 말 씬은 확실한 말씀이다. 그리고 또한 율법이 없는 곳에는 정죄도 없을 것이다.

“사망의 보좌는 두개의 기초에 근거한다. 먼저는 정죄를 부르는 죄요, 또 다른 하나는 정죄를 선포하는 율법이다. 결과적으로 이 죄와 율법의 힘을 무력화시킨 것이 바로 구원자의 사역이다.”⁵⁷⁾

56) (15:54) C. H. Mackintosh, *The Mackintosh Treasury: Miscellaneous Writings by C. H. Mackintosh*, p. 125.

57) (15:56) Godet, *First Corinthians*, p. 446.

15:57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 사망은 그 쏘는 힘을 빼앗겨 버렸다. 어떤 쏘는 곤충이 사람을 쏘아 그 몸에 자신의 침을 남겨 놓았을 때, 그 곤충은 침을 빼앗겨 얼마 후에 죽게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침을 쏘았고 믿는 자에 관한 한 그 공포의 왕은 그 두려움을 빼앗기게 된 셈이다.

3. 부활의 빛 안에서의 결론적인 권고(15:58)

15:58 부활의 확실성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건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권고한다. 요컨대, 부활의 진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실로 이 부활의 진리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견고함을 제공하고 밀려오는 고통스런 환경과 어려움을 담대히 직면하도록 힘을 제공해준다.

5. 바울의 결론적 권고(16장)

1. 연보에 관하여(16:1-4)

16:1 16장 첫 절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곤경에 처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보냈던 연보를 다루고 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왜 이처럼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기근 때문이었다고 제시한다(행 11:28-30). 또 다른 개연성 있는 주장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유대인들은 당시 주변의 불신 친척이나 친구, 동료들로부터 배척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믿는 유대인들은 직업을 잃게 되었다.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포기하도록 수많은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였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로 이러한 부조 성격의 연보에 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권고 받았던 것과 동일하게 고린도 성도들도 반응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16:2 본문에 주어진 교훈들이 특별한 연보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연보 원리들은 영구한 가치를 갖고 있다.

첫째, 현금을 따로 떼어놓는 일은 매주 첫날에 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 교회가 더 이상 안식일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를 볼 수 있다. 주님은 주간의 첫날에 부활하셨고 오순절 날도 주간의 첫날이었으며 제자들도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에 떡을 떼려 하여 함께 모였다(행 20:7). 그들은 이제 주간의 첫날에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물질을 따로 떼어놓았다.

둘째, 연보에 관한 교훈은 각자에게 주어졌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 중에서 희생의 연보를 드려야 했다.

셋째, 연보는 체계적으로 드려졌다. 매주 첫날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였다. 연보는 아무렇게 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 헌금은 따로 떼어놓아야 했고, 일반적인 요구를 위해 특별하게 드려야 했다. 그들의 연보는 비례적으로 드려져야 했다. 이같은 원리는 ‘이를 얻은 대로 혹은 번성케 하신 대로’란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은 연보를 하되 즉흥적으로 하지 않기를 원했다. 그는 마음의 준비가 없이도 즉흥적으로 연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16:3 본절과 4절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가 연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먼저, 한 사람에게 연보 관리가 맡겨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바울 자신도 혼자서 연보를 접수받지 않았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는 일정을 바울 사도가 독점해서 잡지 않았다. 오히려 바울은 그 결정을 지역교회가 하도록 넘겨주었다. 지역교회가 기부금 전달자들을 뽑을 때, 바울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이다.

16:4 만일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그때 지역교회 형제들은 바울 사도와 함께 그 곳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가리라”가 아니라,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는 표현을 주목하라. 아마도 이는 사도로서의 바울의 권위를 암시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갈 것인지의 여부를 선물(연보)의 크기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같은 원리에 따라 인도받았다고는 우리가 믿기 어렵다.

2. 바울의 개인적인 계획에 관하여(16:5-9).

16:5 5절에서 9절까지는 바울 사도의 사적 계획을 보여 준다. 이 서신을 썼던 에베소에서 출발하여 그는 마케도니아를 지나가기를 계획했다. 거기서 그는 남쪽으로 움직여 고린도에 가기를 소원했다.

16:6-8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겨울을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은 바울을 가고자 하는 곳으로 보내게 되리라. 지금 마케도니아로 지나는 도중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없겠지만 후에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동안 그들과 함께 머무르게 되기를 고대하였다. 마케도니아를 떠나기 전에 바울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무르기를 바랐다. 고린도전서가 에베소에서 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8절을 통해 알 수 있다.

16:9 바울은 당시 에베소에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인 봉사에 관해 이 구절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는지! 한편으로는 이미 희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발이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방해공작을 하고 분당을 일삼는 사단의 끊임없는 공작이 있다는 점이다.

3. 결론적인 권고와 인사(16:10-24)

16:10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 관해 한마디 덧붙인다. 이 주님의 헌신된 종이 고린도에 온다면, 고린도 성도들은 두려움 없이 그를 영접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 말은 디모데가 천성적으로 의기소침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따라서 그들이 그같은 약한 성격을 자극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다. 또 다른 가능성 있는 해석은 디모데는 주의 종으로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영접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을 감안해 볼 때 후자의 해석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 같다.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니라.”

16:11 그리스도를 향한 디모데의 충성스런 봉사를 볼 때, 어느 누구도 그를 멸시해서는 안된다. 대신에 평안히 그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러므로 그가 적당한 때에 바울에게 돌아오도록 도와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듯 디모데와 다른 형제들과의 재결합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16:12 이제 아볼로 형제에 관해서 언급하는데, 바울은 그가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라고 수차례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아볼로는 지금은 그 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지

않으나, 기회가 되면 고린도에 방문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12절은 당시 주의 종들 사이에 있었던 사랑의 정신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값진 말씀이다. 어떤 사람은 이같은 둘 사이의 태도를 ‘시기심 없는 사랑과 존중의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일컬었다. 이 구절은 또한 주의 종들 사이에 존재하는 주님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자유를 보여준다. 실상 사도 바울조차도 무엇을 해야 할 지에 관해 아볼로에게 사도로서의 권위를 갖고 말하지 않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이언사이드(Ironside)는 이렇게 언급하였다. “나는 내 성경 중에서 본문을 찢어내고 싶지 않다.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그분의 종들이 그분의 방법으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게 해준다.”⁵⁸⁾

16:13-14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한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하며 용감하고 강건해야 했다. 아마도 바울은 재차 거짓 교사의 위협을 생각한 것 같다.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경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그들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 안에서 강해야만 한다. 모든 일에 함에 있어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헌신된 삶을 가리킬 것이다. 한마디로 이 말은 자신을 드리고 나누는 삶을 가리킨다.

16:15 다음으로 “스테바나 가정”에 관한 언급을 보자. 이 사랑스런 그리스도인들은 아가야의 첫 열매, 즉 아가야 지역에서 최초로

58) (16:12) Ironside, *First Corinthians*, p. 542.

개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 회심하자마자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굳게 작정하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로 따로 헌신했다는 말이다. 스테바나의 가정은 본서 1장 16절에 이미 언급된 바 있다. 그 부분에서 바울은 “스테바나 집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고 언급한다. 많은 사람들이 “스테바나의 집”은 아이들을 포함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유아 세례(침례)를 정당화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본문은 오히려 당시 그 가정에는 아이들이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 같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그들 모두가 믿은 후에 성도들을 섬기기로 헌신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16:16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같이 주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과 그 일을 돕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권고한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주님의 일꾼들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따로 자신을 헌신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존경을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진정 이같은 원리가 좀 더 잘 준수된다면 수많은 시기심과 분파들을 잠재울 수 있었을 것이다.

16:17 스테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코의 방문은 바울의 마음에 크나큰 기쁨을 더해 주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었다. 이 말은 그같은 일꾼들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성도들이 소홀히 했던 친절함을 보여주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아니면, 좀더 가능성 있는 말로서 고린도 성도들이 취한 바울에 대한 거리감 때문에 채울 수 없었던 어떤 면들을 위의 일꾼들이 보충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

16:18 이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소식을 받아 바울에게 전해 주었고, 역으로 바울로부터 소식을 받아 고린도 지역교회에 전달해 주었다. 다시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명하여 이같은 일꾼들에게 사랑스런 존경을 표하라고 권한다.

16:19 “아시아의 교회들”은 그 수도를 에베소로 두고 있는 아시아 도(道; 오늘날 소아시아를 일컬음)에 있는 여러 모임들을 가리킨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던 것이 분명하다. 한때 그들은 고린도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으며, 그 때문에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아굴라는 장막 만드는 사람으로서 바울과 함께 그 일을 하기도 하였다.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은 당시 모임생활이 얼마나 단순했던가를 잘 보여준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교제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일터로, 시장으로, 감옥 등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다.

16:20 모임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고린도에 있는 동료 신자들에게 사랑의 문안인사를 보내고 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수신자들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격려한다. 당시 입맞춤은 인사의 관례적인 표현이었으며, 이는 남자들간에도 실행되었다. “거룩한 입맞춤”은 겉꾸밈이 없고 불결하지 않은 순수한 인사를 의미한다. 오늘날 패역함이 만연되고 성(性)에 중독된 사회에서 인사의 표현으로서 넓게 수용되고 있는 입맞춤은 실상 심각한 유혹을 유발시키고 천박한 도덕적 실패로 이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입맞춤 대신에 악수가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사는 그리스도

인 사이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성경의 말씀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문자적인 순종이 지역 문화 요건 때문에 범죄로 인도되거나 심지어 최악의 모양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입맞춤 대신에 악수로 대치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16:21 동역자 중 한 사람에게 자신의 편지 내용을 대필하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일반적인 습관이었다. 하지만 서신 말미에 그는 손수 펜을 들어 바울의 독특한 친필로 몇 마디를 기록하면서 문안 인사말을 남기곤 하였다. 본문이 바로 이같은 바울의 습관을 보여준다.

16:22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용어는 헬라어 ‘아나테마이’를 번역한 것이다.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영별 받을 운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구세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보다도 주 예수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죄와 같다.

라일(Ryle)은 이렇게 주해하였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떤 도피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 그는 빠져나갈 구멍도,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성경 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용기가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베드로처럼 인

간이 소유한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끔찍한 죄악을 범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생명의 길에 설 수가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는 멸망으로 인도되는 넓은 길에 서 있는 것이다.”⁵⁹⁾

“오! 주여, 오소서”는 아람어 ‘마라나타’를 번역한 것으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다. 만일 ‘마라 나타’라고 띄어 읽게 되면, 그 뜻은 “우리 주님이 오셨도다”가 된다. 그리고 ‘마라나 타’라고 띄어 읽으면 “우리 주여, 오소서”라는 의미가 된다.

16:23 “은혜”는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주제이다. 그는 서신을 쓸 때 “은혜”라는 말로 서두를 시작하고, “은혜”라는 말로 말미를 장식한다. 실상 이같은 필체가 바로 사도 바울의 저작권을 증거하는 한 요인이다.

16:24 전 서신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 헌신된 바울 사도의 심장 박동을 들어보았다. 또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자녀된 성도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고하고,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왔다. 실로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부분을 읽었을 때, 아마도 그들은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인 일,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한 행위, 그 바울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돌이킨 잘못 등에 대해 크나큰 수치감과 죄책감을 뼈저리게 느꼈으리라.

59) (16:22) J. C. Ryle, *Holiness*, p. 235.

참고 문헌

- Barnes, Albert. *Notes on the New Testament*. (Vol. V, 1 Corinthians) London: Blackie & Son, n.d.
- Davies, J. M. *The Epistles to the Corinthians*. Bombay: Gospel Literature Service, 1975.
- Erdman, Charles R. *The First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29.
- Godet, F. L.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1.
- Grant, F. W. "1 Corinthians," *The Numerical Bible*. Vol. 6, Acts -2 Corinthians. New York: Loizeaux Brothers, 1901.
- Hodge, Charles. *An Exposition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ew York: George H. Doran Company, 1857.
- Ironside, H. A. *Addresses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ew York: Loizeaux Brothers, 1955.
- Johnson, S. Lewis. "First Corinthians," in *The Wycliffe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62.
- Kelly, William. *Notes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London: G. Morrish, 1878.
- Luck, G. Coleman. *First Corinthians*. Chicago: Moody Press,

1958.

Morgan, G. Campbell. *The Corinthians Letters of Paule: An Exposition of I and II Corinthians*.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46.

Morris, Leon. *The First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6.

Robertson, Archibald and Alfred Plumm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of St. Paul to the Corinthians*. Edinburgh: T. & T. Clark, 1911.

Vine, W. E. *First Corinthians*. London: Oliphants Ltd., 1951.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서문

“내가 보건대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계시의 투명성은 그 어떤 종교 문헌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다”(새들러).

1. 정경 안에서의 독특한 위치

고린도전서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연구되고 설교되는 책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고린도후서는 상당수의 설교자들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본서는 실로 중대한 서신이다. 물론 해석상의 난제와 풍자적인 문체 등이 본서를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데 일조(一助)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흠정역(KJV)과 새흠정역(NKJV)의 상당수 이탤릭 문체가 말해주듯이, 이 감정적인 서신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 준다.

실상 고린도후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서신이다. 본서에 기록된 구절의 의미가 애매한 곳이 많다. 본서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 몇 가지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1) 바울이 풍자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가 그것을 어떤 때 사용하고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다.

(2)우리가 어떤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다른 정보를 참고해야

만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바울의 정확한 선교여행 일정이나 바울의 여행 동료, 그리고 그가 쓴 다른 책들이 참고되어야 한다.

(3)본서는 극히 개인적인 서신이며, 따라서 종종 그 문체도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로 표현되어 있다. 실상 이같은 표현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그같은 해석상의 난제가 우리를 낙심시키지는 않는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본서에서 강조되는 기본 진리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끝으로 고린도후서는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서신이다. 본 서신을 공부한 후에 여러분은 왜 본서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더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2. 기자

사실상 고린도후서의 기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본서 이곳저곳에 다른 사람이 ‘씨넣은 어구’(interpolation)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서의 통일성은 명백하다(핵심 주제를 다루다가 가끔씩 지엽적으로 흐르는 바울의 전형적인 문체를 보더라도).

본서의 외적 증거는 고린도전서의 외적 자료보다는 시대적으로 늦지만 강력하다. 놀랍게도, 로마의 클레멘트는 그의 저작에서 본서를 인용하지 않고 있으나, 폴리갑,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그리고 키프리안 등은 자신의 글이나 편지에

서 본서를 인용하고 있다. 말시오은 바울의 10개 서신중에(그의 사적 견해에 의하면) 본서를 3번째 서신으로 적고 있다. 본서는 또한 무라토리안 정경 목록에도 실려 있다.

고린도후서에 관한 외적 증거 자료는 주후 175년 이후로는 풍부하다. 바울이 본서를 썼다고 하는 증거는 가히 압도적이다. 빌레몬서를 제외하고 본서는 바울의 극히 사적이고 덜 교리적인 편지이다. 바울의 매우 사적인 언급들과 바울 특유의 표현법, 그리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사도행전과의 명백한 연관성 등은 모두 바울이 본서를 기록했다는 전통적인 입장을 뒷받침해 준다. 일반적인 인식대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기자와 회중이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3. 기록 연대

고린도후서는 아마도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후 일 년이 채 못 되어 마게도냐에서 집필된 것 같다(혹자는 본서가 빌립보에서 더 빨리 씌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주후 57년경에 이 서신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이른 주후 55년이나 56년을 주장하며, 심지어 하르낙(Harnack)은 53년경의 저작설을 제안하였다.

4. 배경과 주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서가 극히 개인적인 편지라는 이유 때문이리라. 우리는 다른 서신에서도

다도 본 서신에서 바울의 심정을 좀더 친밀하게 읽을 수 있다. 우리는 본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역을 향해 품었던 경탄할 만한 열정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소명과 그 소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를 만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그가 감내했던 슬한 고난과 역경의 목록을 읽으면서 할 말을 잃게 된다. 또한 우리는 본서를 통하여 파렴치한 비판자들을 향한 바울의 분노의 섬광(閃光)을 느낄 수 있다. 요컨대, 본서를 통하여 바울은 우리를 자신의 영혼 깊숙한 비밀스러운 곳까지 안내하는 것 같다.

바울의 첫 번째 고린도 방문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 첫 번째 방문은 아테네 아레오바고(문자적으로 ‘마야스 언덕’이란 뜻)에서의 기념비적인 설교를 증거한 후(행 17장) 제2차 전도여행 중에 이루어졌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장막 만드는 자로 일하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즈음 이 전도사역에 합류하고자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테가 와서 최소한 18개월가량 함께 동역했다(행 18:11).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의 복음 설교를 거절했을 때, 바울 사도는 이제 전도 대상을 이방인에게로 전환하였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구원받게 되자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아가야 총독 갈리오 앞에 서게 하였다. 하지만 그 총독은 자신은 그 같은 종교문제에 관한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 소송을 법정에서 다루기를 회피하였다.

그 사건 후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며칠을 더 체류하였고 이어 겐 그레이아를 거쳐 에베소로 갔다. 연이어 그는 긴 여행을 하여 가이사

랴와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그는 에베소를 재차 방문하여 그곳에 2년간을 머물렀다. 이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가 파견한 형제들이 바울을 방문, 교회 내의 여러 문제들에 관한 조언을 부탁하였다. 이같은 질문에 대해 바울이 답변 형식으로 써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이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낸 편지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매우 궁금해 했는데, 특별히 범죄한 지체에 관한 징계 건에 대해 그러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는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로 가 그곳에서 내심 디도를 만나기를 고대하였다. 하지만, 디도와 의 상봉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는 바다를 향해하여 마게도냐로 갔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바울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함께 갖고 온 디도를 만나게 되었다. 실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범죄한 성도를 징계하였고, 그 결과 징계를 받은 형제는 근신하고 회개하므로 영적 회복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진정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예루살렘에서 궁핍하므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을 보내지 않았다. 그것은 좋지 못한 소식이었다. 마지막으로, 디도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 크게 활동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의 사도권에 의심을 품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이는 실로 나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이같은 상황들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 보내게 한 배경이 된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교사로서의 활동이 눈에 띄는 반면, 고린

도후서에서 그는 목회자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만일 주의 깊게 듣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심으로 사랑했고, 또한 그들의 복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한 사람의 심장의 고동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함께 이 거대한 모험을 시작해 보자. 그리고 것처럼 불타는 생각과 숨결, 그리고 말들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함과 아울러 배운 대로 실행에 옮기는데 힘쓰도록 하자.

5. 개요

1. 사역에 대한 바울의 설명(1-7장)

- (1) 문안 인사(1:1-2)
- (2) 고난 중의 위로의 사역(1:3-11)
- (3) 바울의 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1:12-2:17)
- (4) 사역에 대한 바울의 신임장(3:1-5)
- (5)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3:6-18)
- (6) 분명한 복음전파에 대한 의무(4:1-6)
- (7)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질그릇(4:7-18)
- (8)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인식하는 생활(5:1-10)
- (9) 사역에 있어서의 바울의 선한 양심(5:11-6:2)
- (10) 사역에 있어서의 바울의 태도(6:3-10)
- (11) 개방과 애정에 대한 바울의 호소(6:11-13)
- (12) 성경적 분리에 대한 바울의 호소(6:14-7:1)

(13) 고린도에서 온 희소식에 대한 바울의 기쁨(7:2-16)

2.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성취하라는 바울의 권고(8-9장)

- (1) 풍성한 연보의 좋은 본보기(8:1-9)
- (2) 연보를 성취하라는 훌륭한 조언(8:10,11)
- (3) 후한 연보를 위한 세 가지 유익한 원칙들(8:12-15)
- (4) 연보 전달을 위해 택함 받은 세 명의 형제들(8:16-24)
- (5) 바울의 사랑을 입증해 줄 것을 호소함(9:1-5)
- (6) 풍성한 연보에 대한 넘치는 보상(9:6-15)

3. 바울의 사도권 변호(10-13장)

- (1) 비난자들을 향한 바울의 답변(10:1-12)
- (2) 바울의 사역 원칙—새 지역을 개척하라(10:13-16)
- (3) 바울의 최종 목표—주님의 칭찬을 고대하라(10:17-18)
- (4) 사도권에 대한 바울의 주장(11:1-15)
- (5) 사도권을 입증해 주는 바울의 수고(11:16-33)
- (6) 사도권을 지지해 주는 바울의 계시(12:1-10)
- (7) 바울의 사도권을 지지해 주는 표(標)(12:11-13)
- (8)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했던 바울(12:14-13:1)
- (9) 고린도 성도들에 의해 입증된 바울의 사도권(13:2-6)
- (10)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유익을 구함(13:7-10)
- (11) 바울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13:11-14)

1.

사역에 대한 바울의 설명(1-7장)

1. 문안 인사(1:1-2)

1:1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한다. 처음부터 이같은 자기소개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진정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도였느냐에 대한 의문이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은 자력(自力)으로 그 사역을 선택하거나 어떤 인간에 의해 사도직을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하도록 보냄을 받았다고 답변한다. 그가 받은 사도직의 소명은 다택섹 도상에서 이루어졌다. 그가 경험한 주님의 사역에의 부르심은 평생에 걸쳐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수많은 고통 중에도 그로 하여금 사도직을 감당하게 만든 원동력도 이같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종종 큰 압박에 시달렸을 때, 그가 만일 이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있지 못했다면 그는 벌써 그 사역을 포기했을 것이다.

디모데가 1절에 언급되었다고 해서 본 서신을 쓰는데 그가 관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단지 본 서신을 쓸 당시 그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할 뿐이다. 실상 바울과 함께 한 그 기간 동안 디모데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본 서신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전달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속한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이방인의 모임도, 어떤 비종교적인 집단의 모임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와 주님께 속하게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무리를 일컫는다. 의심할 바 없이 바울이 이같은 단어들을 기록했을 때, 그는 처음에 어떻게 고린도에 갔었고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상기했을 것이다. 우상 숭배와 성적 부도덕에 젖어 살던 남녀 무리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후에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온갖 곤란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마음은 의심 없이,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온 놀라운 변화를 생각하며 기뻐하였다. 고린도 전서는 단지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수신자였다. ‘아가야는 그리스 남단에 위치해 있는 반면, 본서에 나오는 마게도냐는 같은 나라인 그리스의 북단에 위치하고 있었다.

1:2 “은혜와 평강”이라는 문안 인사 형식은 사도 바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표현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가장 큰 열망을 묘사할 때, 그는 그들에게 금이나 은 같은 물질적인 것들이 더해지기를 소원하지 않았다. 그는 이같은 물질적인 복은 쉽사리 사라질 것임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도리어 하늘로부터 불

쌍한 죄인들에게 임하는 모든 선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복을 간구하고 있다. 데니(Denney)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다. “은혜는 복음의 첫마디 말이자 끝맺음하는 말이다. 그리고 완전한 영적 충만을 내포하는 평강은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이다.”¹⁾ 이같은 영적인 복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주어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영적 복락의 원천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복락의 통로이시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2. 고난 중의 위로의 사역(1:3-11)

1:3 3절부터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신에게 임한 위로에 대해 감사로 그 심령이 크게 감동되었음을 묘사해 준다. 의심할 바 없이 그 위로는 마게도냐에 있는 그에게 디도가 가져온 좋은 소식이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환난을 당하던 위로를 받든 그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그 벽찬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졌다. 이같은 표현이 신약성경에 나온 하나님께 붙여진 완전한 칭호이다. 그분은 더 이상 구약에서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지 않았다. 이제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묘하게도 이 이름은 주 예수께서 공히 하나님이자 인간이시라

1) (1:2) James Denney,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p. 11.

는 위대한 진리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이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 준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 준다.

게다가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다. 실로 모든 자비와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

1:4 모든 환난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를 인식하였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위로하셨는지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고난 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에게 있어 ‘위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그 단어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는 곤란 중에 처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격려와 권면을 가리킨다. 이 구절 속에는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 배워야 할 교훈이 들어 있다. 고난 중에서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그같은 위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환자 방문을 꺼리거나 초상집에 가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 곁으로 언제든지 찾아가야 한다. 우리는 편안하기 위해(comfortable)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 위로자(comforter)가 되기 위해 위로를 받은 자들이다.

1:5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위로

가 하나님을 위해 감내하는 고통의 분량과 동일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코 구세주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을 가리키지 않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께 대한 신앙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다. 그들은 주님께 대한 신앙과 복음전파 때문에 비난과 거절, 학대, 증오, 부인, 배신 등을 당할 수 있다. 이것들을 그리스도의 고난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그같은 고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몸인 지체들이 당하는 고난을 함께 감내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하는 제반 환난 중에 주님도 함께 그 환난에 동참하신다(사 63:9). 그러나 여기서 바울의 강조점은 이같은 고난에 대해 풍성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위로가 동일하게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이다. 그리고 이 위로는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고, 또한 우리가 받은 고난과도 비교되지 못할 만큼 풍성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다.

1:6 사도 바울은 그가 받는 환난과 위로가 유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환난과 위로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거룩케 되었다. 만약 그가 환난을 받았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가져다주었다. 여기서의 구원은 영혼구원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인내를 통해 용기를 얻었고 도전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도움의 손길을 끼쳤듯이, 그분은 또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사무엘 루터포드(Samuel Rutherford)는 자신

이 역경의 포도주 저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가 흔히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의 최고급 포도주를 찾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는 고통 가운데서도 항상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본을 통해 그러한 삶의 자세를 배웠던 것 같다.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넘치는 위로를 제공했으며, 불굴의 인내를 견지할 것을 고무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능히 바울과 같이 동일한 핍박을 극복하게 했을 것이다. 극도의 시련을 경험해 본 자만이 동일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독자(獨子)를 잃은 어머니는 그와 같은 일로 좌절해 버린 또 다른 어머니에게 더 좋은 위로를 할 수가 있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사람들을 향하여 최고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다.

1:7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같이 또한 그리스도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고난만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고난 후에 항상 그리스도의 위로가 임한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이러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현대어성경(Living Bible)은 3절에서 7절까지를 다음과 같이 의역해 놓았다.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모든 자비의 근원이시며 곤란과 역경 가운데 처한 우리를 매우 놀랄만한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

은 다른 성도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즉 우리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도움과 위로를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곤경에 처한 우리를 위로해 오셨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당신에게 역시 도움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당신을 얼마나 온유하게 위로하시는지 당신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인내할 힘을 당신에게 주실 것이다.”

1:8 환난과 위로에 대해 일반적인 어투로 말해온 바울은 이제 최근에 그가 경험했던 혹독한 시련에 대해 매우 독특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았다(이 당시 아시아는 대륙이 아니라 지금의 소아시아의 서쪽에 있는 한 지방을 가리킨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환난은 무엇이었는가? 아마도 그것은 에베소에서 발생한 위험천만한 소동이었을 것이다(행 19:23-41).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고린도로부터 들려오는 실망스런 소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실상 이 한 절만으로는 정확한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환난이 사도 바울을 매우 무겁게 억눌렀으며, 삶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정도의 보통 인간의 힘으로는 견디기 힘든 매우 혹독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필립이 이 절을 의역해 놓은 것은 도움이 될 만하다.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것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상의 고통이었다. 사실상 우리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1:9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심정을 가질 정도로 현재 펼쳐진 상황이 그의 눈에는 매우 가혹한 것이었다. 만약 누군가가 “살게 될 것 같습니까, 죽게 될 것 같습니까?”라고 물었다면 그는 죽게 될 것이라고 대답해야만 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울을 극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은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바울과 같이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다.

1:10 흥정역(대다수의 사본들과 같이)을 보면 “건지심”(deliverance)을 세 가지 시제로 표현하였다. “건지셨고”(과거), “건지시리라”(현재), “건지시기를”(미래).²⁾ 만약 여기서의 환난이 에베소에서의 소동이라면 바울은 이 구절에서 그때 어떻게 갑자기 그 소동이 중단되었고, 그 소동으로부터 어떻게 그가 위기를 모면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행 20:1).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를 건지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를 건지실 수 있으시며,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그 최종적이고 찬란한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를 건지실 것을 알고 있었다.

1:11 여기서 바울은 관대하게도 그가 극도의 시련을 겪고 있는 동안 고린도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비난했고, 그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를 기억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대단한 의문점이

2) (1:10) 가장 오래된 헬라어 비평 사본은 하나의 과거와 두 개의 미래 시제를 갖고 있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기꺼이 은혜를 주고자 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표현은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의 은사를 말한다. 그는 위경 가운데서 구출 받은 것을 성도들의 중보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고 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어 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3. 바울의 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1:12-2:17)

1:12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기도를 의지할 수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가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 항상 정직히 행해 왔기 때문이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얼마나 흠 없이 대했는지를 자랑할 수 있고, 그의 양심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투명한 진실성을 바탕으로 행동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람의 지혜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로 행했다. 이것은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명한 사실이었을 것이다.

1:13 이 전에 그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얼마나 흠 없이 대했는가는 또한 서신서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쓰고 있다. 따라서 그의 편지 속에는 어떤 숨은 뜻을 찾을 필요가 있는 내용이 없었다. 그 내용은 밝히 드러났고 단순하며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 읽고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끝까지, 즉 살아있는 한 그것을 계속해서 알기를 바라고 있다.

1:14 고린도 교회는 부분적으로 바울을 알고 있었다. 즉 몇몇의 성도들은 바울을 알고 있었지만 모두 다는 아니었다. 충성스런 신자들은 “주의 날”에, 그들은 바울의 자랑이 되고 바울은 그들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주의 날은 특별히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가 평가되고 보상받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고대하게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고대할 때마다 늘 그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그의 즐거움이요, 기쁨의 면류관이 될 것이며, 반대로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주님의 도구라는 사실에 대해 기뻐할 것이다.

1:15 “이 확신을 가지고”라는 표현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사도로서 뿐만 아니라, 그의 진실함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로서 기쁘게 여겼을 것이라는 확신을 의미한다. 그는 그들의 신뢰, 존경, 애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고자 했다. 그는 먼저 그들에게 이르렀다가 마게도냐로 가서 다시 마게도냐로부터 그들에게 가고자 했었다. 이처럼 “두 번 은혜”는 사도 바울의 두 번에 걸친 방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16 본문은 “두 번 은혜”에 대해 더 잘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것처럼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를 떠난 후,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는 아가야로 건너와 다시 북쪽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한 뒤 다시 남쪽에 위치한 고린도에 오고자 했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가 다시 유대로 가고자 할 때 그는 고린도 성도들의 도움을 원했다. 아마도 그것은 물질적인 도움이 아닌 그들의

환대와 기도의 도움이었으리라. 그것은 그가 그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고후 11:7-10).

1:17 바울의 초기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는데 거기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여정 가운데에 고린도를 생략한 채 마게도냐로 곧장 갔다. 그래서 본절에서 그는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라고 묻고 있다. 아마도 그의 비난자들은 “변덕스러운 바울! 그는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군!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사도일 수 있을까”라고 비난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가 진정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에 대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다. 그가 계획할 때, 한 번은 ‘예’, 그 다음은 ‘아니오’라는 결과로서 육체의 동기에 의해 계획했던가? 아니면 단지 편리와 비용을 고려한 계획이었던가?

필립(Phillips)은 본문의 주된 의미를 잘 포착하고 있다. “계획을 변경해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를 변덕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내가 ‘예’ 그리고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불성실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18 바울은 그의 여행계획에 관한 내용으로부터 그의 설교에 관한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아마도 그의 대적자들이 만약 바울의 평상시의 대화에 신뢰감이 없다면 그의 설교 또한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것 같다.

1:19 바울은 그가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어떠한 동요도, 어떠한 변화도 없는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처음에 실루아노, 디모데와 더불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설교했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었기에 확고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어떤 누구도 그의 대적들이 비난했던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는 없다. 데니(Denney)는 이렇게 언급한다.

“여기서 바울의 논지는 외식주의자들에 의해 이용되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어떤 비평가도 바울의 논지를 날조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설교한 바울이 감히 어떻게 자신의 말에 불충실할 수 있겠는가?

1:20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된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는 인생 저변에까지 이르고, 믿음은 하늘 위까지 다다른다. 실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우리 소유로 삼을 수 있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아멘’하는 신앙적 사고방식이다.”³⁾

3) (1:20) H. W. Cragg, *The Keswick Week*, p. 126.

이 모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데니(Denney)는 이렇게 언급한다. “인간 최대의 상상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인간 영혼들에게 도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그 선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여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은 바로 실루아노, 디모데,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설교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그의 대적들의 말처럼 만약 바울이 사기꾼이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인 바울을 통해 그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겠는가? 바울은 결코 사기꾼이 아니다.

1:21 바울은 본절에서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이 같은 생명의 다발로 묶여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들을 세우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견고케 하셨다. 그분은 또한 자격을 부여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시는 성령을 선사해 주셨다.

1:22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그들의 마음에 주셨다.” 본문에는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이 나타나 있다. “인침”은 소유와 안전의 표시이다. 믿는 자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은 믿는 자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영원히 안전하다는 증표이다. 인침은 물론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사람들은 우리가 달고 다니는 일종의 뺨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보증”으로서, 또는 전체 유산을 소유하게 된다는 일종의 계약서로서 성령을 그들 마음에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가 성령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장차 하나님의 전체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런 종류의 축복들이 미래에는 완전히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1:23 본절부터 2장 4절까지 바울은 그의 계획 변동에 대해 말하면서 왜 그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어떤 누구도 바울의 행동에 대한 내적 동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만약 바울이 예정대로 고린도를 방문했다면 거기서 벌어진 상황을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처리했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는 교회 안에서 죄를 용납하는 그들의 부주의함에 질책을 가해야만 했을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방문을 미뤘던 것은 그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다 주기 싫어서였다.

1:24 하지만 그와 같이 말한 후에 사도 바울은 어떤 누구도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독재자로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그를 독재자로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오직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로서, 즉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기쁨을 더하여 주

기를 원했다.

본절의 후반부는 또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너희가 굳게 서 있음이라.” 즉, 그들은 믿음에 관한 한 수정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방면에 있어서 이미 확고하게 서 있기 때문이다.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그들의 행실이였다.

2:1 본문은 1장의 마지막 두 절의 내용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 바울은 추가적으로 그가 고린도에 가지 않았던 이유가 그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생겨날 근심을 그들에게 안겨다 주기를 원치 않아서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라는 말은 사도행전 18장 1-17절에 기록된 첫 번째 방문 이후의 바울이 겪었던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또다른 방문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임시 방문이 있었다는 사실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3장 1절을 통해서도 역시 추측할 수 있다.

2:2 바울이 만약 책망할 목적으로 고린도에 갔다면 그는 물론 그들을 근심케 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자신이 즐거움을 찾는 유일한 대상이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바울 또한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이리(Ryrie)는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약 내가 너희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근심하는 너희들 이외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남아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것은 결코 기쁨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2:3 개인적인 방문으로 인해 서로에게 근심을 가져다주느니 차라리 바울은 편지를 쓰기로 했다. 바울의 소원은 그 편지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주어 고린도 성도들이 범죄한 형제에게 처벌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다음 방문이 그가 매우 사랑했던 고린도 성도들과 꺾끄러운 관계로 인해 근심 가운데 행해지지 않는 것이었다.

본절의 초반부에 언급된 편지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서를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편지를 의미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편지가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많은 눈물로 썼다는 4절의 표현을 볼 때 고린도전서일 리가 없다고 믿는다. 다른 학자들은 본문의 표현이 첫 번째 서신(고린도전서)과 잘 들어맞는다고 느낀다. 또한 그것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엄한 편지일 가능성도 있다. 아마도 그는 슬픈 방문(고후 2:1) 이후에 그것을 썼을 것이고, 디도에게 그 편지를 전달토록 했을 것이다. 아마도 고린도후서 2장 4,9절; 7장 8,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그 편지일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견해가 옳든지 간에 본문에서의 주요 내용은 바울이 그들을 방문했을 때 자신에게 기쁨을 주어야 할 그들이 근심하게 됨으로 그 또한 그로 인해 근심하게 될까봐 편지를 그들에게 썼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면 그들에게 또한 기쁨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본문 가운데 이 구절은 처벌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뤘을 때 결과적으로 상호간에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의미이다.

2:4 본문에서 우리는 위대한 목자의 심령을 잘 살펴볼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죄가 용납되고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그 사실이 그로 하여금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그의 뺨을 적실 정도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죄가 고린도 성도들보다 바울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 편지를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닌,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증거로써 이해해야만 한다. 그는 편지를 씌으로써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그러한 상황에서 돌이키기를 바랐다. 그렇게 했을 때 그의 다음 방문이 즐거운 방문이 될 것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친구가 잘못할 때 따끔한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방법대로 권면이나 경고를 받는다면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권면을 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올바른 책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고맙게 여겨야 한다.

2:5 5절부터 11절까지에서 바울은 그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켰던 사건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바울이 보이고 있는 풍성한 은혜와 사려 깊음을 주목하라. 바울은 한 번도 범죄의 내용이나 범죄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 지라도”라는 표현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근친상간 죄를 범한 사람이거나, 교회 가운데 문제를 일으킨 어떤 누군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대부분은 전자로 추측할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개인적인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느 정도 모든

성도들에게 근심을 가져다주었다.

2:6 고린도 성도들은 그 범죄자에 대한 처벌 조치에 대해 동의했다. 분명히 그들은 그를 교회로부터 추방했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고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사람의 처벌이 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불필요하게 그것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본질의 후반부에는 “많은 사람에 의해 벌 받은 것”이라는 표현이 있다. 몇몇은 “많은 사람”(the many)은 대다수(the majority)를 의미한다고 믿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벌 받은 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후자의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대다수의 결정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곳에서는 만장일치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7-8 그 사람이 완전히 회개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은 그를 용서하고 다시 교제권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를 격려해 주어야만 한다. 만약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많은 근심에 빠질 위험이 있다. 즉, 용서받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빠져 계속해서 우울함과 낙심 가운데 거하게 될지도 모른다.

고린도 성도들은 팔을 넓게 벌려 기쁨과 자비심으로 다시 그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사랑을 그에게 재확신시킬 수 있다.

2:9 고린도 성도들에게 첫 번째 서신서를 쓰면서 바울은 그들을 시험코자 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전해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기회였다. 그는 그때 당시 그들에게 그 범죄자를 교회의 교제권 밖으로 쫓아낼 것을 제안했었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순종을 입증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것에 대해 말하게 될 것이다.

2:10 필립(Phillips)은 본문을 다음과 같이 의역하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면 나머지 그를 향한 나의 용서 또한 보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용서한 일이 있다면, 주 앞에서 그를 용서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회개한 범죄자를 용서할 때 비로소 자신과 그들과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됨을 고린도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만약 그가 용서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을 위함이며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본절은 교회 징계에 관한 중요한 지침이 된다. 그러나 이 징계는 많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거의 무시되고 있는 주제이다. 이 징계야말로 우리가 성경의 영감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이해득실에 따라 정작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또 다른 실례가 되고 있다.

2:11 범죄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교회 가운데 위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실로 회개한 범죄자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도 위협이 있게 된다. 사단은 언제나 교활한 수법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 전자의 경우에 그는 묵인된 죄를 통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파괴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개한 사람을 극도의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할 것이다. 사단은 범죄에 의해 파괴할 수 없다면 극도의 슬픔을 통해

파괴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가 그 궤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는 표현을 설명하면서 시들로우 백스터(J. Sidlow Baxter)는 이렇게 말한다.

“사단은 영혼들을 진리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온갖 종류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체로 걸러내기 위한 청구(눅 22:31), 속이기 위한 궤계(고후 2:11),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잡초(마 13:22), 음모를 꾸미기 위한 간계(엡 6:11), 공포를 주기 위한 사자의 포효(벧전 5:8), 속이기 위한 천사의 가장(假裝; 고후 11:14), 그리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올무(딤후 2:26)가 있다.”⁴⁾

2:12 바울은 이제 4절에서 그만 둔 그의 계획 변경에 대한 주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 그는 전에 예고했던 것처럼 고린도로 가지 않았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책망이라는 엄한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12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은 그의 사역의 이와 같은 중요한 시점에서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있다.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로부터의 소식을 듣기 위해 드로아로 갔다. 그가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을 열어 주셨다.

2:13 이러한 황금 같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심정은 편치 않았다. 디도를 거기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가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억눌렀다. 그가 드로아에 머물러서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했을까? 아니면 마게도냐로 길을 재촉해

4) (2:11) J. Sidlow Baxter, *Awake My Heart*, taken from the Nov. 10 reading, “Intoxication with Error.”

야만 했을까? 이미 결정은 내려졌다. 그는 마게도냐로 가고자 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바울의 삶에 있어서 씬이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행실 때문이었고, 결국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부끄러움을 느꼈을까?

2:14 바울은 패배하지 않았다. 주를 섬김에 있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는 승리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갑자기 감사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로버트슨(A. T. Robertso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설명할 필요 없이 바울은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새처럼 기쁨의 고지로 도약하고 있다. 그는 마치 밑에 보이는 계곡을 비웃는 독수리처럼 높이 치솟고 있다.”⁵⁾

본문은 바울이 로마 정복자들의 승리의 행렬을 연상하고 있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승리 후에 고국으로 입성하면서 그들은 포로들을 이끌고 주요 거리를 행진할 것이다. 군인들은 길 양편을 따라 행진할 것이며 그 향기가 온 거리를 따라 퍼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정복자로서의 주님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까지 행진하면서 바울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그분의 종을 통한 승리가 있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바울을 통하여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

마이어(F. B. Meyer)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5) (2:14) A. T. Robertson, *The Glory of the Ministry*, p. 32.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었다. 그의 고귀한 인격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은은하게 다가오는 미묘한 향기를 인식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그들을 나사렛 예수께로 이끌게 했다.”⁶⁾

이와 같이 바울은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셨으며, 그는 그것을 공유했다고 말하고 있다.

2:15 승리의 행렬에 있어서 그러한 향기는 정복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포로들에게는 심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생기는 두 개의 상반된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 구원 얻는 자들과 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영광스러운 미래의 보증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징조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광을 받으신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있어서 전자의 경우는 은혜의 향기요, 후자의 경우는 공의의 향기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마이어(F. B. Meyer)는 본문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주님의 고매한 인격을 더 알고 사랑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공기 중에 뿌려진 형언하기 어려운 향기를 인식하였고, 그 향기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였다.”⁷⁾

2:16 구원 얻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

6) (2:14) Frederick Brotherton Meyer, *Paul*, p 77.

7) (2:15) Frederick Brotherton Meyer, *Paul*, p 78.

는 냄새가 된다. 필립(Phillips)이 말한바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불어넣는 향기가 되어 그들을 영생으로 이끌게 하지만 믿기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어 심판으로 이끌게 한다.” 이러한 정반대의 두 가지 결과는 구약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죽음과 파멸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 언약궤가 다시 오벧에돔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가정에는 축복과 번영을 가져오게 하였다. 바울은 그러한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는 복음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2:17 16절과 본절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바로 우리가 아닌가!”라는 말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바로 우리가 아닌가!” (그러나 본절은 바울이 그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났다고 언급하고 있는 3장 5절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수다한 사람”이란 고린도 성도와 사도 바울을 이간질하려고 했던 유대 교사들을 지칭하고 있다.⁸⁾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말인가?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고 돈을 버는데 이용했으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돈을 별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을 직업적으로 악용하려고 했다.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은 포도주에다 종종 다른 것을 섞어 마시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사용된다. 결국 이들 거짓 교사들은 그들 자신의 교리들을 첨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

8) (2:17) 대부분의 사본들은 매우 강력한 표현인 ‘나머지 사람들처럼’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같은 말은 고린도후서에서 종종 발견되는 바, 과장법으로 쓰인 것이다.

하게 하려고 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율법과 은혜를 혼합하려고 했다.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당당히 그의 사역을 4가지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첫째는 “순전함으로”이다. 이것을 ‘투명함으로’라는 말로 달리 표현할 수 있다. 그는 정직한 사역자였다. 그것과 관계해서 어떠한 거짓도 어떠한 속임수도 없었다. 모든 것은 공개적으로 행해졌다. 로버트슨은 이 구절의 의미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바울이 빛은 딸기즙은 윗부분과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의 맛도 훌륭했다.”⁹⁾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것같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가 말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의 메시지의 근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메시지를 전파할 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능력을 덧입을 수 있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주를 섬기되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注視)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했다는 의미이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으며 어떤 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밀히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바울이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대변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사역에 대한 바울의 신임장(3:1-5)

9) (2:17) Robertson, *Ministry*, p. 47.

3:1 2장 17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그의 사역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4가지 특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이것이 몇몇 사람들, 특히 그의 대적들에게 마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처럼 들려질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본장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다시’라는 말은 그가 전에 자신을 칭찬했다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은 그가 자신을 칭찬하고 있다고 말하는 대적들의 비난을 암시해 주고 있고, 지금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그러한 비난이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부치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2장 17절의 거짓 교사들을 말한다. 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천거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왔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를 떠날 때 그 교회로부터 다시 천거서를 부여받았을 것이다. 천거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사용되었던 초대교회 시대의 관행이었다. 바울은 본절에서 결코 그러한 관행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들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입증할만한 유일한 수단이 바로 그들이 지니고 다녔던 천거서라는 것을 암암리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천거서가 없다면 그들은 결코 그 어떤 다른 수단으로도 자신을 입증시킬 수가 없었다.

3:2 고린도 교회에 왔던 유대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주의 진실한 종이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아마도 유대 교사들은 바울이 후에 고린도에 방문했

을 때 그로부터 천거서를 요구하기 위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를 향한 의심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그는 이미 앞절에서 그러한 천거서가 필요한지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고린도에 와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아니었던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가 진실한 사도임을 입증시켜 준 사람도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었던가?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모든 사람이 읽고 알고 있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쓰여진 편지였다. 그에게 있어서는 펜과 먹으로 쓰여진 편지가 필요 없다. 그들이 바로 그의 사역의 열매였고 애정의 대상이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변화가 모든 지역에 알려질 정도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소식에 대해 알고 있었고 또 접해 왔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고, 그러한 변화는 그들을 우상으로부터 주께로 인도했으며, 그들은 지금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 자신이 바로 바울 사역의 분명한 증거였다.

3:3 얼핏보면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의 편지라고 말했던 2절과 상반된 것 같다. 여기에서 그는 그들을 주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다. 앞에서는 편지를 그의 마음에 썼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주께서 고린도 성도들 마음 가운데 썼다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을까? 고린도 성도들이 그의 천거서라고 말하고 있는 2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본문은 2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두 절을 다음과 같이 연결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고 명백히 선언되었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천거서였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도구로 사용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바로 바울의 천거서였다.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이라는 표현 속에 그러한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지만 바로 그것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였다.

바울의 대적들이 사용했던 천거서가 먹으로 쓰여졌던 반면 바울의 편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다. 물론 잉크는 바래지고, 지워지며, 부패되기 쉬운 반면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쓰여진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주의 편지가 돌비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육의 심비에 쓰여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린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도시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비석에 새겨진 주님의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편지와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바울이 돌비와 심비(心碑)를 대조했을 때 그는 틀림없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마음에 두었을 것이다. 물론 율법은 시내 산에서 돌비에 새겨졌었다. 하지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쓰여진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하여 순종을 보증하신다. 바울은 단지 본문에서 그것에 대한 암시만 주었을 뿐 앞으로 더 자세히 이 주제에 대해 다룰 것이다.

3:4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주께로부터 부여받은 사역에 대해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누구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바울, 당신은 어떻게 감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은 확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여기서의 확신은 하나님의 면밀한 조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한다). 그는 그와 같은 확신을 자기 자신이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고린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신 역사 안에서 그의 사역의 진실성의 증거를 발견하고 있다. 고린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바울의 사도권을 지지해 준다.

3:5 다시 본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어떠한 자격도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의 사역의 능력은 바울 자신으로부터가 아닌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만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만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 것도 이를 수가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5.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3:6-18)

3:6 자신의 신임장과 자격에 대해 언급하면서 바울은 이제 그러한 사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한다. 다음에 계속되어질 구절들에서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 설명하고 있다. 그

가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타당한 이유가 있다. 고린도에서 그를 매우 맹렬히 비난했던 자들은 유대인들이었다. 이들은 율법과 은혜를 혼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충분히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의 일부분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옛 언약과 비교하여 새 언약의 우위성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충분케 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물론 언약은 약속이자, 동의이며 또는 서약이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한 법률 체계이다. 율법 하에서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일종의 계약이었다. 다시 말해 만약 사람이 그의 도리를 다한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일종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동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의’를 이룰 수 없었다. 반면에, 새 언약은 복음이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은혜에 근거하여 사람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축복할 것을 약속하신다. 새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옛 언약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 몇몇 두드러진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우선 본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고 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단지 성경의 표면적인 문자에만 몰두한다면 정작 당신은 그 본문에서 말하는 진정한 뜻이 아닌 글자 자체에 순종하려 할 것이고 결국 그것은 당신에게 도움이 아닌 해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그들은 십일조에 있어서 매우 꼼꼼하고 세심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마 23:23). 이것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례에 불과하지 정확한 해석은 아니다.

본절에서 의문은 모세의 율법을, 영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언급하고 있다. 바울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라고 말할 때 그는 율법의 사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은 그 가운데 기록된 계율을 지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징죄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20).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10). 하나님은 결국 생명을 주기 위해 율법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죄 되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새 언약은 본문에서 ‘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것은 모형이자 그림자인 옛 언약의 완성이다. 율법이 요구했지만 이를 수 없었던 그것을 지금 복음은 이루고 있다.

데이비스(J. M. Davies)는 다음과 같이 요약 설명하고 있다.

“사망으로 이끄는 의문의 사역은 옛 언약을 부여했던 시내 산에서 삼천 명을 죽였지만 생명으로 이끄는 성령의 사역은 오순절 날에 삼천 명을 구원했다.”¹⁰⁾

3:7 7절과 8절은 계속해서 두 개의 언약을 대조 설명하고 있다. 특별히 여기서는 율법과 은혜가 가져다주는 영광을 대조하고 있다. ‘영광’과 ‘영광스러운’이란 말은 3장과 4장에 걸쳐서 17번 기록되고 있다. 옛 언약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십계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십

10) (3:6) J. M. Davies, *The Epistles to the Corinthians*, pp. 168,169.

계명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선포했다. 바울은 율법과 관계해서 결코 영광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 본문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분명히 나타났다. 사실, 모세가 거기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을 때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에 투영(投影)되어 빛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 너무 눈이 부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영광은 없어질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빛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없어질 영광이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옛 언약의 영광은 일시적이었다는 것이다. 율법은 매우 제한된 기능을 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드러내 보여준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영광스럽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때까지이다. 율법은 그림자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의 실체가 밝히 드러났다.

3:8 율법이 이처럼 영광스럽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영의 직분”은 복음을 말한다. 하나님의 영은 복음 전파를 통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역사한다.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에서 “있지 아니하겠느냐”는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 하나의 사실과 조건이 존재한다면 나머지 사실은 당

연히 뒤따르게 된다.

3:9 여기서는 옛 언약을 “정죄의 직분”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율법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의미한다. 어떤 누구도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해서도 영광이 있었다.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했었고 유용했었다. 그러나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핫지(Hodge)는 말한다. “의의 직분은 의를 드러내어 사람들을 정당화하고 율법에 의해 선고받은 저주로부터 자유케 한다.”¹¹⁾ 복음의 영광은 육신적인 시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시야를 통해서만이 볼 수 있는 깊고 영원한 찬란함을 가지고 있다. 갈보리의 영광은 시내산의 영광을 압도한다.

3:10 비록 어떤 면에서 율법이 영광스러울지라도 새 언약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결코 영광스럽지 못하다. 본질은 두드러진 대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즉, 두 개의 언약이 나란히 공존하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월등하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능가한다. 로버트슨(A. T. Robertson)은 말한다. “더 큰 영광이 더 작은 영광을 무력케 한다. 새 언약의 넘치는 영광, 이 한 가지 사실에 있어서 옛 언약은 결코 영광스럽지 못하다.”¹²⁾ 데니는 “태양이 그 영광을 나타낼 때 하늘에는 어떠한 영광도 존재할 수가 없다”¹³⁾고 설명한다.

11) (3:9) Charles Hodge, *A Commentary on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p. 61.

12) (3:10) Robertson, *Ministry*, p. 70.

13) (3:10) Denney, *Second Corinthians*, p. 123.

3:11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영광을 가지고 있는’-with glory)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영광중에서도 영광스러운’-glorious in glory) 있느니라.” 우리는 “...으로”(with)와 “...중에”(in, 우리말 성경에는 ‘가운데’로 되어 있음)이라는 두 개의 전치사를 주목해야만 한다. 본문은 율법도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새 언약의 한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옛 언약은 영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다.

본문은 또한 율법의 일시성과 복음의 영원성을 대조 설명하고 있다. ‘없어질 것’은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직분”(고후 3:7). 본문은 의식적인 법이 폐하여진 것이지 율법이 폐하여진 것은 아니라는 안식교의 주장을 반박하는 구절이다.

3:12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복음의 영광은 결코 시들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담대한 확신을 말한다. 이러한 강한 확신 때문에 바울은 담대히 말하고 있다. 숨길 어떤 것도, 가장할 어떤 이유도 없다. 오늘날의 많은 종교들은 신비에 가려져 있다. 새로운 신도들은 장막에 가려진 채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만 한다. 그들은 서열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지침을 전달받는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분명하고 공개되어진다. 복음은 구원과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주제를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한다.

3:13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

라.”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34장 29-35절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주와 대면한 후에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얼굴의 영광 때문에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고 그들은 그에게 접근하였다. 그때 그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계명으로서 그들에게 주었다. 출애굽기 34장 33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을 수 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본절에서 바로 바울은 모세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찬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점점 없어져 가는 영광이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율법은 일시적인 영광을 띠고 있었다. 그때조차도 그 영광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이 그것의 결국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다. 모세는 영광 자체를 가리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일시성을 가리기를 원했다.

그랜트(F. W. Gran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또 다른 분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에게 그 권한을 양도해야만 한다.”¹⁴⁾ 그리고 이같은 양도는 주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성사되었다. 결론적으로 새 언약의 일꾼은 그의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다. 복음의 영광은 결코 빛이 바래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14) (3:13) F. W. Grant, “2 Corinthians,” *The Numerical Bible*, VI:547.

3:14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그렇게 했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여러 세기를 걸쳐 오는 동안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 심지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그 당시에도 그들은 구원의 수단으로서 여전히 율법에 집착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하지 않았다.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다시 말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던 그 당시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을 때에 모세가 수건을 썼던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율법의 영광은 일시적이며 그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기서 수건(veil)이라는 말은 번역자에 의해 첨가된 것이기에 이탤릭체로 되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그것은 수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옛 언약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또한 좀 더 개연성 있는 해석으로서 구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오면 해결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홉지(Hodge)는 본문을 적절히 잘 설명하고 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고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만이 알기 쉽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구약의 모든 베일이 밝혀진다.”¹⁵⁾

3:15 여기서서는 표현을 약간 달리 하고 있다. 구약에서는 수건이 모세의 얼굴을 가렸지만 여기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덮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갈보리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

15) (3:14) Charles Hodge, *Second Corinthians*, p. 71.

어진 구원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율법이 전적으로 그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와 자비의 주님 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들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3:16 본절의 주체는 이스라엘의 개개인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전체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주께로 돌아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든지 할 때만이 그 수건은 벗어지며 모호함은 사라질 것이다. 만약 여기서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키고 있다면 로마서 11장 25-26,32절에서 예언된 것처럼, 본절은 나머지 믿는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미래의 어느 기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3:17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열쇠임을 강조해 왔다. 본절에서도 바울은 “주는 영이시니”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진리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새흙정역(NKJV)을 포함한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영’(Spirit)을 ‘성령’(the Holy Spirit)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계 19:10)에서처럼 주님을 구약의 영(the Spirit)으로 언급하고 있다. 구약의 모든 모형과 그림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된다. “주의 영¹⁶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곳에는 자유함, 즉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구약을

16) (3:17) 새흙정역(NKJV) 번역자들은 ‘영’이란 단어를 성령을 가리킨다고 보아 대문자로 표기하였다(the Spirit). 오래된 필사본들도 모두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읽을 때 모호함으로부터의 자유, 수건 없이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3:18 옛 언약 아래에서는 오직 모세만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서는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하기를 마친 이후에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려야 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버림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에게 온전히 정직함을 유지함으로써 우리 얼굴에 씌어진 수건을 벗을 수 있다. 우리는 한 노련한 인도 선교사가 한 말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는 죄와 믿게 만들려는 수건을 벗어야 하고, 제반 그럴듯한 행동을 버려야 하며, 모든 비현실적인 싸움을 벗어버리고, 모든 타협의 시도와 모든 치우친 판단과 모든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의 수건을 벗어야 한다.”

다음 단계는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거울”은 주의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얼굴과 얼굴로서 대면할 수는 없지만 거울을 보는 것같이 성경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주의 영광”에 주목하라. 여기서 바울은 지상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도덕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우편에 높이 오르신 현재의 그분의 영광을 마음에 두고 있다.

데니(Denney)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분은 아버지의 왕권을 공유하고 계신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로, 주인이며,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의 제공자가 되신다. 또한 다가올 세상의 심판자요, 모든 대적자들의 정복자가 되시며,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이시다. 간단히 말해 그분은 그분의 왕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소유주가 되신다.”¹⁷⁾

높이 보좌 위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 한 마디로 본질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비밀이다. 주의 영광에의 몰입, 다시 말하지만 나 자신의 영광에의 몰입이 아니다. 그것은 패배만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광에의 몰입도 아니다. 그것은 실망을 안겨다 줄 것이다. 오직 주의 영광에의 몰입을 통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

본질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 과정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단계의 영광에서의 다른 단계의 영광으로의 이동을 나타내 준다. 그것은 즉각적인 변화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한 그러한 경우는 없다. 그것은 과정이지 급작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율법의 점점 없어져 가는 영광과는 같지 않게 점점 증가하는 영광이다.

이러한 놀라운 과정에 있어서 능력의 근원은 바로 성령이시다. 우리가 영광의 주를 바라보고, 그분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경이롭게 주시하게 될 때 주의 영은 우리를 점점 주와 닮아가게 함으로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

다비(Darby)는 스테반이 주의 영광을 봄으로써 어떻게 변화했는지

17) (3:18) Denney, *Second Corinthians*, pp. 139,140.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보며 돌에 맞은 스테반을 통해 그러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스테반도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렸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또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테반 또한 동일한 말을 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테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한 것이다.”¹⁸⁾

새 언약의 탁월한 영광을 생각해 보자. 옛 언약 아래에서는 오직 모세 한 사람만이 그의 얼굴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오늘날 그것은 피로 값 주고 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갖는 특권이다. 또한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 모두는 실제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 모세의 얼굴은 단지 투영된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우리는 내부로부터의 변화된 영광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바울은 마지막으로 옛 언약과 비교했을 때 갖는 새 언약의 다소 신비롭고 심오한 의미에 대해 다루면서 끝맺음하고 있다.

18) 18 (3:18) J. N. Darby, *Notes on I and II Corinthians*, pp. 189,190.

6. 분명한 복음 전파에 대한 의무(4:1-6)

4:1 본장의 1절에서 6절까지 바울은 모든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될 엄숙한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복음의 메시지와 그 전파는 베일로 가려질 필요가 없다. 어떤 것도 숨겨져서도, 미심쩍어서도 안 된다. 모든 것이 분명하고, 정직해야 하며, 진실해야 한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는지에 대해 말해 왔었다. 그는 이제 그러한 사실로부터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직분이 갖는 놀라운 가치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결코 낙담할 수 없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있어서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 그러한 순간에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주신다. 그러므로 때로는 절망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격려는 언제나 더더욱 크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 그는 어려운 장벽에 부딪혔을 때도의 기소침하지 않고 용감하게 행동했다.

4:2 필립(Phillips)은 본문을 아주 알기 쉽게 의역해 놓았다.

“우리는 속임수나 간교한 계략,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조작하지 않는다.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천거한다.”

여기에서 바울은 틀림없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마음에 두고 있다. 그들의 방법은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사단의 권세, 즉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歪曲)시켰으

며, 속임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라는 후반절을 통해 바울은 분명히 거짓 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일거리(율법과 은혜를 혼잡하려 애쓰는)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

바울의 방법은 매우 달랐다. 다음의 구절 속에 그러한 방법이 잘 나타나 있다.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첫째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것을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삶 가운데 우리의 행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바울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했다. 그는 복음을 전파했고 삶 가운데 복음을 실천했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그 자신을 천거하려고 했다.

4:3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말로나 행함에 있어서 매우 주의했다고 말해 왔다. 만약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며 바울 또한 그것이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지 않기를 원했다. 바울은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망하는 자들이다. 왜 그들은 이처럼 눈이 멀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4절에서 제시한다.

4:4 사단이 바로 그 주범(主犯)이다. 그는 계속 수건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우고 있다. 그는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영원한 어둠으로 몰고 갈 것이다.

물질세계에 있어서, 태양은 언제나 빛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우리 사이에 개입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복음의 광채는 언제나 빛나고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비취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사단은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다양한 장애물을 개입시킨다. 그것은 교만, 대적, 자기 의, 또는 수많은 다른 종류의 먹구름일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요컨대, 사단은 단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기를 원한다.

복음은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 그것은 나사렛의 목수도 아니며, 단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다. 바로 죽으시고, 장사된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분은 믿는 자의 믿음의 대상이다. 실로 그분은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4:5 본절은 가장 보잘것없는 주제와 가장 가치 있는 주제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가장 보잘것없는 주제는 우리 자신인데 반해 가장 가치 있는 주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그러한 무리로부터 그를 구별하고 있다. 그는 그런 가치 없는 주제를 설교함으로써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는 사람들을 주께 굴복시켜 그분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힘을 다해 애썼다.

바울은 그의 동료 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너희의 종”으로 소개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자신과 그의 동료들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단지 종일 따름이었다.

4:6 바울은 한 죄인의 회개를 새벽녘에 빛의 비침으로 비유하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칠 것을 명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창 1:3).

이제 바울은 본절에서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칠 것을 명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빛을 비취셨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사실이다. 태초에 하나님은 빛이 비칠 것을 명하셨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에 있어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다. 얼마나 인격적인가!

창세기 1장 초반부에서의 사건은 새로운 창조에 있어서의 모형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죄 없는 몸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로 전락(轉落)하고 말았다.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은 마치 태초에 수면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은 그가 죄인이라는 것과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취주신다. “창세기에 물질 창조는 빛과 함께 시작되는데, 영적인 창조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취주시고 그 후에 영적인 삶이 시작된다.”

본절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취주시는 지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 흠정역(KJV)과 새흠정역(NKJV)에서는 “예

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기 위해”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는데 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J. N. 다비는 그의 새번역본에서 본절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계속적으로 비춰지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러한 지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의 종착점이 아니라 통로이다.”

바울의 삶을 통해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다. 그는 자신이 중요하고 유대인의 무덤에 묻혔다고 생각한 그분이 바로 영광의 주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이후부터 그는 밖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7.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질그릇(4:7-18)

4:7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할 책임에 대해 말하면서 이제 바울은 놀라운 복음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인간 도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보배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메시지이다. 한 편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인간의 몸이다. 둘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복음은 사방이 밝게 빛나고 있는 값비싼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러한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

해 보라!

“흙집 나고 추한 질그릇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부(富)를 담았다네.
밝게 빛나는 하늘 보배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아래 성도들에게 계시되었다네!

허기진 갈증의 수많은 세월 속에 깨지고 가냘픈 질그릇이
아낌없는 손에 의해 풍요를 받았도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신 그분의 소중한 아드님을!

오, 텅 빈 채로 초라하게 외면당한
무명(無名)의 보잘것없는 질그릇!
허나, 하나님은 그 질그릇을 성결케 하사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으로 온전히 채워주셨네!
무가치한 티끌이 영광의 구름으로 휩싸이네!
무가치한 인간의 희미한 빛이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네!
전파하세,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사역을!
깨지고 텅 빈 질그릇이 주님으로 채워진 기이한 역사를!”

(프랜시스 비벤).

왜 하나님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있게 하셨을까? 그것은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간 병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하고 불품없

는 인간들에게 복음을 수여하셨다. 모든 영광과 존귀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임무가 부여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그러한 임무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분명한 것은 영광이 우리가 아니라 그분에게 돌려지게 된다.”(휴튼).

조우엣(Jowett)은 말한다.

“배가 보물보다, 상자가 보석보다 더 주의를 끄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액자가 그림보다, 요리에 사용된 기구가 음식보다 더 첫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강조이다. 능력의 탁월함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러한 탁월함은 매우 덧없이 지나가고, 풀처럼 빠르게 시들며 잊혀져간다.”¹⁹⁾

바울이 본절을 썼을 때 그는 틀림없이 사사기 7장에 기록된 한 사건을 생각하고 있었으리라. 거기에는 기드온이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로 무장한 장면이 나온다. 약속된 순간에 그의 군사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야만 했다. 항아리가 깨졌을 때 그 횃불은 밝게 빛났다. 이것은 적들을 두렵게 했다. 그들은 단지 삼백 명이 아닌 많은 군사들이 쫓고 있다고 생각했다. 기드온의 경우와 같이 항아리가 깨져야만 횃불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간 병기가 깨지고 주께 굴복될 때만이 복음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매우 장엄하게 빛을 발할 수 있다.

19) 19 (47) J. H. Jowett, *Life in the Heights*, p. 65.

4:8 바울은 계속해서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모든 외적인 상황은 약하지만 실상은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가 의미하는 바는 바울이 계속적으로 역경과 고난으로 압박을 받았지만 복음을 자유로이 전하는 데에는 결코 방해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울은 자주 그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를 절망의 순간까지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결코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제공해 주신 적이 없다.

4:9 “뺨박을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때때로, 그는 그의 목뒤에서 대적들의 격렬한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를 대적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셨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가 뜻하는 바는 바울이 매번 부상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런 복음을 위해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이다.

새성경주석(New Bible Commentary)은 8절과 본절을 다음과 같이 의역하고 있다.

“둘러싸임을 당하여도 좌절하지 아니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쫓기지만 결코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자주 엎드러지지만 결코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그런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셨는지 궁금해 할 수 있다. 우리는 바울이 만약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웠다면 주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의 입장을 가르치고 있다. 지혜에 부요하신 하나님은 그의 종들이 질병, 슬픔, 곤란, 핍박, 역경, 그리고 빈곤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신다. 모든 것이 질그릇이 깨짐으로 복음의 불빛이 더 환하게 비춰지게 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4:10 주의 종의 삶은 계속적으로 죽음에 넘겨지는 삶이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폭력과 핍박에 넘겨지신 것처럼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주의 종들 또한 같은 상황에 부딪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 우리가 매일 이처럼 죽음에 넘겨질 때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만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예수의 생명”은 지상에 있을 때 사람으로서의 그분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존귀를 얻으신 아들로서의 그분의 현재 생명을 의미한다. 그분이 오늘날 육체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볼 수 있을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써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4:11 생명과 죽음에 대한 주제가 본절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심오한 원칙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먹는 고기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동물들의 죽음을 통해서이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교회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기란 어려운 일이다. 폭력이 주님의 종들에게 닥치게 될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비극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다루심의 방법이다. 그것에 예외란 없다. “예수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죽음에 넘기우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4:12 본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생명이 그들에게 나타나기까지 그가 경험한 계속된 역경(逆境)에 대해 상기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언급해 온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다. 복음과 함께 고린도로 가기까지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역경을 경험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었다. 바울의 육체적인 고통과 손실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로움을 가져다주었다. 로버트슨은 말한다. “그가 자신을 죽음에 넘기움으로 그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입게 되었다.”²⁰⁾

때때로 우리는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울부짖는다. 그러나 우리는 삶 가운데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연약함에 있을 때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 때문이다.

20) (4:12) Robertson, *Ministry*, p. 157.

4:13 바울은 보배가 담겨져 있는 깨지기 쉽고 연약한 인간 질그릇에 대해 언급해 왔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패배하고, 낙담하며, 당황했던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삶의 고난 너머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신념이 바울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다.

시편 116편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그는 주를 믿었고, 그래서 그가 말한 모든 것은 깊이 자리잡은 믿음의 결과였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그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시편 기자가 가졌던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말한다.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바울의 삶 가운데 비록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결코 그는 입을 다물지 않았다. 진실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결코 침묵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에 대해 분명히 말하라.
비록 티끌과 같이 낮아질지라도,
만약 당신이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라.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를 영접했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지체하지 말고, 분명히 말하라.”

4:14 바울이 계속되는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본

절은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그는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음을 알았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살리시고 런던도 성도들과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4:15 그의 앞에 놓인 부활의 확실한 소망으로 인해 바울은 혹독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다. 그는 모든 고난이 두 가지 측면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 런던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했고, 그러한 은혜가 많은 사람들의 감사함으로 더욱 넘쳐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들 두 가지가 바울이 말하고 행한 모든 것에 있어서 동기로 작용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과 그의 동료 신자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바울은 자신이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더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감사가 하나님께 돌아갔다. 그리고 더 많은 감사가 하나님께 돌아갈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을 받으신다.

현대어성경(Living Bible)은 본절의 주된 의미를 잘 의역해 놓은 것 같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결국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 그리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감사가 주께 돌아가며 그 결과 주님은 더욱더 영광을 받으신다.”

4:16 바울은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위협을 감내했다고 말해 왔었다. 그러므로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

비록 한편으로 겉사람(육체)은 계속해서 후패해 갔지만 다른 한편으로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됨으로 바울은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몸)를 보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있어서 날마다 힘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다. 미켈란젤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리석이 닳아 없어질수록 조각상은 더욱더 제 모습을 갖추게 된다.”

아이언사이드(Ironside)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 신체는 매 7년마다 완전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우리는 들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변하지 않은 동일한 인격체를 갖고 있다. 실로 우리 인품은 나이가 들어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 이는 장차 올 큰 변화, 즉 주님이 오셔서 몸이 변화될 때조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컨대, 애벌레 속에 있던 바로 그 생명이 동일하게 나비 속에도 있는 법이다.”²¹⁾

4:17 바울이 겪었던 혹독한 고난에 대해 읽은 후에 그가 어떻게 그러한 고난을 가벼운 환난으로 말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하기란 다소 어려운 부분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환난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매우 고통스러웠으며 잔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해답은 바울이 표현한 대조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한 환난이 매우 중하게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앞에 놓인 영원한 영광의 중(重)함과 비교했을 때 그것

21) (4:16) H. A. Ironside, 더 이상의 자료는 없다.

은 가벼운 것이다.²²⁾ 또한 환난의 경(輕)함은 잠시 받는 것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결국 장차 가게 될 세상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이다.

무어헤드(Moorehead)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약간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장차 가게 될 그 나라에서는 기쁨 속으로 빠져들어 갈 것이다. 이 세상이 몇 방울의 물방울이라면 그 나라는 거대한 바다와 같다.”²³⁾

이 구절에는 마쉬(F. E. Marsh)가 지적한 대로 피라미드 구조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오르는 자는 결코 피곤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오르는 자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안식과 위로를 제공해 준다.

“영광

영광의 중한 것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²⁴⁾

4:18 “돌아보는 것”이란 단순히 인간 시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중요한 무엇과 관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이는 것”에 관한 한 그것은 인간 존재의 목표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란 바

22) (4:17) 히브리어에서 ‘영광’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겁게 되는’이란 어근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아마도 바울의 말씨를 암시하는 것 같다.

23) (4:17) William C. Moorehead, *Outline Studies in the New Testament: Acts to Ephesians*, p. 191.

24) (4:17) F. E. Marsh, *Fully Furnished*, p. 103.

울이 겪었던 역경과 고난, 그리고 고통을 말한다. 이것들은 바울의 삶에 흔히 있는 일이었다. 그의 사역에 있어서 거대한 목표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은 영광 가운데 있는 주님이 그의 동료 신자들에게는 축복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는 상급을 수여하게 될 그런 때를 포함할 것이다.

조우엣(Jowett)은 언급한다.

“첫 번째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시력(sight)이다. 반면에 두 번째 영역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통찰력(insight)이다. 첫 번째를 보게 하는 능력은 자연적이나, 두 번째 영역을 전망하는 능력은 영적이다. 첫 영역에 있어 중심 되는 기관은 지성이나, 두 번째 영역을 분별하는데 있어 중심 되는 기관은 믿음이다. …성경 전반을 통해 시력과 통찰력의 대조는 지속적으로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판단해 볼 것은 교훈 받는 곳마다, 한 영역의 빈약함과 인색함이 다른 영역의 충만과 확장을 초래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²⁵⁾

8.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인식하는 생활(5:1-10)

다음에 전개될 내용들은 전에 언급한 것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바울은 현재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그의 앞에 놓인 미래의 영광에 대해 말해 왔다. 바울이 죽을 때 그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죽음의 장막 집에 관한 언급 중 하나를 접하

25) (4:18) Jowett, *Life in the Heights*, pp. 68,69.

게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 죽음의 장막 집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배우게 된다.

5:1 바울은 현재의 유한한 육체에 대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라고 말한다. 장막은 영원히 거주할 수 없는, 나그네와 순례자에게는 잠시 거처할 장소이다.

실로 죽음이 찾아올 때에야 비로소 이 장막 집에서 벗어나게 된다. 장막은 죽음의 순간에 무너지게 된다. 육체는 무덤으로 들어가지만 믿는 자의 영혼은 주께로 돌아간다.

바울은 “만약 땅에 있는 장막 집이 무너지면(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환난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본장을 시작하고 있다. 장막(tent)과 집(building)의 차이에 주목하라. 일시적인 장막은 무너지지만 영원한 집은 하늘 저편에서 믿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것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다.

더욱이, 그것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다. 왜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까? 우리의 현재의 몸 또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우리의 미래의 영광스런 몸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라고 강조했을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은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 육체가 이 땅에서의 삶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반면에 우리의 미래의

영광스런 육체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본절에서는 또한 믿는 자의 미래의 몸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더 이상 질병, 부패, 그리고 죽음이 없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존재하게 될 육체를 말한다.

본절은 마치 신자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집을 받게 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 신자는 주님이 교회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곧바로 영광스런 몸을 입게 될 것이다(살전 4:13-18). 이같은 영광스러운 사건이 믿는 자에게 장차 있을 일이다.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의식적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의 육체는 무덤에 묻히게 된다. 주가 재림할 때, 그 잿더미는 무덤으로부터 나와 영광스러운 육체와 영혼으로 새롭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죽음 후부터 주님의 재림의 기간까지 신자는 영혼과 몸이 분리된 상태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결코 하늘나라의 축복과 기쁨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의식할 수 있다!

1절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세 가지 해석에 관한 것이다.

- (1) 하늘나라 그 자체.
- (2) 죽음과 부활 사이의 중간적인 육체.
- (3) 영광스런 육체.

집은 그 자체로 하늘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1절)과 “하늘로부터”(5:2)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다. 중간적인 육체에 관해서 성경은 결코 언급한 적이 없다. 더욱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은 하늘에서의 영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적인 육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광스런 부활의 몸이라는 세 번째 견해가 올바른 것 같다.

5:2 이러한 죽을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제한과 방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종종 탄식하게 된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 것이다.

여기서는 마치 바울이 장막 집으로부터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처럼 보인다.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가 장막 만드는 일을 했고 장막에 사용된 비슷한 재료가 옷을 만드는데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바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5:3 “벗은 자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의 옷을 입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혹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보상도 없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죽음과 부활 사이에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울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죽음도, 그리고 죽음 후에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도 아니라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화하게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 날이다.

5:4 3절에 대한 이같은 해석이 타당한 이유는 바로 4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함이라.” 다시 말해 바울이 간절히 사모했던 것은 죽음과 믿는 성도들의 소망인 부활 사이의 상태가 아니라 성도들이 더/이상 사망에 지배받지 않는 몸으로 화하게 될 그런 환희의 순간이었다.

5:5 “이것, 즉 몸의 부활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이것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영광스런 목적의 절정이 될 것이다. 현재는 우리의 영혼이 구속받았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몸 또한 구속을 받게 될 것이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 영광스런 상태를 이루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장차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인지를 확신할 수 있을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는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보증이다. 성령님은 장차 이루어질 것의 증표이다. 하나님의 영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주신 것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인이 되신다.

5:6 바울이 항상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귀중한 사실에 대한 굳은 확신 때문이었다. 그는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

는 줄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바울이 바라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만약 그가 이 땅에서 주를 섬길 수 있고 성도들을 도울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5:7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와 따로 거한다는 충분한 증거이다. 우리는 결코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적이 없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분을 볼 수 있다. 우리가 몸에 거하는 한, 우리는 실제 보이는 삶보다는 덜 가까울 뿐 아니라, 친밀하지 못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5:8 본절은 6절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서 그것을 보충하고 있다. 바울은 그의 앞에 놓인 소망을 생각하노라면 담대함이 있었고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는 버나드(Bernard)의 말처럼 하늘 본향에 대한 향수병을 가지고 있었다.

본절은 사도 바울이 전에 말해 왔던 내용과 다소 모순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다. 전에 진술한 내용에서 바울은 영광스런 몸을 고대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있다. 즉, 죽음과 휴거 사이에 존재하는 육체가 없는 상태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모순된 것은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그 중에 어느 것을 가장 선호하느냐이다. 첫째는 죽을 육체 가운데 있는 지구상에서의 현재의 삶이다. 둘째는 죽음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육체가 없는 상태, 그러나 의식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다. 마

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화할 구속의 완성이 되는 상태가 있다. 바울은 여기에서 첫 번째 상태도 좋고 두 번째 상태도 좋지만 세 번째 상태가 가장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5:9 믿는 성도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만 한다. 구원은 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장차 주어질 보상은 그의 신실함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믿음은 구원과 관계가 있고, 행위는 보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는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일단 구원을 받았다면 선행에 열심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다”고 한 말을 주목하라. 이것은 그가 지구상에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든지 그의 섬김의 목적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5:10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각각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 문제이다. 새영어성경(NEV)은 본질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낱알이 공개될 것입니다.” 진료실에 가는 것과 X-ray를 찍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께 대한 우리의 모든 섬김의 삶이

공개될 것이다. 섬김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숨은 동기도 모두 드러날 것이다.

회심 이후의 죄들은 물론 우리의 섬김에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성도들의 죄는 다시 심판 받지 않을 것이다. 심판은 이미 19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 그분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 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죄를 다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요 5:24).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주께 대한 우리의 섬김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결하는 심판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보상과 손실이 주어지는 심판을 말한다.

9. 사역에 있어서의 바울의 선한 양심(5:11-6:2)

5:11 본절은 보통 바울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지옥의 공포에 대해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주요 의미는 그렇지 않다.

바울은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주를 섬기고 기쁘게 하는데 열심 내게 했던 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공개된 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의 완전함과 신실함을 알기를 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의 사역자들로서 우리의 완전함과 신실함에 대해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든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고린도 성도들의 양심에도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설명이 본질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5:12 즉시 바울은 그가 위에서 말했던 것이 자기 자랑으로 오해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어떤 누구도 자신이 그러한 자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그가 전에 자신을 칭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로 과거에 비난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깨우치기 위한 말이다.

왜 바울은 그의 사역에 대해 여러 말로 변호해 왔던가? 바울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는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의 면전에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 날카롭게 비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를 향한 거짓교사들의 공격에 어떻게 답해야할지 알기를 원했다. 그런 까닭에 그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성도들의 면전에서 자신을 비난하게 될 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의 대적들을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다(삼상 16:7). 다시 말해 그들은 내면의 실제성, 진

실성, 그리고 정직함보다는 외면의 겉으로 나타난 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외모와 언변(言辯), 그리고 외관상의 열정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부였다. “형식주의자들은 외모가 모든 것이고 마음의 진실성은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

5:13 본절을 통해 볼 때 바울은 정신 이상자, 광신자,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정신 장애자로서 비난받았던 것 같다. 그는 데니(Denny)가 말한바 정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대적들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도 바울에게는 주께 대한 깊은 헌신이었다. 그는 주를 위해 열정을 쏟아 부었다. 이에 반해서 그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 본절이 말하는 바는 간단히 말해 바울의 모든 행동은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든가 아니면 성도들의 축복을 위한 열정이었다.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그의 동기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 중심적이었다. 과연 그의 대적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5:14 바울의 삶을 살펴보는 사람들은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열정적이고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게 했는지 궁금해 하게 된다. 그의 서신서들의 가장 위대한 부분 중에 하나인 본절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준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크리스마스 쇼핑객 무리 속에 떠밀려 가듯이 우리를 강권하고 떠미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이다.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생각했을 때 주께 헌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을 때 우리의 대표로서 죽으신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분이 죽으셨을 때 우리 모두는 함께 죽었다.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의 죄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이 된 것이다(롬 5:12-21; 고전 15:21-22).

5:15 바울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그렇다면 왜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을까? 왜냐하면 그분은 믿음으로 살아난 자들이 이제 다시는 그들 자신이 아닌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소하고 개인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삶이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양도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데니(Denney)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그분과 같게 하기 위해서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우리를 그분과 같게 하는 것이 그분의 죽음의 진정한 목적이다.”²⁶⁾

5:16 아마도 바울은 본절에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인 그의 대적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12절을 다시 언급

26) (5:15) Denney, *Second Corinthians*, p. 199.

하는 것 같다. 이제 그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침으로써 다시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외모, 경력, 국적에 따라서 육체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주의 피값으로 산 바 된 소중한 영혼으로 본다. 심지어 전에는 그가 주를 육체대로, 즉 단순히 한 사람으로 알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나사렛 마을에 사는 이웃으로서, 또는 지구상의 메시아로서 아는 것과 현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광스런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는 그분이 지구상에 계실 때 그분을 외모로 판단했던 유대인들보다 성령을 통하여 그분을 더 친밀하고 밝히 알고 있다.

데이비드 스미스(David Smith)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록 그분이 한때 지구상의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이상을 공유했었지만 지금은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개념에 붙잡혀 있다. 육체가 아닌 영에 의해서, 역사적인 전통이 아닌 즉각적이고 생생한 교제에 의해서 알려진바 된 바로 보좌 위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²⁷⁾

5: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구원을 받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회심 이전에 사람들은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변했다. 옛날의 판단 방법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것이 되었다.

본절은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 종종 개인적인 증거물로 인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인용할 때 종종 매우

27) (5:16) David Smith, 더 이상의 자료는 없다.

그릇된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다. 이 구절을 듣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옛날 습관, 악한 생각, 그리고 악한 모양이 영원히 없어지며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새롭게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는 본질이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본질은 성도들의 행위가 아닌 지위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에 주목하라.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매우 핵심적인 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 불행히도 “내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살게 될 때 나의 행위 또한 점차적으로 나의 지위에 맞게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두 가지는 온전히 일치하게 될 것이다.

5: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분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시다. 인간에게는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다.

‘새 간추린 성경사전’(A New and Concise Bible Dictionary)은 ‘화목’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을 잘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화목케 되었으며, 거룩하고 정죄함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더불어 화목케 하셨고, 인간에

게 그 죄악을 돌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밝히 나타났고, 그 십자가의 증거는 전 세계로 전파되어 사람들에게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할 것을 요청한다.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기쁨을 취하실 것이다.”²⁸⁾

5:19 화목케 하는 직책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라는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이 구절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둘 다 성경적으로 옳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신다”는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신다는 뜻이다.

어떤 해석을 선택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리함으로써 그분과 인간 사이의 불화의 원인을 제거하셨다. 하나님은 화목할 필요가 없지만 인간들은 화목할 필요가 있다.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처음 읽을 때 본절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만인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위배된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셨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방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었지만 그가 만약 주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용이 없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죄는 분명히 그들에게 돌아간

28) (5:18) *A New and Concise Bible Dictionary*, p. 652.

다. 그러나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은 순간 그들은 의롭게 되며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 받게 된다.

그분의 화목케 하는 사역 이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분의 종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 다시 말해 그분은 복음을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놀라운 특권을 그들에게 위탁하셨다. 그러한 신성한 책무를 천사가 아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5:20 앞 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는 5장 20절부터 6장 2절까지 화목에 대한 요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제안하고 싶다. 다시 말해 바울은 그가 여러 나라와 대륙에 가게 되었을 때 불신자들에게 전파했던 복음을 들려주고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바울은 본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이다. 바울이 본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그가 가는 곳마다 불신자들에게 전파했던 복음이라는 것이다.

“사신”(使臣)은 외국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직분은 고상한 직업이라고 말한다. 본절에서도 자신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절로 비유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 간청하신다. 이것은 사신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신과 화목케 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슬픈 눈으로 간청하신다는 측면에서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적

개심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 편에서이다. 하나님은 모든 장벽을 제거하셔서 그분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신다. 주님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다. 이제 사람들은 반역의 팔을 내리고, 완고한 태도를 버리며,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5:21 본절은 우리에게 화목에 대한 교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준다. 하나님은 어떻게 화목을 가능케 하셨을까? 어떻게 그분은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실제적으로 처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죄가 있었다는 견해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한 견해는 거짓된 것이다.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넘겨졌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에게 죄를 지우신 것이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 의를 알지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 우리 언어로는 이 끝없는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 없을 것이다.

6:1 어떤 사람들은 본절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풍성히 누릴 것을 격려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내용이라기보다 바울은 여기서 불신자들에게 설교했던 말씀을 재차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미 불신자들을 향하여 그러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한층 더 간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결코 복음의 씨앗이 메마른 땅에 떨어지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구세주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러한 놀라운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

6:2 바울은 지금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고 있다. 그 문맥을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7절에서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거절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분의 거절은 결국 그분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8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응답했고 그분을 돕고 보호할 것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보증하고 있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담고 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구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은 도래한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구원받지 못한 청중들에게 선포하고 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꾸어 말하면 이사야가 구원의 날로서 예언한 그 시기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날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지금 구세주를 믿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10. 사역에 있어서의 바울의 태도(6:3-10)

6:3 여기서 바울은 그가 설교했던 말씀으로부터 화제를 전환하여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대한 그의 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언제나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변명거리를 찾는, 게다가 그들이 그 변명거리를 설교자의 모순된 삶에서 찾을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역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거리끼지 않게 했다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여기서의 사역은 몇몇 고귀한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반적인 섬김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인간에 의한 성직 수여식 따위는 배제되고 있다. 이 사역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된다.

6:4 4절부터 10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추구했던 방법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같은 방법과 태도는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가장 훌륭한 주의 종이었고 그러한 호칭을 받을만한 가치 있는 방법으로 행동하기를 항상 힘썼다는 것을 인식하라.

데니는 이 부분에 대해 훌륭히 묘사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되는 일들을 숙고할 때 바울에게 심오한 샘플이 터졌다. 처음에 그 사안들을 숙고할 때는 곤란 중에 있어서 단지 서로 상관없는 말들을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사고는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제한 없이 자신의 영혼을 쏟아놓을 수 있게 된다.”²⁹⁾

4절과 5절은 바울이 견뎠던 육체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성실하고 신실한 주님의 종임을 입증해 주었다. 그 다음 두 구절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보여준 은혜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전형적인 정반대의 경험들을 나열하고 있다.

“많이 견디는 것”은 틀림없이 성도 개개인과 지역교회들을 향한,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데 있어 그의 확고한 의지를 동요시키려고 했던 모든 핍박을 향한 바울의 오래 참음을 묘사하고 있다.

“환난”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뎌야 했던 실제적인 박해를 언급할 것이다.

“궁핍”은 음식, 의복, 숙박 등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그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나타내 주고 있다.

“곤란”은 당연히 그가 종종 처하게 됐던 어려운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

6:5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매맞음”으로 고통을 겪었다.

그의 “간힘”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요란한 것”은 틀림없이 그가 복음을 전한 후에 종종 뒤따랐던 폭동과 소동을 가리키고 있다(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말씀은 가장 격렬한 분노를 일으켰다).

바울의 “수고로움”은 아마도 장막을 만드는 일과 다른 형태의 육체노동, 뿐만 아니라 그의 여정까지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29) (6:4) Denney, *Second Corinthians*, p. 230.

“자지 못함”은 바울이 사단의 간계와 그를 헤치려는 적들의 시도에 대항하여 계속적으로 빈틈없는 경계를 해왔다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다.

“먹지 못함”은 자발적인 금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마도 빈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굶주림을 의미할 것이다.

6:6 바울은 “깨끗함”, 즉 순결과 신성함으로 그의 사역을 수행했다. 어느 누구도 그가 부도덕하다고 고발할 수 없다.

그는 또한 “지식”으로 그의 사역을 수행했다. 이것은 아마도 그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무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지식에 의해 행해왔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서신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의 넓이는 이러한 사실을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의 “오래 참음”에 대해 어떤 증거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와 실패에 대해 그가 끈기 있게 인내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되고도 남기 때문이다.

바울의 “자비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의 헌신, 성도들을 향한 애정어린 태도, 그리고 동정어린 행실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성령의 감화”라는 표현은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성령의 능력과 성령에 좌우되어 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짓 없는 사랑”은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매우 두드러졌던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결코 거짓되고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것은 그의 모든 행동에 잘 나타나 있

다.

6:7 “진리의 말씀”은 바울의 모든 사역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해졌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것은 그가 설교한 진리의 말씀과 언행이 일치된 사역을 했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성령의 능력 안”은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을 의지하여 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그가 사도였기에 그에게 권능으로 부여된 기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몇몇 사람들은 제안한다.

“의의 병기”는 에베소서 6장 14-18절에서 잘 묘사해 주고 있다. 이것은 반듯하고 견실한 인물상을 연상케 한다. 어떤 이는 “의로 옷 입혀진 사람은 난공불락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죄가 없다면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공격도 시도하지 못하게 된다.

“좌우하고”라는 표현의 정확한 뜻을 아는 것은 쉽지 않다. 가능성 있는 설명 중의 하나는 고대 전투에서 칼은 오른쪽에, 방패는 왼쪽에 갖췄는데 그때의 칼은 공격적인 전투를, 방패는 방어적인 전투를 나타내 주었다.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여 사도 바울은 여기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인물상은 최고의 공격과 방어를 갖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6:8 8절과 9-10절에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섬김에 있어서 발견되어지는 몇몇 두드러진 대조들을 묘사하고 있다. 진실한 제자는 산꼭대기와 계곡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놓여 있는 모든 영역을 경험한다. 그것은 영광과 욕됨, 승리와 표면상의 패배, 칭찬

과 비난의 삶이다. 하나님의 진실한 증은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의 대상이 된다. 어떤 이는 그의 열정과 용기를 칭찬하는 반면 어떤 이는 단지 그를 비난할 따름이다. 그는 속이는 자 또는 협잡꾼으로 취급을 받는 것 같지만 모든 것에 참되다. 그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진실한 증이다.

6:9 어떤 점에서 바울은 세상에 관한 한 알려지지 않았고, 인정받지 못했으며, 오해도 받았지만 하나님과 그의 동료 신자들에게는 유명한 자였다.³⁰⁾

그의 삶은 매일 죽어 가는 것 같았지만, 보라, 그는 살았다! 위협당하고, 추격당하고, 쫓기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는 결국 자유를 얻어 더욱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이것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에서 더 강조되고 있다. “징계 받는”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의해 받았던 학대와 관계가 있다. 아마도, 매번 그들은 이제는 그의 떠들썩한 삶이 종식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지 그가 다른 도시들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따름이었다.

6:10 이 사역과 관련하여 근심이 있었지만 바울은 항상 기뻐하였다. 그것은 물론 복음의 거절, 성도들의 실패,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근심이였다. 그러나 그가 주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항상 위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

30) (6: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라는 문구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버금하게 전세계에 걸쳐 폭넓게 사역한 존 다비(John Nelson Darby, 1800-1882)의 묘비에 새겨져 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소유물에 관한 한 가난한 자였다. 그가 재산과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사역을 통하여 부요케 된 삶을 생각해 보라! 비록 그가 소유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였다.

로버트슨(A. T. Robertson)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이같은 전환의 문장 속에서 바울로 하여금 그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은 마치 구름 속에 섬광을 발하는 번개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³¹⁾

11. 개방과 애정에 대한 바울의 호소(6:11-13)

6:11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향하여 마음을 넓힐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그는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공공연하고 솔직하게 말해왔다. 입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발산하기 때문에 바울의 열려진 입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그의 애정 어린 넓은 마음을 나타내 주었다. 이것이 본질의 일반적인 뜻이라는 사실을 다음 구절이 잘 보여준다.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즉, 그들을 사랑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토저(A. W. Tozer)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바울은 거대한 내적 삶을 지닌 작은 사람이었다. 그의 넓은 마음은 그의 제자들의 편협함으로 종종 상처를 입었다. 그들의 움츠러진 영혼의 시야는 바울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하였다.”³²⁾

6:12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 사이의 애정에 제한을 가한 것은 그

31) (6:10) Robertson, *Ministry*, p. 238.

32) (6:11) A. W. Tozer, *The Root of the Righteous*, 1955.

가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이다. 그들이 바울을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였던 것을 보면 아마도 그들은 바울을 향하여 사랑을 제한했던 것 같다.

6:13 만약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랑에 보답하기를 원한다면(그는 자신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를 향하여 애정의 마음을 더 넓혀야 한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정말 그를 아버지로서 사랑해야만 한다. 물론 하나님만이 이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허락해야만 한다.

모팻(Moffatt)은 11-13절의 주요 내용을 잘 포착해 번역했다.

“오, 고린도 성도들이여,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제한도 가지 않았습시다. 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넓혀져 있습니다. 제한이라고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말하는데, 이제 좀 공정합시다! 저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12. 성경적 분리에 대한 바울의 호소(6:14-7:1)

6:14 13절과 본절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의 애정을 넓힐 것을 말했다. 이제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죄와 불의로부터 단호히 떠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리라.

신명기 22장 10절에서는 동등하지 못한 명에 대해 언급하고 있

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겨리하여 갈지 말며.” 소는 정한 동물이었고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보폭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와는 반대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게 될 때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된다(마 11:29-30).

고린도후서의 이 부분은 분리에 대한 주제를 다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 중의 하나이다. 신자들은 불신자, 불법, 어둠, 벨리알, 우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은 분명히 결혼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떤 신자가 구원받기 전에 이미 불신자와 결혼한 상태일 경우 이 본문은 분리와 이혼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혹시나 그 불신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결혼 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고전 7:12-16).

본절은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과 동업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분명히 비밀 사회단체 또는 협동단체에 적용된다. 그리스도께 충성한 사람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

본절을 사회생활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다. 즉,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된 쾌락이나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과 별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체의 어떠한 활동에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본절은 종교적인 문제에도 적용된다. 신실한 주의 종은 불

신자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삶의 모든 중요한 관계를 담고 있다.

“의와 불법”은 도덕적 행위의 전 범위를 묘사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권위의 영역, 다시 말해 그의 삶에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대상을 언급한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의 영역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사람이 숭배하고 있는 전체 대상을 포괄하고 있다.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빛은 결코 어둠과 사귄 수가 없다. 빛이 방으로 들어올 때 어둠은 쫓겨난다. 둘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6:15 “벨리알”이라는 이름은 “무가치함” 또는 “사악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의 사단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평화가 존재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친교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시도하는 것이다.

6:16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 된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들과 관계할 수가 있겠는가? 물론 여기서의 우상은 조각상뿐만 아니라 사람과 그리스도 사이의 중간 걸림돌(즉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쾌락, 명예,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을 말한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29장 45절, 레위기 26장 12절, 에스겔 37장

27절과 같은 본문에서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고 있다.

데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집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썼던 것처럼 그러한 일에 열심 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으로부터 점 없이 보전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³³⁾

6:17 바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중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그는 이사야 52:11을 인용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부터의 분리와 관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분명한 가르침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을 없이 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 중에서 나오는 것이다. 본절에서 “부정한 것”은 분명히 이방인의 세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업적이든, 사회적이든, 또는 종교적이든 어떠한 형태의 죄에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

본절은 다른 신자들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6:18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수년 동안 유지해온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다. 본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예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33) (6:16) Denney, *Second Corinthians*, p. 246.

알 수 있다. 그분은 이미 17절에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라고 말씀하셨으며 이제 여기서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인이 죄악의 진영 밖으로 나올 때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새롭고도 더 친밀한 사귀를 누리게 되는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와 같이 행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시켜 주며, 전에 가져보지 못한 아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참된 분리가 가져다주는 축복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과의 영광스러운 사귀이다.”

오늘날 곳곳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자유적이고 신정통주의적인 교회 속에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계속해서 묻고 있다. 하나님의 대답은 여기에 분명히 잘 나타나 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세상의 구원자로서 존경과 경배를 받지 못하는 곳에서 단호히 떠나야만 한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그 안에서 이룬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가 있다.

7:1 본절은 앞에서 계속해서 진술해온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절은 새로운 본문의 시작이 아니라 6장 14절로 시작한 본문을 끝맺음하는 구절이다.

여기에서 언급한 “약속”은 전장의 17절과 18절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너희는 내

게 자녀가 되리라.”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여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케 하여야 한다. “육의 더러움”은 온갖 종류의 육체적인 불결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영의 더러움”은 사람의 은밀한 삶, 동기, 생각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제시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으로부터 멀리해야 할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점차적으로 닮아가야만 한다. 본질은 지구상에서 생존할 동안 완전히 거룩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적인 성화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분을 보게 되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되며, 그 후에는 영원토록 그분의 형상과 같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측면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마음 가운데 거룩케 될 것이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 경건한 맥취인(McCheyne)의 기도를 배워보자.

“주여, 저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빚어주십시오.”

13. 고린도에서 온 희소식에 대한 바울의 기쁨(7:2-16)

7:2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바울은 그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으며,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그처럼 마음을 열고 영접하지 못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계속해서 말한다. 그의

비판자들이 반박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어떤 누구도 해롭게 한 일이 없었으며 재정적으로 갈취한 일도 결코 없었다.

7:3 바울이 이미 말했거나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것도 고린도 성도들을 결코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는 반복해서 그들을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은 사나 죽으나 계속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확신시켜 왔었다.

7:4 바울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설교할 때 담대한 말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매우 끔찍이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을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았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았다. 그러므로 그가 통명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가 진실로 그들을 자랑스러워했고 가는 곳마다 그들을 칭찬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바울이 진심으로 칭찬했던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별한 측면은 아마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구제에 있어서 그들의 자발적인 태도였을 것이다. 앞으로 바울은 그 주제에 대해 직접 언급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대충 암시만 주고 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다음절에서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다. 왜 바울은 모든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디도가 고린도 성도들에 관한 좋은 소식을 가져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디도가 가져온 그 좋은 소식은 틀림없이 바울에게 엄청난 기쁨과 격려의 근원으로 작용했다.

7:5 우리는 전에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를 떠나 디도를 찾기 위해 드로아에 이르렀는지 설명하였다. 그는 거기서 디도를 발견하지 못한 채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에서 조차도 심을 누리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전히 불안, 고통, 핍박이 그를 엄습했다. 밖으로는 적들이 무자비하게 공격을 가했고 안으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다. 이는 분명히 아직 디도와 접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7: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시에 디도를 보내셔서 바울을 위로하셨다. 이 때에 바울은 잠언 27장 17절의 진리를 경험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들 두 명의 헌신된 그리스도의 종 사이의 즐거운 만남을 상상해 보라. 질문 위에 또 다른 질문을 마구 퍼붓는 바울과 가능한 한 빠르게 그것들에 답하려는 디도의 모습을! 또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자에게 냉수와 같다”는 잠언 25장 25절을 보라.

7:7 바울을 대단히 기쁘게 했던 것은 단지 그의 친구 디도를 만나서가 아니라 바울의 편지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응답과 그 응답 가운데 위로의 내용 때문이었다.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몹시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려는 거짓 교사들의 결연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를 열렬히 보고 싶어 했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애통해 했다. 본절에서의 “애통함”은 교회 가운데 침투한 죄를 묵인하는 그들의 부주의한 태도에 관한 것이었을 것이다.

또는 그들이 바울에게 안겨다 준 근심과 걱정에 관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이것 이외에 디도는 바울에 대한 그들의 진실된 존경과 그를 기쁘게 하려는 그들의 열심을 보고(報告)했다.

이와 같이 바울을 기쁘게 했던 것은 단지 디도가 왔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했고 여전히 그를 향하여 우호적이라는 명백한 사실 때문이었다.

7:8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앎이라.”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이거나 다소 심각하게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두 번째 편지일지도 모른다. 그 편지를 썼던 것에 대한 바울의 후회와 관계해서 명백히 해야 할 점이 있다. 만약 여기서 그가 고린도전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영감의 지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울이 썼던 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었다. 비록 바울 자신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 쉽게 낙담하고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말이다.

월리암(Williams)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자와 영감의 차이가 본질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는 뒤늦게 그의 첫 번째 편지가 영감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편지의 내용은 주님의 명령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연약하고 걱정 많으며 애정이 깊은 사람인 그는 혹시나 그 편지로 인해 그와 고린도 성도들과의 사이가 나빠지거나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은 아닌지 몹시 걱정했다. 이것은 선지자의 개인성과 그에

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개별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한 실례이다.”³⁴⁾

요컨대,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고린도 성도들이 처음 그의 편지를 읽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꾸짖음으로 와 닿았고 그로 인해 근심하게 되었다. 편지를 보낸 후에 사도 바울은 그 편지가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했는데 이것이 그를 근심케 했다. 그가 근심하게 된 것은 그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여기서는 결코 그러한 생각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가 근심했던 진짜 이유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들을 잠시 근심 가운데 처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본절의 후반부에서 바울은 그 편지가 비록 그들을 근심케 했지만 그것은 단지 잠깐 동안이었다고 강조한다. 그 편지의 첫 번째 효과는 근심을 유발하는 것이었지만 그 슬픔은 지속되지 않았다.

바울이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전체 과정은 마치 외과의사와 유사하다. 위협스럽기 짝이 없는 인체의 전염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그는 환자의 살점을 깊이 도려내야 한다.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것을 알지만 그에게 그러한 고통을 안겨다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의사에게는 그다지 즐거운 일은 아니다. 특히 환자가 그의 절친한 친구라면 그 외과의사는 감수해야만 될 고통에 대해 더 민감하게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고통이 잠시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최종적인 결과가 호전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러한 고통이 감수되어야 함을 잘 알고

34) (7:8) George Williams, *Student'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p. 904.

있다.

7:9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그들의 잠깐 동안의 근심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근심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를 유도했던 것이다. 핫지(Hodge)는 “회개는 목적의 변화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깊은 슬픔과 증오심을 불러 일으켜 결국에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마음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³⁵⁾

고린도 성도들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류의 근심을 보기를 좋아하신다. 그들의 근심과 회개가 진실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인 것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꾸짖음이 결코 나쁜 영향을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7:10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대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범죄한 후에 생겨나는, 그리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슬픔을 의미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이제는 자신과 자신의 죄에 대항하여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라고 말할 때, 반드시 영혼 구원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비록 그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구원은 어떤 형태의 죄, 속

35) (7:9) Hodge, *Second Corinthians*, p. 182.

박,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의 고난으로부터의 “건짐”을 묘사해 주고 있다.

“후회할 것이 없는”이라는 표현은 회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인지, 구원을 언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어떤 누구도 회개나 구원을 후회해 본적이 없는 것이 동일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문을 미해결 상태로 남겨 놓을 수 있다.

“세상 근심”은 회개가 아니라 단순한 후회이다. 그것은 비통, 곤란, 절망, 그리고 마침내 사망을 낳게 된다. 가룟 유다의 삶에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자신의 죄악된 행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근심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로부터 자신이 받게 될 무서운 형벌 때문에 단지 후회했던 것이다.

7:11 사도 바울은 10절 초반부에서 언급한 것의 본보기로서 고린도 성도들의 경험을 가리키고 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관계해서 말했던 바로 “이 근심”은 그들의 삶 가운데 명백히 드러났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있다면 그 증거로서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바울은 이어서 이러한 근심이 빚어낸 다양한 결과들을 계속해서 진술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것은 “간절함”, 다시 말해 그들 자신에 대한 진지한 걱정을 유발시켰다. 만약 이 구절이 처음 서신서에 나타난 어떤 “징계”와 관련이 있다면 이러한 표현은 비록 그들이 처음에는 무관심했다가 나중에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매우 걱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

두 번째로 그는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의 의미는 그들이 그들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핑계의 구실을 찾으려고 했다기보다는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또한 어떠한 문제로도 비난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들의 태도의 변화가 이러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라는 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했던 바울의 책망 때문에 생겨난 범죄자들을 향한 그들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의 더 정확한 의미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계속해서 그러한 범죄자들을 그대로 방치해 둔 바로 그들 자신들을 향한 그들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는 틀림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행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그들이 체벌과 더불어 와야만 했던 사도 바울의 방문을 두려워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는 문자 그대로 “얼마나 애타게 바라며”라는 뜻이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부분은 바울의 방문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거짓이 없는 동경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죄악된 행위에 벌주려는 그들의 강한 갈망을 의미할 수도 있다.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는 하나님의 영광, 범죄자의 회복을 위한 열심,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열심, 또는 사도 바울을 지지하려는 열심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는 “얼마나 징계를 가하였는가”, 또는 “얼마나 보응(avenging)하였는가”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다. 단순히

생각해서 이것은 교회 안의 범죄자에 대하여 처벌조치를 취했다는 의미이다. 그들은 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매우 단호했다.

바울은 그리고 나서 덧붙이고 있다.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물론, 우리는 이것을 그들이 결코 책망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의 의미는 그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이다.

7:12 본절은 네 개의 주된 의문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떤 편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둘째는 불의를 행한 자는 누구인가? 세 번째는 불의를 당한 자는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본절의 후반부는 “너희를 위한 우리의 간절함”으로 번역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으로 번역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여기서의 “편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린도전서일수도 있고, 또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 이후의 또 다른 편지일수도 있다. “불의를 행한 자”는 고린도전서 5장에 나타난 근친상간 죄를 범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교회 가운데 몇몇 반역자일 수도 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근친상간 죄를 범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해자는 그 사람의 아버지일 것이다. 또 한편, 불의를 행한 자가 반역자라면 그 피해자는 사도 바울 자신이거나 몇몇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흠정역(KJV)과 새흠정역(NKJV)에서는 본절의 후반부를 다음과 같

이 기록하고 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함이로라.”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 번역본들은 새 미국표준역(NASB)과 유사하다.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7:13 그의 편지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 고린도 성도들은 회개하게 되었고 그를 지지하게 되었다. 게다가, 고린도 성도들과 관계해서 디도가 보여준 감격과 열정을 통해 바울은 용기를 얻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과의 접촉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7:14 분명히 사도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 전에, 그는 그곳 성도들에 대하여 그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었다. 이제 그의 자랑이 참된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하여 말했던 모든 것이 그곳 무리 가운데서 겪었던 디도의 경험을 통해 사실로 증명되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했던 모든 것이 참된 것같이 디도 앞에서의 그의 자랑 또한 참된 것으로 드러났다.

7:15 분명히 디도는 그가 남 그리스(Southern Greece)에 도착하게 될 때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 알지 못했다. 아마도 그는 부정적인 쪽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은 그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고 바울이 보내준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더욱더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 보였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디도를 영접했

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비굴한 공포나 비겁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 앞에서의 존경심과 디도를 기쁘게 하려는 그들의 세심한 배려를 나타내 준다.

7:16 바울이 “너희를 향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가 의도한 것 이상의 뜻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 성도들은 틀림없이 이것을 바울이 그들을 결코 죄를 범치 않는, 또 결코 실패하지 않는 자로 인정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두었던 믿음과 디도에게 자랑했던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들은 바울의 신뢰를 받을만한 자로서 그들 자신을 입증해 보였다. 그것은 또한 첫 번째 서신서에서 언급한 문제에 대하여 그들이 적절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본절은 우리가 이미 보아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과 그 자신 사이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바울의 결연한 노력을 담고 있는 고린도후서의 첫 번째 부분(1-7장)을 끝맺음하는 구절이다. 다음 두 장(8,9장)은 “주는 것으로부터 얻게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루고 있다.

2.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성취하라는 바울의 권고(8-9장)

1. 풍성한 연보의 좋은 본보기(8:1-9)

8:1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확연히 드러났던 매우 이상한 방법을 알기를 원했다. 그 곳에는 교회가 세워진 도시 중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위치하고 있다.

마게도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곧 그들의 관대함 때문이었다.

8:2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다. 보통 이러한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미래를 위해 돈을 저축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마게도냐인들의 경우와 같이 그들은 그다지 부유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에 넘쳐 있었기 때문에 막상 예루살렘 성도들의 필요를 전해 들었을 때 보통 행동과는 달리 관대함을 보일 수 있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을, 극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경험할 수 있었다.

8:3 그들의 관대함에 대한 다른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 그들의 연보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한 것이었다. 또한 자원하여, 즉 누군가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권함을 받고서, 아니면 꺾임을 받아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었다.

8:4 그들은 구제 문제에 대해 매우 긴급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간청했다. 아마도 바울은 그 당시 그들이 매우 가난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친절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간청이 거절되지 않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다.

8:5 아마도 사도 바울은 단지 그들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요컨대, 보통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마지못해 주다가 나중에 더 큰 압력이 가해지면 더 많은 돈을 내게 된다. 그러나 마게도냐인들의 경우는 달랐다. 이들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가장 큰 선물인 그들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리고 나자 이제 그들에게 속한 돈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다. 바울이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먼저 주를 향한 그들의 삶의 전적인 위탁이 있었고 그런 다음 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동참하기를 원했다는 측면에서 그들 자신을 자발적으로 바울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사실상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의 집행자

인 당신에게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 주십시오.”

캠벨 몰간(G. Campbell Morgan)은 “주의 사역에 대한 헌신은 자기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릴 때만이 비로소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8:6 마케도냐 성도들의 실례를 통해 매우 고무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을 본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디도에게 고린도에서 시작했던 그 일을 성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디도가 처음 고린도 성도들을 방문했을 때, 그는 그들에게 이러한 연보 문제를 내놓았었다. 지금 그는 다시 고린도로 되돌아갈 때, 처음의 좋은 의도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지시 받고 있다.

8:7 고린도 성도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탁월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연보 문제에 있어서도 훌륭한 면모를 보여주기를 원했다. 바울은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진지함)과 자신을 향한 사랑이 풍성했던 고린도 성도들을 신뢰하고 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들의 지식과 구변(말)에 대해 칭찬했었다. 본절에서 그는 틀림없이 디도의 방문으로 빚어진 몇몇 다른 미덕들을 추가하고 있다.

“믿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 믿음의 은사, 또는 동료들을 다루는데 있어서의 신의를 나타낸 것이다.

“말”은 틀림없이 고린도전서에서 상당부분 차지했던 주제인 말의 사용에 있어서의 그들의 능숙함을 언급한 것이다.

“지식”은 아마도 탁월한 은사 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들의

이해의 넓이를 언급한 것이다.

“모든 간절함”은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려는 열정과 진지함을 묘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울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칭찬할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목록 위에 “모든 관대함”이라는 또 다른 표현을 추가하고 있다.

데니(Denney)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경고했다.

“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정적이고, 기도에 충실하며, 애정이 깊으면서도 또한 교회에서도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지만, 반면 물질적인 면에서 인색할 수가 있다.”³⁶⁾

8:8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말은 엄하고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연보 문제에 있어서의 마게도냐 성도들의 열심과 진지함을 비춰보아 고린도 성도들 또한 그들의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되기를 원하고 있다. 바울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라고 말한 것은 그의 말이 영감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보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8:9 본절은 사도 바울이 본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고린도의 시시한 삶의 모습과는 상대도 되지 않게 사실 전 인류 가운데 가장 관대하신 주님의 생애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은혜”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사용되지만 여

36) (8:7) Denney, *Second Corinthians*, p. 267.

기서는 분명히 “관대함”이라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관대하셨는가? 그분은 너무 관대하셔서 그분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영원히 부요케 하기 위하여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무어헤드(Moorehead)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님은 소유, 힘, 경의, 친교, 행복에 있어서 부요한 분이셨다. 반면에 그분은 위치, 환경,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는 그저 적은 돈, 옷, 그리고 음식에 대한 헌신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주셨다.”³⁷⁾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先在)하심을 가르치고 있다. 그분이 언제 부요하셨던가? 분명히 그것은 그분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서 이 세상에 났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든 이 세상에서 정처 없는 나그네로서 배회했던 33년간의 기간도 아니다. 바로 하늘 궁정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과거의 영원 세계에서 부요하셨었다. 그러나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다. 이것은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나사렛, 겐세마네, 갈보리, 그리고 골고다를 가리키고 있다.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모두를 부요케 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니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소유를 그분께 드릴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가장 커다란 즐거움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바울의 그리스도인의 연보생활에 대한 토론 중에서 이 말씀만큼 더 설득력 있는 말씀도 없다.

2. 연보를 성취하라는 훌륭한 조언 (8:10-11)

37) (8:9) Moorehead, *Acts to Ephesians*, pp. 179,180.

8:10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그들은 마게도냐 성도들보다 이미 먼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결심했었다. 고린도 성도들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연보를 모으기 전에 이미 그러한 일을 실제로 시작했었다. 일관성을 갖기 위해, 그들은 일 년 전에 시작한 그 일을 끝마쳐야만 한다. 그것은 그들의 신실성과 일관성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으로 작용할 것이다.

8:11 연보가 지체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상관하지 말고 마음에 원하던 것을 성취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 그들은 부유해지면 앞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지양(止揚)하고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그것을 성취해야만 한다.

3. 후한 연보를 위한 세 가지 유익한 원칙들(8:12-15)

8:12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이 나중에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예루살렘의 궁핍한 성도들에 대한 연보를 지체했던 것 같다. 바울은 여기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보내느냐가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상기시켜 주고 있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좋은 일에 동참하는데 있어서 자원하는 진실된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소유를 기꺼이 수락하신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진실된 마음 자세이다.

8:13 바울은 결코 고린도 성도들을 재정적으로 어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평안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는 곤

고하고 가난하게 하려는 것은 결코 바울의 의도가 아니다.

8:14 본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족함을 채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만약 어느 한 지역 교회가 궁핍한 가운데 있다면 다른 지역으로부터 그 궁핍한 지역에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속적인 자금의 공급과 유입이라는 상호 교류를 통해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교회가 평균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 틀림없이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 또 다른 지역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 자금의 공급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미래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유한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절대적인 궁핍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경우에 자금이 고린도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본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하지만 언젠가 미래에 고린도 교회가 궁핍에 처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지역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8:15 이러한 평균의 원칙은 출애굽기 16장 18절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거둘 때, 몇몇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양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만나가 분배될 때 각 사람은 같은 양을 받게 되었다. 즉, 한 오멜씩 받았다. 결국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만약 어느 누군가가 만나를 몰래 저장하려 했다면 곧 그것에 벌레가 생기고 말았다!

평균은 기적과 마술이 아닌, 많이 소유한 자가 적게 소유한 자와 그 소유물을 함께 공유할 때만이 가능하다.

홋지(Hodge)는 말한다.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바울이 제시한 교훈은 하나님 의 백성들 사이에 어떤 한 사람의 잉여물(剩餘物)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을 거역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 부끄러움과 손실을 가져다줄 것이다. 소유물은 만나와 같은 것이어서 결코 숨겨서 지닐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³⁸⁾

다음은 본절에 대해 언급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것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삶의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소유를 모으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덜 모으게 된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적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에 소유물을 불평등하게 분배하신 이유는 부유한 사람이 이기적으로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함께 그 소유물을 공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4. 연보 준비를 위해 택함 받은 세 명의 형제들(8:16-24)

8:16 여기 두 구절(16-17절)은 연보 문제에 있어서 훌륭한 태도를 지닌 디도를 칭찬하는 장면이다. 첫째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바울은 그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 지녔던 부담감이 동일하게 디도

38) (8:15) Hodge, *Second Corinthians*, p. 206.

에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8:17 바울은 디도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로 갈 것을 권했었다. 그러나 그 권함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원함으로 가기를 원했다.

“너희에게 나아갔고”라는 구절은 아마도 “너희에게 가고 있다”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것은 서간문 형식의 부정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편지를 썼던 그 당시가 아닌 고린도 성도들이 그것을 읽을 때를 기준으로 그의 행동을 묘사한 것이다. 디도는 틀림없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었다. 그는 바울이 그 편지를 끝마치고 나서야 고린도로 떠났다.

8:18 18절부터 22절에서는 이러한 임무에 디도와 함께 동행할 두 명의 다른 형제들을 묘사하고 있다. 첫 번째 사람은 18-21절에서 묘사되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22절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둘 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부분은 그가 돈을 잘못 다룬다고 비난받을 어떤 근거도 주지 않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여주는 가치 있는 구절이다.

첫 번째 형제는 복음에 있어서 그의 사역 때문에 칭찬 받는 자였다.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라’라고 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추측하려고 한다면 본문의 전체 진의를 놓치고 말 것이다.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은 의도된 것이 아닐까? 진실한 주의 제자는 종종 그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문둥병자였던 나야만의 삶에 크게 사용되어졌던 작은 계집아이가 그렇고, 자신의 점

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처분에 맡겼던 작은 소년이 그러한 경우
라 할 수 있다.

8:19 이 이름 모를 형제는 연보의 일로 함께 여행에 동행하기 위
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은 자였다. 다시 말해 그는 이러한 아낌
없는 헌신을 실행하기 위해 임명된 사자들 중의 하나였다. 바울은
자신과 다른 이들을 이러한 은혜의 일을 감당하는 중, 또는 집행자
로서 간주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움으로써 그들을 향한 간절함과 자
원함을 나타내기를 원했다.

8:20 바울은 너무 현명해서 이 돈을 혼자 다루거나 어느 한 개
인에게 위탁하지 않았다. 그는 연보 관리는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아니면 그 이상의 그룹 단위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
이 본질이 의미하는 바이다. 곡해나 추문(醜聞)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그는 어떠한 횡방의 말도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저액의 연보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했다.

8:21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모든 일에 정
직하게 하려고 한다는 뜻이다. 바울은 그의 행동이 주님 앞에서 정
직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또한 결코 비난받지 말아
야 함을 심사숙고했다.

몰간(Morgan)은 지적한다.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사업을
할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의 업무와 관련해 볼 때 정의에 반한
어떠한 의심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³⁹⁾

본절은 우연히도 70인역(the Septuagint)의 잠언 3장 3-4절과 문맥상 거의 같다.

8:22 우리는 본절에서 바울이 이러한 중요한 일에 있어서 동역자로 임명한 또 다른 신원 미상의 형제를 볼 수 있다. 그는 여러 가지 일에 여러 번 간절함을 보였고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크게 신뢰함으로 이러한 특별한 심부름에 관해 더욱 간절함을 보였다.

새흠정역(NKJV)은 이 부분을 “우리가 너희를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저가 너희를 믿음으로”라고 이해하기를 더 선호한다. 바울이 그를 칭찬한 것은 과거에 그가 신실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을 크게 신뢰함으로 이제는 이러한 중요한 일에 더욱 열렬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8:23 그러므로 바울이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다. 즉, 만약 누군가가 이 세 사람에게 대해 묻는다면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에게 “디도는 바울의 동무요, 자신들을 위한 바울의 동역자이며, 이들 다른 두 명의 형제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확실히 이 사람들에게 대한 고귀한 묘사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소위 여러 교회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의 사역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빛나게 할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예가 되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다.

8:24 이러한 모든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을

39) (8:21) G. Campbell Morgan, *Searchlights from the Word*, p. 345.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그들에게 위탁함으로써 바울의 사랑을 입증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의 성도 사랑을 주변 교회에 입증시켜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필립스는 본질을 다음과 같이 의역하고 있다.

“그들과 모든 교회로 하여금 너희들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 대해 말해 온 모든 사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5. 바울의 사랑을 입증할 것을 호소함(9:1-5)

9:1 바울은 가난한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고린도 성도들에게 굳이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어쨌든 앞에서 그것에 관해 말해 왔다. 아마도 우리는 본절에서 아이러니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어떤 면에서 바울이 그 주제와 관련하여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에 동참할 것에 대해 자원함을 보였었다. 자원함에 관한 그들은 마땅히 칭찬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원래 의도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원래 의도를 실행에 옮기게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

9:2 그들의 소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다. 그 연보 문제를 처음 전해들은 때부터 그들은 열심과 진지함을 보였었다. 사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그런 그들을 자랑했었다. 그는 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이미 일 년 전부터 예비하였다고 말했었

다. 그리스의 남부인 아가야는 여기서 고린도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고린도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 성도들이 일 년 전부터 예비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많은 마게도냐 성도들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에 감화, 감동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들도 전심으로 성도 섬기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9:3 바울이 여기서 “형제들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가 그들을 보내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의 과거 시제는 저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독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앞장에서는 세 명의 형제들, 즉 디도와 두 명의 신원 미상의 형제들을 언급했었다. 그들은 연보의 일에 관련하여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자량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세 명의 형제들의 임무는 바울이 거기에 갔을 때 연보가 확실히 준비되도록 하는 것이다.

9:4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남쪽으로 여행을 하게 될 때 어쩌면 마게도냐 성도들 중의 한 명이 그와 동행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가 마게도냐 성도를 데리고 갔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을 본다면 그들을 자랑해 온 바울로서는 얼마나 그것이 당황스러운 일이었겠는가?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믿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두말할 것도 없이 고린도 성도들 자신들도 그들의 소홀함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필립스(Phillips)는 본질을 훌륭하게 의역했다

“그러므로 우리끼리 얘기지만, 몇몇의 마게도냐 성도들이 나와 함께 가서 당신들이 그 연보의 일에 준비치 않은 것을 보게 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매우 자랑하고 믿어왔던 우리는 더더욱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9:5 본절은 바로 바울이 세 명의 형제들에게 자신보다 앞서 고린도로 가라고 권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나와 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역지가 아닐 것이다. 본문은 성도들로부터 이러한 기금을 인위적으로 착취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연보는 자원함으로 드러져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6. 풍성한 연보에 대한 넘치는 보상(9:6-15)

9:6 6절부터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연보가 가져다 주는 몇 가지 훌륭한 보상과 은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우선 그는 수확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풍성한 수확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씨가 뿌려져야 함은 농업에 있어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령 지금 땅에다 씨를 뿌리려고 하는 농부가 있다고 가정하자. 과연 그가 후하게 그 씨를 뿌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식량으로 취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음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본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만약 그가 후하게 씨를 뿌린다면, 그가 뿌린 것 이상으로 많은

양의 곡물을 거둬들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농업에 관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요컨대, 농부는 그가 씨를 뿌린 정확한 양의 곡물이 아닌 훨씬 더 많은 비율의 곡물을 거둬들인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의 연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가 드린 그대로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훨씬 많이 돌려받게 될 것이다. 물론 이같은 원리는 물질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것이다.

9:7 각 사람은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해야만 한다. 그는 마땅히 자기 자신의 눈앞에 닥친 필요에 대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또 그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그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동료인 그리스도인들의 필요와, 주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요구를 생각해야만 한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서 그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서는 안 된다. 연보를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 별로 기쁨을 못 느낄 수가 있다. 또한 감정적인 호소에 눌러서, 아니면 공공의 재정 곤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즐거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영어 단어 ‘힐라리오스’(hilarious, ‘유쾌한’이라는 의미)가 본래 헬라어 ‘힐라론’(cheerful, ‘즐거움’이라는 뜻)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은 흔히 지적되어온 내용이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실까? 아니다. 천산만락(千山萬麓)의 생축이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만약 그분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셨다면 우리에게 굳이 요구하실 분이 아니시다(시 50:10

-12). 실상 그분이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태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에 차서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왜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가?

조우엣(Jowett)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즐거 내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즐겨 내는 것은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자, 그 사랑을 즐거워하는 태도이다. 주는 것은 사랑의 언어이다. 정말로, 사랑은 어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모든 것을 주셨지 않는가!’ 따라서 사랑은 주는 것을 통해 그 본질을 우리의 삶에 드러낸다. 소유하는데 있어 사랑의 자랑거리는 굴복하므로 얻는 기쁨이다. 진정 사랑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無)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리라.”⁴⁰⁾

9:8 본질은 만약 어떤 사람이 관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다. 본질에서의 은혜는 “자원”과 동의어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자원을 공급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을 넉넉하게 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하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본질의 “모든 것”에 주목하라. 예컨대, “모든 은혜”, “항상”(즉, 모든 시간에), “모든 넉넉함”, “모든 것”, “모든 착한 일” 등등.

40) (9:7) Jowett, *Life in the Heights*, p. 78.

9:9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하고 있다. “저가 흠어”라는 표현은 씨를 뿌리는 행동을 가리킨다. 본절은 씨를 뿌리는데 있어서 관대한 한 사람, 또는 그의 호의적인 행동에 있어서 더욱 특별히 관대한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 그가 베푼 특별한 호의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었다. 그러한 일로 그가 손해를 본 것일까? 아니다! 오히려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만약 우리가, 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호의를 베푼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화를 쌓아 두는 것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우리의 호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9:10 본문은 계속해서 “심는 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들이 틀림없이 어떤 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신다. 그 보상 중의 몇몇을 본절은 언급하고 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심을 씨를 더 풍성히 주실 것이다. 즉,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으로써 더 큰 기회와 더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의의 열매를 더 하게 하실 것이다. 고린도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주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었다. 이러한 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영원의 보상이라는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줄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더하여 주며, 그들은 더욱 더 관대하여져서 그 보상은 그에 따라 점점 증가할 것이다.

9:11 본절에서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 자신이 결코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 오히려 호의적인 모든 행동은 반사적인 결과를 가져와 자신이 드렸던 비율 이상으로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연보를 함으로써 모든 일에 부요케 되어 더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도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러한 연보의 은혜에 있어서 성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9:12 고린도로부터 예루살렘에 전달되어진 연보는 단순히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재차 감사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바울의 눈에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9:13 본문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의 연보가 가져오게 될 다른 유익들이 나타나 있다. 그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 이방인 개종자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개입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한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고린도 성도들 같은 개종자들에 대하여 의심을 가졌었다. 아마도 그들은 고린도 성도들을 자격을 제대로 갖춘 그리스도인들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호의가 결국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시켜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과연 주의 복음이 아가야에서도 역사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풍성한 연보를 인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9:14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두 가지 또 다른 유익이 있다. 고린도 성도들의 연보로 인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후로부터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서로 간의 강한 애정의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후반절에 언급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고린도 성도들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9:15 본절에서 바울은 단지 감탄사를 발하고 있다. 본절은 많은 성경학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의아한 구절이다. 그들은 본절이 앞에서 계속해서 진술한 내용과 무슨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의아해 한다. 또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의아해 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연보에 대한 주제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른 만큼, 그는 이제 가장 위대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가장 위대한 은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린도 성도들은 본절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러한 가치 있는 본보기를 따라야만 한다.

3. 바울의 사도권 변호(10-13장)

이 서신서의 나머지 4장은 바울의 사도권 변호를 다루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도 베드로의 말이 바울의 서신서 중에 이러한 특별한 부분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해 보인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벧후 3:16). 바울은 분명 그를 헐뜯는 사람들이 가할 비난에 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비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데 대하여는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 이 서신서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바울은 많은 반어법(反語法)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가 언제 그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없었다면 틀림 없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꼈을 것이다.

1. 비난자들을 향한 바울의 답변(10:1-12)

10:1 1절부터 6절에서는 육체대로 행한다고 바울을 비난한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답변을 담고 있다. 첫째로, 그는 그 자신을 “나”,

“바울”, “친히”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다. 둘째로, 그는 성도들을 향하여 독재적이지 않은 간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로, 그 간청은 주님의 온유와 관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물론 그는 십자가의 길을 염두에 두었으리라. 이것은 지상에서의 주님의 삶에 대한 바울의 몇몇 언급 가운데 하나이다.

바울은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겁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한층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구절은 분명히 방어적인 표현이다. 바울의 비난자들은 그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겁쟁이지만 떠나 있을 때는 사자처럼 거만하다고 말했었다. 그들은 바울이 거만하다는 것은 그의 서신서에 나타난 위압적인 태도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10:2 본절은 1절의 처음 부분과 관련을 맺고 있다. 1절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청하기 시작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간청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본절에서는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라고 그 간청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육체대로 행한다고 비난했던 그들을 향하여 담대히 대하려는 것같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담대히 대하기를 원치 않았다.

10:3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비록 사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결코 육신의 방법이나 동기에 따라 그들의 영적 전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4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로, 그리스도인들은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칼, 총, 또는 현대 전투의 전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지 육체에 속한 무기들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 명예, 권력, 유창한 언변, 또는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영적 군사들의 효과적인 무기이다. 오직 이것들을 통해서만이 견고한 진은 남김없이 파괴되어질 수 있다.

10:5 본절은 4절에 나타난 견고(堅固)한 진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해 주고 있다. 바울은 자신을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거만한 이론들과 싸우는 군사로 보았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라는 표현은 이러한 이론들의 속성을 잘 나타내 준다. 그것은 오늘날 그들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어떠한 개입의 여지도 주지 않는 과학자들, 진화론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종교가들의 이론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론들과 추호도 타협할 마음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일에 전념해야겠다고 느꼈다. 모든 인간들의 교리들과 추론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판단되어야 한다. 바울은 그러한 인간 이성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것이 주를 대적하고 불순종의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10:6 주의 군사로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먼저 그들의 복종을 보였을 때 또한 그도 모든 불복종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었다.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고린도 성도들의 복종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결코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10:7 첫 문장은 의문문일 수 있다! “너희들은 외모만 보느냐?” (NKJV). 또한 그것은 올바른 진술일 수도 있다! “너희들은 외모만 보고 있다”(NIV). 아니면 명령문일 수도 있다! “너희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아라”(RSV), 즉 “사실을 직시하라.”

만약 올바른 진술이라면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사람을 그의 당당한 외모, 인간적인 웅변, 또는 탁월한 논리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들은 내부의 실재에 의해서라기보다 외부의 모습에 의해 좌우되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제외한다는 의미인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전 1:12)라고 말한 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바울은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타적인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바울 자신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주께 속한 자이다.

배타적인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든 간에 바울은 그들도 주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그는 거의 자기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거짓 사도들과 궤훈의 역군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후 11:14). 본절에서

바울은 몇몇의 신자와 불신자들의 무리인 다른 대적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0:8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들과 관계해서 주님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다. 이 권세의 목적은 성도들을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서 그들이 결코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적이 없는 권세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그가 이 권세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끝내 진실로 드러날 것이다.

10:9 바울은 그의 편지들로 고린도 성도들을 놀라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만약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권세를 자랑해야 한다면, 그는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금 그들을 겁주려 한다고 생각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바울의 대적들의 손아귀에서 그럴 것이다.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권위가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며, 또 그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억해야만 한다.

10:10 본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가해진 실제 비난을 들을 수 있다. 그의 대적들은 “그의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고 그를 비난했다.

10:11 그러한 비난을 가한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그들과 대면하게 될 때에 그들이 그의 편지들로 평가한 같은 모습의 바울과 대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그의 편지들로 위협을 가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협을 가한 것은 그가 아니라 그를 향하여 모든 비난을 가한 그의 대적들이었다. 본질은 바울이 그들을 대면하게 될 때 그들을 엄히 다룰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0:12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고린도 성도들의 눈앞에서 바울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러한 방법으로 바울을 치켜세우곤 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내부의 특수한 집단으로 인식했다. 그들은 엘리트 집단이었다. 그들에 의하면 어떠한 누구도 그들 무리에 가입될 수 없고 또 우호적인 영접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한 풍자적인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 자신으로 자신을 헤아리고 자기 자신으로 자신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의 편지 속에서 자신을 비난한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 자신을 칭찬하고 단지 그들 스스로의 삶이 유일한 비교기준이 되었던 그들과 감히 짝할 수 없노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 한 사람의 유일한 평가기준이 그 자신이라면 그가 언제나 옳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떠한 개선의 여지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 잘 알고 있는 말처럼, “그들 자신의 무리로부터 모든 훌륭한 요소를 무시하는 것은 당과 패를 형성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

2. 바울의 사역 원칙: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라(10:13-16)

10:13 본절부터 16절까지는 주께로부터 부여받은 사역의 범위 안에서만 자랑하겠다는 바울의 의사가 나타나 있다. 그는 자랑을 하되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공로를 결코 침범하지 않았다. 그러한 행위는 분명 유대주의자들과 관계가 깊다. 사도 바울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이미 세워진 교회에 들어가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관행이었다. 그들이 자랑했을 때는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범위 밖의 것에 대하여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한다. 오히려 그는 주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얻게 하신 교회들과 사람들에게 대하여 자랑할 것이다. 거기에는 그가 복음을 전파했던 고린도와 그 결과로써 형성된 교회가 포함될 것이다.

아더 웨이(Arthur S. way)는 알기 쉽게 본문을 번역해 놓았다.

“그러나 나는 정당하게 얻은 지역 외에 어떠한 특권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주로부터 할당받은 유효 범위의 영역 안에 나 자신을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틀림없이 너희들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 사명은 물론 고린도를 포함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이것에 동의했었지만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거짓 교사들이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지역들을 침범하고 있었다.

10:14 사도 바울은 결코 지나친 자랑을 일삼는 자가 아니다. 하

나눔께서 그에게 사역의 영역을 지정해 주셨고 그 지역 안에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 만약 그가 고린도까지 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지나친 자랑을 일삼는 자로 비난받았을 것이다.

그는 고린도까지 도착하는 과정에서 시련과 시험, 고통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가 이미 개척한 지역에 침투하고 있었고 아마도 그것이 마치 그들 자신의 업적인양 크게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국제역(NIV)은 이 난해한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너희에게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우리의 자랑은 지나친 것이겠지만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너희에게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10:15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유대주의자들은 죄를 범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공로를 자랑했다. 바울의 양떼를 강탈하려고 했고 그의 인격을 모독했으며 또한 그의 가르침에 반박했고 그가 갖고 있는 권위는 거짓된 것이라며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그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를 원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믿음이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서 더 먼 지역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도움의 형태로 표현되어지기를 원했다. 바울은 이처럼 그의 사역을 확장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의 규칙”(한글 개역성경에는 “우리의 한계”로 나와 있음)을 따르곤 했다.

고린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더 먼 지역에까지 그의 임무를 완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0:16 15절에서의 “그의 규칙”이란 고린도 지경 너머(아마도 서부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페인일지도 모른다)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개척한 지역을 침범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보다 앞서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공로를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겼다.

3. 바울의 최종 목표 : 주님의 칭찬을 고대하라(10:17-18)

10:17 누군가가 자랑하려 한다면, 그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만 한다. 분명히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도 안에서만 자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바울의 주장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이라 생각된다.

10:18 결국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 바울의 대적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 “주께서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한다든지 성도들을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한다든지, 또는 교회를 세우게 한다든지 하는 일로 당신을 칭찬한 적이 있는가? 만약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고 있다고 입증하기를 원한다면 어디 당신의 설교를 통해 변화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보이라.”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바울은 기꺼이 주님의 칭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본장과 다음 장에서 바울은 그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에 관여한 것이다. 그것은 그가 결코 원해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해 줄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분명히 거짓 교사들은 많은 자랑을 일삼아 왔다. 그들은 틀림없이 자신들의 봉사와 특별한 성공을 과시하는 일에 골몰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랑하는 타입의 일꾼들을 더 선호(選好)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일에 관여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4. 사도권에 대한 바울의 주장 (11:1-15)

11:1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은 칭찬하는 일에 관여하게 될 때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을 용납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용납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

11:2 바울이 그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해야만 했던 세 가지 이유가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힘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

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던” 장본인이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느꼈다. 그의 바램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들을 그 당시 성행했던 거짓 교훈에 부패되지 않은 채로 주께 드리는 것이었다. 그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에 기꺼이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향한 그의 열심 때문이었다.

11:3 두 번째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이 속아서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지도 모른다는 바울의 두려움 때문이었다. 여기서의 “진실함”이란 주를 향한 하나의 마음을 의미한다. 그는 그들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며,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도 식어지지 않기를 원했다.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헌신된 심령이 얼룩지기를 원치 않았다.

바울은 뱀이 그의 간계로 하와를 어떻게 미혹했는지 기억하고 있다. 뱀은 하와의 마음과 지성에 속삭임으로써 그녀를 미혹했다. 거짓 교사들 또한 고린도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정결함에서 떨어져서 부패되지 않기를 원했다.

바울이 하와와 뱀의 이야기를 신화(myth)가 아닌 사실(fact)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라.

11:4 바울이 좀 어리석은 일에 기꺼이 관여하고자 했던 세 번째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었다는데 있다.

누군가 실제로 고린도에 가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주겠다고 공언할 때,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파할 때 고린도 성도들은 그 사람을 아주 잘 용납하고 있었다. 바울은 풍자적으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용납해 주면서 왜 나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다.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라는 마지막 말은 풍자적인 말로서 이해해야 한다. 바울은 거짓 교리를 받아들인 그들을 용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훈에 대해 잘 속고 분별력이 부족한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다.

11:5 그들이 바울을 기꺼이 용납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결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극히 큰”이라는 표현은 비꼬는 말이다. 이 말의 문자적이고 현대적인 의미는 ‘슈퍼 사도들’(the super apostles)을 가리킨다. 개혁주의자들은 본절을 베드로가 최고 권위가 있는 사도이며, 교황이 이러한 지위를 물려받았다는 로마교황의 주장을 논박하는데 인용했다.

11:6 비록 바울이 말에 있어서 훈련받지 못했을지라도 결코 지식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명한 사실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지식을 다름 아닌 바울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웅변에 관한 한 바울이 부족했을지라도 분명히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식이 풍부한 자로 알려졌다. 그들은 친히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자들이다.

11:7 고린도 성도들이 그를 향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이유가

그의 어눌한 말에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들을 높이려고 바울이 자신을 낮추는 잘못을 행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본절의 나머지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는 그들로부터 어떠한 재정적인 도움도 받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그같은 면에서 그들을 높이려고 그 자신을 낮춤으로 죄를 범했다고 느꼈던 것 같다.

11:8 “다른 여러 교회를 탈취한 것이라”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다. 이러한 과장된 표현은 마음 가운데 깊은 효과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문자 그대로 다른 여러 교회를 탈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말은 그가 고린도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 어떠한 보답 없이 고린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들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1:9 사도 바울이 실재로 궁핍했을 때는 그가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던 시기였다. 그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려 그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했을까?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마게도냐로부터 온 몇몇 형제들이 그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 있어서 가능한 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 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태도를 잃지 않으려 했다. 고린도 성도들에 관한 한 사도 바울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려고 했다.

11:10 바울은 어떠한 누구도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는) 아가야 지방에

서 그의 이러한 자랑의 근거를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결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틀림없이 여기서 그의 절제를 비난거리로 삼았던 그의 대적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들은 바울이 진실된 사도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전 9장). 그의 대적들의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돈도 받지 않은 채 고린도 성도들을 섬겼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자랑할 것이다.

11:11 바울이 이처럼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 그의 마음은 그들을 향하여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마도 바울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비난받았던 것 같다. 그가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대적들은 그가 단지 돈을 얻기 위해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가 돈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고린도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상을 잘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이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있다.

11:12 유대주의자들은 틀림없이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돈을 기대했고 요구했으며 실제로 받기까지 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이단들(cultists)처럼 그들은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기꺼이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만약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함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역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바울의 그같은 원칙을

따라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금전적인 보상 없이도 섬기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 그것을 자랑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처럼 그는 그들로부터 자랑의 근거를 빼앗았다.

11:13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지금까지 계속 자제해 오다 마침내 말하기 시작한다. 그는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다. 반드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야만 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거짓 사도들이다. 그들은 공적인 임무를 주님으로부터가 아닌 그들 스스로 부여받은 척했거나, 다른 사람들로 부터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들은 궤환(詭譎)의 역군들이다. 이것은 그들의 거짓 교훈을 지지해 줄 사람들을 찾아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는 그들의 형태를 묘사해 주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면서 그분을 나타내는 척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기를 원치 않았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대주의 교사들은 오늘날 거짓 교사들에 해당된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사단은 우리가 그의 실체를 본다면 그는 결코 우리를 유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변신)은 그의 힘 중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는 단지 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상이나 희망을 통해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발췌문).

11:14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 고린도에 있는 그의 대적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假裝)한 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인인 사단의 계략을 생각할 때 이것은 그에게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은 흔히 오늘날 사악하게 생긴 뿔이 달리고 꼬리가 달린 빨간 동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방법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어떤 사람들은 사단을 빈민가에서 밑바닥 생활을 하는 가난한 술주정뱅이와 연관시켜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사단의 실제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본절은 그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하고 있다. 실례를 들자면 아마도 그는 종교적인 옷을 입고 유명한 교회의 단상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가장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과 같은 종교적인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는 구원은 선행이나 자기 의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거짓 교훈을 가르침으로써 청중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을 전파하지 않는다.

11:15 다비(J. N. Darby)는 “사단은 성경을 사용할 때 가장 사단적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본절은 바로 이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단 그 자신도 그러할진대 그의 줄개들이 거짓으로 가장하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그들은 가장할까? 거짓 교사로서? 무신론자로서? 이교도로서?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의의 일꾼으로 사칭하면서 사람들을 진리와 의의 길로 인도하는 척하지만 실상 그들은 사단의 줄개들이다.

그들의 결국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결국 파멸에 이를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결국에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파국적인 운명에 함께 동참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결국 최후 심판에 처해질 것이다.

5. 사도권을 입증해 주는 바울의 수고(11:16-33)

11:16 이 모든 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어떤 누구도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그를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로 여긴다면 그들은 그 또한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그를 받아야만 한다.

본절의 후반부에 “또한”이라는 말을 주목하라! “나로 또한 조금 자랑하도록.” 이 말은 실로 중요하다. 거짓 교사들은 많은 자랑을 일삼아 오고 있었다. 사실상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아닐진대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여겨야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나를 받으라.”

11:17 본절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은 비록 그것이 정말로 영감된 것일지라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제안한다.

또 다른 해석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즉 자랑은 주의 본을 따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주님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자랑하지 않으셨다.

필립은 분명히 번역상 첫 번째 견해를 따르고 있다. “나는 주의 명령이 아닌 그저 이러한 자랑하는 일에 관여해야만 하는 어리석은 자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은 주님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두 번째 견해가 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랑은 주님의 본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기 자랑에 관여함으로써 마치 어

리석은 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라이리(Ryrie)는 다음과 같이 주해해 놓았다!

“비록 그의 본성에 반한 일이었지만 중요한 사실을 그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자랑하는 일에 관여해야만 했다.”⁴¹⁾

11:18 고린도 성도들은 최근에 타락한 육체를 따라 자랑을 일삼아 온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들어 왔다. 만약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자랑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바울의 자랑 또한 심사숙고해야 하며, 거짓 교사들이 정말 자랑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유의해야만 한다.

11:19 바울은 다시 풍자적인 말로 호소하고 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대우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정작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우해 주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너무 지혜로워서 거짓에 결코 속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해 온 바와 같이 결국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

11:20 고린도 성도들은 앞에서 언급한 그런 종류의 사람을 잘 용납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사람은 누구였던가? 앞에서 연이어 진술해 온 내용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분명 그 사람은 유대주의 교사였다. 즉, 고린도 성도들을 여러 모로 착취하고 있었던 거짓 사도였다. 첫째로, 그는 고린도 성도들을 종으로 삼았다. 이것은 틀림없이 율법의 노예로 삼았다는 의미이다(행 15:10).

41) (11:17) Charles C. Ryrie, *The Ryrie Stud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p. 1797.

그는 주께 대한 믿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만 한다고 가르쳤다.

둘째로, 그는 많은 액수의 돈을 요구했다는 측면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잡아먹은 셈이다. 그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봉사했던 것이다.

‘사로잡았다’는 말은 낚시나 사냥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다. 그 거짓 교사는 고린도 성도들을 자신의 먹이로 삼아서 그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려고 했다.

자만심과 자랑으로 높이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적인 형태였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항상 사람들 눈에 자신들을 더 위대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모욕적으로 성도들의 뺨을 쳤다. 이것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거만한 성직자들은 그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실제로 신도들을 때렸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불합리한 취급을 잘 용납하면서 자신의 사랑어린 충고나 훈계를 기꺼이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실에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이 진리보다는 거짓된 것에 더 많이 참고 견디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⁴²⁾

11:21 본절의 의미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마치 내가 몸소 너희들과 함께 있었을 때 약했고 다른 사람들처럼 나의 권위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조심스러워 했던 것 같이

42) (11:20) J. N. Darby, *Notes on I and II Corinthians*, p. 236.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를 욕되게 말하노라.”

이 말씀에 대한 다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지금은 담대하고 그때 당시는 약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다.” 필립의 견해는 후자와 일치한다. “나는 담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처럼 강하게 말하기가 부끄럽다.”

바울은 만약 거짓 교사들이 행동했던 방식이 실로 강하다면 그는 오히려 그런 종류의 강함보다는 약함을 보였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말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재빨리 이들이 담대했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자신 또한 분명 그들과 같이 담대할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모팻(Moffat)은 이 구절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들이 마음껏 자랑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러나 나 또한 그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이는 어리석은 행위지만 말이다).”

지금까지의 서론과 함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으로서 그의 주장을 입증해주는, 이 서신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과연 바울이 진실한 사도였는가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바울은 어떤 신임장을 제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는 열두 사도와 동등하다는 것을 실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는 이미 그것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그는 어떤 신학교를 졸업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졸업증명서를 지니고 있지 않다. 또

한 그는 결코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서명한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그를 입증해 주는 어떠한 공식적인 문서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재능을 나타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우리 앞에,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가 경험했던 감동적인 역경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질의 극적인 사건과 감동을 놓치지 말라.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육지와 바다를 오가며 그의 선교여행을 계속해서 강행했던,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해 멸망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기를 자처했던 겁 없고 용맹한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본질을 깊은 감동 없이, 별다른 수치심 없이 읽을 수가 없으리라.

11:22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유대 조상들을 무척 자랑했다. 그들은 순수 혈통의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씨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여전히 이러한 혈통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주었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에 의해 버려진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지 못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일에 관해서 그들의 자랑은 이제 무의미하다. 그들의 혈통은 사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우위성도 그들에게 제공해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바울 역시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입증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논쟁의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다. 한 가지 면에 있어서 그들은 바울을 능가할 수가 없다. 그것은 바로 그가 겪었던 고난과 역경이었다.

11:23 그들은 직업적인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고 바울은 헌신과 수고와 역경에 있어서 “주님의 종”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고난의 구주를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좋은 주인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되며 사도는 이 세상에서 그의 주인이 받았던 것보다 더 좋은 취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더 신실하게 섬기면 섬길수록, 구주의 삶의 본을 좇으면 좇을수록 사람들에게 의해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시이자 상징이었다. 비록 그는 이러한 자랑하는 일을 어리석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을 말해야만 했기에 불가피하게 자랑하는 일에 관여해야만 했다. 여기서의 진실이란, 거짓 교사들의 삶에는 고난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쉬운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비난과 박해 그리고 불명예를 피해 살았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그들이 주의 종으로서 자신을 공격하기에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느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진실한 사도임을 입증해주는 것으로써 그가 열거하고 있는 역경의 목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이것은 그의 선교 여행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지중해 전역을 걸쳐 광범위하게 여행했는지를 말해 준다.

“매도 수 없이 맞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적들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 의한 박정(薄情)한 대우를 묘사해 주고 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이 시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많은 투옥들 중에 유일한 것은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나타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된 경우이다. 이제 우리는 이것은 단지 바울이 겪었던 많은 투옥생활 가운데 한 경우이며 그가 감옥을 전전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틀림없이 바울이 이것을 쓸 때는 루스드라에서의 죽을 뻔하였던 경험을 상기했을 것이다(행 14:19). 그러나 이것은 또한 핍박으로 인해 살 소망이 거의 끊어졌던 다른 유사한 경우를 회상하는 것일 수도 있다.

11:24 모세의 법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한 번에 40대 이상의 체벌을 가하는 것을 금했다(신 25:3). 유대인들은 이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단지 39대의 체벌을 가하는 것이 상례였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중죄로 판단했을 때 가해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들에게 혈통상으로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다섯 번의 각기 다른 경우에 자신에게 중한 벌을 가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11:25 “세 번 태장으로 맞고” 신약에서 언급된 유일한 경우는 빌립보에서 일어났다(행 16:22). 그러나 이외에 바울은 두 번이나 더 이와 같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취급을 경험했다.

“한 번 돌로 맞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루스드라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돌로 맞은 사건은 너무 호된 경우여서 바울의 몸은 사실

상 거의 죽은 채로 도시 밖으로 끌려가 버려졌다.

“세 번 파선하였다.” 바울이 겪었던 역경 모두가 직접적인 사람들의 손에 의한 경우만은 아니었다. 때때로 그는 자연의 격동 가운데로 던져졌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파선들 중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진 것은 없다(로마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사도행전 27장에서의 파선은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다).

“일 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역시 사도행전에 기록된 어떠한 경험도 이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것 같다. 여기서의 깊음이란 토굴(감옥)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바다를 의미하는지가 의문이다. 만약 그것이 바다를 의미한다면 바울은 뗏목 위에서, 아니면 작은 배 안에서 생활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진짜 물속에서 지내다가 주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살아남았을 것이다.

11:26 “여러 번 여행.” 대부분의 성경 뒤쪽에 있는 지도를 살펴보면 여러분은 ‘바울의 선교여행’을 표시한 지도를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은 그가 여행했던 노선을 쫓 따라가다 보면 그 때 당시의 운송수단이 얼마나 원시적이었는지 실감하게 되며,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인식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직면했던 8가지 다른 유형의 위험들을 열거하고 있다. 굶이치는 강물과 시내를 의미하는 강의 위험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여행했던 많은 행로들은 불법이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도의 위험이 있었다. 그는 또한 복음을 전파했던 지방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위협에 직면했다. 루스드라,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서와 같은 도시의 위험이 있었고 또한 광야의 위협에 직면했다. 이것은 아마도 인구가 많지 않

은 소아시아나 유럽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폭풍우, 암초, 해적과 같은 바다의 위협에 직면했다. 마지막으로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인데 이것은 분명 그리스도인 교사로 가장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11:27 “수고하여”는 바울의 끊임없는 사역을 말하고 있는 반면 “애쓰고”는 그런 끊임없는 사역으로 생겨난 피로와 고통을 나타내 주고 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많은 여행에 있어서 바울은 틀림없이 집 밖에서 자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방으로 위협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의 접근을 경계하면서 많은 밤을 뜬눈으로 지새야만 했을 것이다.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위대한 사도 바울은 주를 부지런히 섬기는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려야만 했다. 여기서의 “굶고”는 사도 바울이 자발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더 타당성 있는 것은 음식이 부족해서 겪어야 했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말해 주고 있다.

“춡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신발과 의복에 있어서 빈약하게 입고 다녔던 사실과 연관해 볼 때 갑작스런 날씨의 변화가 그의 삶에 극도의 불편함을 가중시켰다.

hat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기 우리들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등은 빈번한 채찍질로 인해 갈기갈기 찢겼으며 그의 몸은 굶주림, 목마름, 노출로 인해 쇠약해졌고, 춡고 헐벗었으며,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으며, 일정한 거처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바로 사

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다. 본문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심지어 가장 헌신적인 현대의 사역자들조차도 부끄럽게 만드는 구절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과 비교될만한 어떤 고난을 겪은 적이 있던가? 바울이 그가 고난 받은 것만큼의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위로가 아닐 수 없다.”⁴³⁾

11:28 “이 외의 일”은 위에서 제외된 것을 말하는데,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끊이지 않는 염려가 있었다. 이것은 모든 다른 역경을 하찮게 만들만큼 얼마나 중요했던가? 바울은 진정한 목자였다. 그는 성도들을 사랑했고 돌보았다. 그는 샅꾼 목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선한 목자였다. 바울은 바로 이점을 본문의 이 부분을 통하여 입증시키려 했다. 사 고령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바울이 입증하고자 하는 논점을 지지할 것이다. 여러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의 짐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상기시켜 준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며, 바른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일은 결코 끝이 없다.”

11:29 본절은 앞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매일 모든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절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준다. 만약 그가 약한 어떤 그리스도인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면 그 또한 그 약함을 느끼게 된다. 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같은 마음으로 견디고 있는 것이다. 만약 주님을 믿는 어떤 형제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애타했

43) (11:27) Hedge, *Second Corinthians*, p. 275.

다.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바울 또한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 성도들이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 때는 같이 슬퍼했고,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했을 때도 역시 같이 기뻐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은 주의 종의 신경을 쇠약하게 만든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던가!

11:30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그의 성공, 재능,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약함과 그가 받았던 비난, 그리고 모욕이었다. 이런 것들은 그에게 자랑거리를 제공해 준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랑하는 소재도 아닐 뿐더러 또한 그들을 유명하게 만들지도 못한다.

11:31 그가 받은 고통과 모욕을 생각할 때 바울은 본능적으로 그의 삶 전체에 있어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을 떠올리고 있다. 만약 그가 그의 약함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게 된다면 그는 다메섹에서 겪었던 경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든 그런 굴욕적인 경험에 대해 자랑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

11:32 이 이야기에 대한 더 자세한 세부내용은 사도행전 9장 19-25절을 보면 알 수 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이후 바울은 거기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가 복음을 전파할 때 처음에는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잠시 후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공모했다. 그들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밤낮

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있었다.

11:33 어느 날 밤 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그 도시의 성벽에 위치한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달아 내렸다.

그러나 왜 바울은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왓슨(J. B. Watson)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포착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심사는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증거를 밝히 드러내고 있다. 주를 위해서라면 그는 그의 개인적인 자량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바보로 보여지기를 마다하지 않았다.”⁴⁴⁾

6. 사도권을 지지해 주는 바울의 계시(12:1-10)

12:1 바울은 결코 자랑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무익하나마 그러한 환경 하에서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저급하고 굴욕적인 사건에서 가장 최고의 사건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 그는 주님 자신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12:2 바울은 14년 전에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진 한 사람을 알고 있다. 비록 바울이 그가 누구인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울 자신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한 고상한 경험을 말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직접적이

44) (11:33) J. B. Watson, 더 이상의 자료는 없다.

아닌, 단지 일반적인 방법으로 말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그리스도인이었다.

12:3 바울은 그 당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루스드라에서의 경우와 같이 그가 핍박을 받고 있는 동안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또 그가 실제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분명 그러한 해석을 지지해 주지 않는다. 사실상, 만약 바울 자신이 그 당시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즉 살아 있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면 현대의 어떤 주석가들이 그 주제에 대해 추가적인 견해를 덧붙일 수 있단 말인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세 개의 하늘이 존재한다고 암시하고 있다. 첫째 하늘은 우리 위에 있는 대기, 즉 파란 하늘을 말한다. 둘째는 별이 있는 하늘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가장 높은 하늘을 말한다. 이후에 전개될 내용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심한 강도를 그가 죽은 후에 데리고 간,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과 같은 그런 축복의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다.

12:4 바울은 천국의 언어를 들었고, 그 들려진 말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지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말할 수 없었다. 그 말은 말하기에는 너무 신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표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가치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

캠벨 몰간(G. Campbell Morga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겪은 비전과 계시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한다. 문제는 그러한 열정이 그들이 겪은 비전과 계시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느냐는 것이다. 그러한 비전과 계시가 분명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들은 성격상 경건함과 진실함을 띠게 된다. 그것들은 너무 신성하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말하고 토론되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든 삶과 섬김에 있어서 분명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⁴⁵⁾

12:5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고자 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언급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았다. 그러나 주께 받은 비전 계시에 대해 자랑하게 될 때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과 연관시키지 않고, 그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타인의 경험처럼 언급하고자 했다. 그는 그 자신이 그러한 경험의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지만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는 원하지 않았다.

12:6 사도 바울은 자랑할 수 있는 많은 다른 위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가 이러한 자랑하는 일에 관여하게 될지라도 결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누구도 그들이 실제로 바울을 알고 있는 것이나 또는 그에 대해 들어온 것 이상으로 그를 위대하게 생각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45) (12:4) Morgan, *Searchlights*, p. 346.

12:7 본절의 전반부는 주의 종의 삶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나타나 있다. 그것은 다멕섹에서의 사건과 같은 극도의 굴욕적인 순간을 담고 있다. 그때 바울은 주님의 계시와 같은 최고의 경험을 했다. 그러나 주님의 어떤 종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주님께서는 그 후에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신다. 이것이 바로 본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우리는 본절로부터 많은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된다. 첫째로 주님의 계시라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천국의 언어를 들은 후에도 그의 몸은 여전히 으며 오히려 자만의 올라미에 빠질 뻔했다.

리이드(R. J. Reid)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그가 천국의 언어로 들려진 알 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때 주의 존전에서 안전하지만 이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의 육체는 그가 겪은 천국 경험에 대해 자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⁴⁶⁾

그렇다면 “육체의 가시”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허락하신 어떤 육체적인 시련이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그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상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시련과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고통을 받을 때, 그때 당시의 바울에게 더욱더 가깝게 유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일종의 안질이 있었을지도 모른다.⁴⁷⁾ 혹은 귀앓이, 말라리아, 또는 편두통, 어쩌면 언어 장애와 관계된 무엇일지도 모른다. 무어헤드(Moorehead)는 다음과

46) (12:7) R. J. Reid, *How Job Learned His Lesson*, p. 69.

47) (12:7) 갈라디아서 4:15과 6:11을 참고하라.

같이 말하고 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감춰져 있다. 아마도 그것은 바울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고통스런 경험을 통해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주기 위함일 것이다.”⁴⁸⁾ 우리의 시련은 바울과는 매우 다르지만 그것들은 같은 훈련과 결실을 가져다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자신을 치기 위해 허락된 사단의 사자로 묘사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그것은 주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 편에서의 노력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보다 더 위대하셔서 바울을 껌손케 함으로써 오히려 주의 사역에 그 가시를 이용하셨다. 그리스도를 위한 성공적인 사역은 연약한 종에게 달려 있다. 그가 연약하면 할수록 복음을 전파할 때 주의 능력은 갑절이 되어 임하게 된다.

12:8 바울은 육체에 있는 가시가 그로부터 떠나기를 세 번 간구했다.

12:9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었지만 그가 바라던 대로는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지만 너에게 더 좋은 무언가를 행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단지 이것을 기억해라. 비록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을 주고 있는 것이다. 너는 복음을 전할 때 나의 권능을 덧입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바로 네가 계속해서 그런 약한 자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48) (12:7) Moorehead, *Acts to Ephesians*, p. 197.

다.”

이것이 바울의 세 번의 반복적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동일한 응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서 고통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응답이 될 것이다. 그런 시련과 고통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의 친밀한 사귄이며, 그분의 권능과, 무엇이든 가능케 하는 은혜를 보장받는 것이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족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에 매우 만족한 나머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그분의 일하심의 지혜에 대해 설명했을 때 바울은 바로 그것이 그가 원했던 바였다고 말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에 대해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않고 오히려 그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할 것이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을 인하여 주께 감사할 것이다. 주의 권능을 덧입을 수만 있다면 그는 기꺼이 그것들을 감내할 것이다.

오스왈드 샌더스(J. Oswald Sander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치료될 수 없는 것은 견뎌야만 한다’는 것은 세상 철학이다. 그러나 바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멋지게 증명하고 있다. ‘치료될 수 없는 것은 즐길 수 있다. 나는 약한 것과 고통, 결핍, 역경들을 즐긴다.’ 주의 은혜가 너무도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는 비록 또 다른

많은 고통이 그에게 밀려올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했다. ‘나는 매우 영광스럽게, 심지어 즐거워한다.—나에게 허락된 그 가시를...’⁴⁹⁾

폴란드 귀족의 부인이었던 피친스카(Emma Piechynska)는 오랫동안 좌절과 실망 가운데 살았다. 그러나 그녀의 전기 작가는 그녀의 굽힐 줄 모르는 믿음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그녀는 하나님의 외면으로부터 위대한 결실을 일구어 냈다.”

12:10 우리가 본절에 기록된 그런 종류의 경험 속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절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표현 속에 나타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통 꺼려하는 것들, 즉 주님 자신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 그러한 고난을 참고 견뎌야만 한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완전히 그분에게 맡겨질 때 그분의 권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명백히 나타나며, 그 결과 진실로 우리는 강해진다.

프랑스 제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싸움을 이끌었던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는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여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다. 보스웰(Boswell)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마치 작은 새우와 같았던 그가 큰 고래가 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본절에서 바울은 마태복음 5장 11-12절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헐뜯고 핍박했을 때 오히려 즐거워

49) (12:9) J Oswald Sanders, *A Spiritual Clinic*, pp. 32,33.

하고 있다.

7. 바울의 사도권을 지지해 주는 표(12:11-13)

12:11 이 시점에서 바울은 이러한 자랑하는 일에 싫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자기가 자랑하는 일에 관여함으로써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그가 그렇게 해서 안되었지만 고린도 성도들이 그에게 그것을 강요했다. 그의 대적들이 그에게 잔인한 공격을 퍼부었을 때 그들은 마땅히 그를 지지했어야 했다. 그가 비록 아무 것도 아니었지만 분명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12:12 그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도된 표(標)를 나타냈다고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표(標)들은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그들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사도들에게 부여된 기적적인 권능이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말들은 세 개의 다른 형태의 기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할 기적이다. 표적은 인간 지성에 분명한 뜻을 전달하는 기적이었다. 한편 기사는 너무 놀라워서 그것들은 인간 감성을 자극했다. 능력은 분명 초인적인 힘과 관계된 그러한 행위였다.

바울이 사도의 표된 것(the signs of an apostle)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라. 바울은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그를 향한 고린도 교회의 신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룬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12:13 기적에 관한 한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다른 교회들보다도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에 의한 많은 기적들을 목격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그들이 다른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열등했던 말인가? 바울이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차이점은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짐도 주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다. 즉, 그는 그들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다. 만약 이것이 그들을 열등하게 만들었다면 바울은 이 공평하지 못함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주장하지 않았던 사도의 유일한 “표”였다.

8.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했던 바울(12:14-13:1)

12:14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이것은 바울이 비록 한번 방문했지만 세 번씩이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두 번째는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엄하게 다루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가 세 번째 가고자 예비했다면 이것은 그의 두 번째 실질적인 방문이 될 것이다.

아니면 그것은 그가 실제로 세 번째 방문하려고 했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첫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는 슬픈 방문이었다(고후 2:1, 13:1).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 될 것이다.

바울 사도가 가게 될 때 그는 결코 고린도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

지 않겠노라고 결심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그가 그들로부터 어떠한 재정적인 보답도 받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원조에 관한 한 그는 결코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바울이 그들 자신을 구했던 것이지 결코 그들의 물질을 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그들의 소유물보다는 그들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 관한 한 부모의 입장에서 대하기를 원하고 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히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바로 부모들이다. 자식들은 보통 부모들을 위해 이와 같은 관심을 쏟지 않는다. 바울은 바로 여기서 그들에게 자신이 부모로서 대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장을 지나치게 곡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이것은 부모가 그들의 자식의 미래를 위해 부를 저축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현재의 필요에 관계된 것이지 미래의 필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을 때 현재의 당면한 필요의 공급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그곳 성도들에게 결코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여기에는 그들이 바울의 노후를 고려하여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거나 또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물질을 저축해 두어야 한다는 어떠한 생각도 내포되어 있지 않다.

12:15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이 본질

을 통해 아름답게 비쳐지고 있다. 그는 지속적인 섬김에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며 그들의 영혼, 즉 그들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는 그들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들보다 더욱 그들을 사랑했다. 그러나 정작 그는 그들로부터 덜 사랑을 받았다. 그렇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바울은 결코 그들로부터 사랑의 보답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그는 정말 진실한 주님의 종이였다.

12:16 사도 바울은 그의 대적들이 자신을 향하여 사용하던 바로 그 말을 인용하고 있었다. 실로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비난하였다. “그래요, 물론 바울이 여러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돈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에게 대리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돈을 가져오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12:17 “만약 내가 직접적으로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면 내가 보낸 자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러한 비난의 진실성 여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묻고 있다.

12:18 그는 자신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라는 표현은 아마도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성도들을 방문하도록 권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홀로 보내지 않았다. 바울의 동기에 대한 의심의 골이 없도록 바울은 디도와 함께 동행하

도록 또 다른 형제를 보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그가 그의 권리를 주장했었던가? 그가 자신을 지원해 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했었던가? 아니면 그들의 이(利)를 취하기라도 했던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디도는 어떤 세속적인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비를 벌었다는 사실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그와 같은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다시 말해, 디도와 바울 모두 고린도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동일한 사역 방침을 따랐다.

12:19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말했던 모든 것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즉, 만약 고린도 성도들을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재판장인 그들에게 단지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이다. 하지만 실상 바울은 그들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 모든 것을 쓰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들을 능력 있게 하며 그들에게 직면한 여러 위험들에 대해 경고하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의 명성보다는 그들을 돕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we do all thing)는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쓰고 있다”(we write all these things)로 해석할 수 있다(고후 13:10 참조).

12:20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화평하게 지내며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는 단호히 거절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기를 원했다.

또한 그들을 방문하게 될 때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

기를 원했다. 만약 그곳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여러 육신적인 다툼의 모양들이 발견된다면 그는 몹시 슬퍼할 것이다.

12:21 결국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기쁨이요 사랑의 면류관”이었다. 한 마디로 그들은 그의 영광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부끄러워해야만 될 상황을 결코 맞이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또 결코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이 그들의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하지 않기를 원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란 누구인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이 구태여 이런 식으로 편지를 통해 그들을 거론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죄들로 특징짓고 있다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전 6:9-10). 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면 바울은 슬퍼하게 될 것이다.

다비는 본장은 셋째 하늘로 시작해서 지구상의 추악한 죄들로 끝맺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둘 사이에는 구제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의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다.⁵⁰⁾

13:1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가 방문하게 될 때 바울은 성도들 사이의 그러한 죄의 진상들을 조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조사는 신명기 19장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행해질 것이다.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

50) (12:21) Darby, *I and II Corinthians*, p. 253.

라.” 바울은 자신이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 재판은 지역교회에서 행해질 것이며, 바울은 그 문제에 관하여 조언자로서 참석하게 될 것이다.

9. 고린도 성도들에 의해 입증된 바울의 사도권(13:2-6)

13:2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바울은 범법자들을 엄히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그가 비록 지금은 떠나있지만 다시 가면 전에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

13:3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진실된 사도라는 사실에 의심을 불러 넣음으로써 고린도 성도들을 속여 왔었다. 실제로, 고린도 성도들은 그가 진짜 하나님의 대변자인지 믿을만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그에게 도전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이었는가? 바울은 그들의 무례한 요구를 인용하면서 답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리고 덧붙여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강함으로 자신을 통해 그들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측면에서 약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13:4 약함과 강함이라는 말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종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약함으로 말미암는 강함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연상케 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그러므로 주의 종들 스스로는 약하지만 주님께서서는 바로 약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바울이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고 말할 때, 그는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가 그들을 방문할 때 범법자들을 처리함으로써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들은 그가 약하고 비열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징계를 줌으로써 그가 강할 수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13:5 본절은 다음의 3절 초반부와 관련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증거는 바로 고린도 성도 자신들이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된 것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였다. 만약 그들이 그 증거를 알기를 원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본절은 구원의 확신을 위해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흔히 잘못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절망과 의심만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구원의 확신은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확고해 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또 다른 증거들을 발견하게 된다. 예컨대, 경건에 대한 새로운 사모, 죄에 대한 새로운 증오, 형제들에 대한 사랑, 실제적인 정의로움, 순종, 그리고 세상과의 분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원의 증거로써 자신들을 시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이 구원 받았다는 사실 속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단지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버리운 자’(disqualified)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 ‘버리운 자’로 번역된(disqualified) 단어는 본래 검사 끝에 가짜로 판정된 금속 제품을 말할 때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진짜 성도이든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버리운 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

13:6 그들이 만약 진짜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다면 사도 바울 또한 버리운 자가 아닌 하나님의 진실된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고린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결코 거짓 교사들을 통해 올 수가 없었다.

10.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유익을 구함(13:7-10)

13:7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 죄를 가볍게 여김으로써 악을 행하지 말고 범법자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처벌과 회개의 사역을 감당해 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 또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위해 이것을 기도하지는 않는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증거로서 그들이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결코 바

울의 생각이 아니다. 그는 그들이 범범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옳고 정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비록 그가 버리운 자처럼 보일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바울의 이타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그의 기도생활에 있어서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에 대해 생각했었다. 만약 바울이 별하려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의 권위를 주장함으로 처벌에 관계된 그의 가르침을 그들이 순종하게 된다면, 그때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으로써 이와 같은 점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이 그의 법적인 권위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떠나 있는 동안 비록 율법주의자들이 그를 포함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원했다.

13:8 여기서의 ‘우리’는 아마도 ‘사도들’을 가리킬 것이다. 바울은 그들이 어떠한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확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처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양심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해 해야만 한다.

13:9 여기서 다시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볼 수 있다. 만약 그의 약함과 굴욕, 그리고 비난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것에 있어서 그들을 부요하게 만든다면 바울은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다. 이와 같이 기뻐하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또한 그들이 온전케 되기를 기도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범법자들을 다루는 문제에 관해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열렬한 소망이었다. 핫지(Hodge)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바울은 그들이 혼란, 다툼, 죄의 상태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했다.”⁵¹⁾

13:10 그가 이 서신서를 그들에게 쓴 목적은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쓴 것은 그동안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 대면할 때에 주께서 주신 권세를 따라 엄하게 다루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비록 그가 대면할 때 엄히 그들을 다룬다 할지라도 역시 그것은 그들을 파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는 목적이다.

11. 바울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13:11-14)

13:11 바울은 이제 이처럼 엄한 편지를 갑작스럽게 끝맺음하고 있다. “작별”(헬라어 인사는 문자적으로 “기쁨”을 의미한다)을 고하면서 바울은 네 가지 권면을 전달하고 있다. 첫째로, 그들은 “온전”케 되어야만 한다. 앞의 동사는 마태복음 4장 2절의 ‘그물을 낚다’라고 할 때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고린도 성도들은 다툼과 죄를 멈추고 서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위로를 받으며”는 “격려를 받다” 또는 “권면을 받다”라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강한 훈계를 받았다. 이제 그는 그들에게 이러한 훈계들을 좋은 의도로 받으며 그것에 따라 행동할 것을 권하고 있다.

“마음을 같이하며.” 물론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

51) (13:9) Hodge, *Second Corinthians*, p. 309.

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들의 모든 생각과 판단력을 그분께 맡겨야 한다.

“평안할지이다.” 그들 가운데 논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12장 20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것은 언제나 율법주의가 허용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우선 그 범법자들을 처벌하고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평안 가운데 지낼 것을 말했다.

만약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물론 어떤 면에서 주님은 언제나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만약 그들이 이와 같은 문제에 순종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특별한 친근함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실 것이라는 뜻이다.

13:12 “거룩한 입맞춤”은 사도들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특징적인 인사법이였다. 이같은 행위는 단지 인위적인 애정 표현의 상징이 아니라 진정함과 순결함을 나타내 준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는 남자들끼리 입맞추는 것은 동성연애로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한 비난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구태여 그런 전통을 의무감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럴 때는 거룩한 악수가 좋을 것이다.

맞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지역에서 허용된 방식으로 서로 상호간에 사랑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은 영구히 지속해서 이행해야 할 명령이 아니다.”⁵²⁾

13:13 모든 성도로부터의 문안은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폭넓은 교제권에 대해 상기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다른 지역교회들이 그들의 성장과 주님께 대한 순종을 보기 위해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13:14 본절은 신약의 은혜로운 축복 중 하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다.

렌스키(Lenski)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심오한 축복을 위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손을 뻗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과 함께 그의 목소리는 침묵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그 축복은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 있다.”⁵³⁾

52) (13:12) Hodge, *Second Corinthians*, p. 312.

53) (13:14) R. C. 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St. Paul's First and Second Epistles to the Corinthians*, p. 1341.

참고 문헌

- Darby, J. N. *Notes on I and II Corinthians*. London: G. Morrish, n.d.
- Davies, J M. *The Epistles to the Corinthians*. Bombay: Gospel Literature Service, 1975.
- Denney, Jame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London: Hodder & Stoughton, 1894.
- Erdman, C. R. *Second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Lond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29.
- Grant, F. W. "2 Corinthians," *The Numerical Bible*. Vol. 6, Acts-2 Corinthians. New York: Loizeaux Brothers, 1901.
- Hedge, Charle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59.
- Hughes, Philip E. *Commentary on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2.
- Kelly, William. *Notes on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London: G. Morrish, 1882.
- Lenski, R. C. H. *The Interpretation of St. Paul's First and Second Epistles to the Corinthians*. Columbus: Wartburg

- Press, 1937.
- Luck, G. Coleman. *Second Corinthians*. Chicago: Moody Press, 1959.
- Robertson, A. T. *The Glory of the Ministry*.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11.
- Wilson, Geoffrey B. *2 Corinthians: A Digest of Reformed Comment*.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3.